

제2회 국제학술회의발표논집

## 남한산성과 삼학사

일시 : 1997년 10월 9일(목) ~ 10일(금)

장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주최 : 성남문화원

주관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개 회 사

친애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南漢山城과 三學士」라는 주제로 작년에 이어 제2회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몸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오성수 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南漢山城의 현대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제1회 국제 학술회의는 南漢山城을 재조명하고 城南市의 文化的 歷史的 傳統을 찾아 성남시민됨을 자랑으로 여기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지방문화 육성발전이라는 당면과제를 실천해 가는 시작이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최하는 國際學術會議를 통해, 작년의 南漢山城 재조명에 이어, 우리 성남시 출신이며 민족의 대표적 충신인 三學士(洪翼漢, 吳達濟, 尹集)의 애국정신과 충효정신의 찬의미를 되새겨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사상적 정신적 턱을 찾아 충질의 도시 성남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三學士에 관한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성남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편견을 지우고, 문화와 역사적 전통의 뿌리를 다져 그 위에 발전의 줄기를 세워 도약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회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회의가 유익하고 발전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훌륭한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신 학자 여러분과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 10. 9.

城南文化院長 吳世淳

## 축 사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성남시가 주관하는 제2회 국제 학술회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국제 학술회의는 창년의 국제 학술회 의지를 연장 계승한다는 측면과 지방 자치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성남 시민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일대가 한국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문화 발원지에 대한 재인식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정통성에 대한 자긍심이 확산되어 지방 자치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남시가 문화도시로 급 선장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가 다양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개최하는 국제 학술회의는 성남시 문화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 더욱 뜻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일정 단계에 이르른 현 수준에서 과거와 국제 대외 관계사를 뒤돌아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와 차례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실양시의 석학들이 참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제 학술회의는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 상황에서 삶학사의 존왕양이적 질의 정신을 재조명해 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하여 성남 시민들의 올바른 가치관이 경립되고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제 학술회의 행사 준비에 정성을 쏟으신 성남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국내외 교수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내에 평화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10. 9.

성남시장 오 성 수

## 축 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중국과 국·내외 학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며 지방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정립하기 위해 성남 문화원과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제2회 한·중 학술회의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금번 두번째로 개최하게 된 것을 93만 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학술회의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은 백제 왕조의 발원지이자 삼국시대부터 각국의 한강 유역 진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의 침침에 45일간 항거를 하다가 인조대왕이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민족혼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청나라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고 죽음으로 선비의 기개를 엿빛이 발휘한 삼학사의 선비정신은 우리의 민족정신으로 제초명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애착심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오랜 세월동안 남한산성을 가운데 두고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같이해온 광주, 하남, 서울 송파구 주민들과 우리 성남 시민들이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모두 화합단결하여 역사적 의를 더욱더 돋독히 하고 우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중파의 문화교류도 더욱 더 활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향토문화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 오신 오세운 성남문화원장과 관계자, 전보상 향토문화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위원과 학술회의에 참가해 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한·중 학술회의가 날로 크게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7. 10. 9.

성남시의회의장 김영봉

## 축 사

남한산성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지난해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가진 바 있고 금년 남한산성이라는 역사공간을 정신적 자주로 승화시킨 三學士를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흔히 국제학술의회라면 학계의 공통언어를 창출하는 수준의 모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학술의회는 그러한 공통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데 사회의 미래좌표를 책임지고 있는 학자들의 진솔한 의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더욱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三學士는 당시 동북아 국제관계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를 지탱해오고 있던 선비정신의 표본으로 몸은 비록 머나먼 미국 땅에서 순절하였지만 그 기개는 꾀를 달리하는 다른 민족까지도 움직였으니 오늘에 되새겨 미래를 이는 좌표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三學士정신은 단순히 특정나라, 민족의 존재만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옮은 것을 내세워야 한다는 공존공영의 공통분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의회를 준비하면서 성남문화원 부설 탕토문화연구소 소속 연구위원님들께서 三學士 당신들이 남한산성을 나와 암록강을 건너 심양까지 가셨던 길을 되짚어 보았다 하니 뒤늦은 감은 있으나 三學士영혼을 모셔온 듯하여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숙연하게 느껴집니다.

. 단동과 심양은 통일한반도를 대륙에 이어줄 수 있는 중심 축이었기에 三學士의 심양행로는 미래 한·중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반도의 중심부인 수도권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성남시가 4천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유퉁성의 성도인 심양시와 자매관계를 맺게 된 것도 三學士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심양시와 성남시 자매 입장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통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첫단계가 될 것입니다.

머지 않아 통일이 되면 임진강을 건너 개성 평양을 지나쳤을 三學士의 운전한 행적이 자랑스럽게 담사되어 민족자존의 이정표가 되살아 날 것을 예상하니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의 정성이 더욱 초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의회는 작게는 성남시 정신적 자산의 축적이고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공통인식을 도출해 줄 것이며 크게는 한반도의 인식논리를 개발하

고, 장차 동북아 공존공영의 질서를 창출하는데 기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한산성자락에 위치해 있는 저희 경원대학교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역사공간을 재현하고 지역사회 번영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오성수 성남시장님, 관계공무원, 김영봉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번 학술회의를 주관하신 오세순 성남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님들,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 10. 9.

경원대학교 총장 김의원

일 · 정

□ 10월 8일(수) 告由祭 (17:00~ ) 남한산성 소재 頭筋祠

□ 10월 9일(목)	□ 10월 10일(금)
등록(10:00~10:30)	(08:00~09:00) 조 찬(경원대학교 총장 초청)
<p><b>■ 제 1 부 개회식</b></p> <p>사회 : 李光雨(사무국장)          개최사(10:30~10:40) 吳世澤(성남문화원장)          축사(10:40~10:45) 奉誠宇(성남시장)          축사(10:45~10:50) 金永奉(성남시의회의장)          축사(10:50~10:55) 金信遠(경원대학교총장)</p>	<p><b>■ 제 1 부 연구발표 좌장: 白南德(대유전문대)</b></p> <p>1.(10:00~10:50) 三學士 想想과 仁經와의 豐盛          발표: 姜相廟(중국 상양 고증학자)          토론: 신호승(관동대)          2.(10:50~11:40) 常道와 穩覺의 生存哲學          (丙子胡亂을 중심으로)          발표: 韓承國(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토론: 吳錦源(성균관대)</p>
<p><b>■ 제 2 부 기조강연</b></p> <p>좌장 : 許昌武(한국정신문화연구원)</p> <p>1.(10:50~11:10) 기조강연 (한국족)          南承國(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2.(11:10~11:30) 기조강연 (중국족)          千文明(중국 상양 요녕발해대학장)          3.(11:30~12:10) 雜·中 使行路 路遙 보고          全實三(성남 광교문화연구소장)          (12:10~13:20) 중 식</p>	<p><b>■ 제 2 부 종합토론회(11:40~12:50)</b></p> <p>좌장: 全實三(신구전문대)</p> <p>구자관(하남문화원장), 김성태(예총회장), 김창수          (경원대), 박경숙(광주문화원장), 박동익(하남부시장), 박성봉(전 경희대), 배기동(한양대), 신중대(성          남부시장), 양천희(성남교육장), 엄종섭(경기도의          원), 임창섭(송파구), 오동근(현창회부회장), 유봉학          (한신대), 유재봉(송파문화원장), 윤방(현창회부회          장), 이계학(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상중(강남대),          이상철(경원대), 이명성(경기도의원), 이인자(하남),          이종복(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준수(풀성고), 이준          구(성남시 국제협력처),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준          종(전 전국대), 인강수(광주교육장), 鄭顯杰(中國          清福寺政府外事處), 전예수(경기도교육위원), 정화          영(이화여대), 조성율(아주대), 조유천(국립민속박          물관), 조철형(광주부군수), 차운섭(전 단국대), 최          맹근(성남시의원), 최종민(교육망우재설위원), 홍경          선(현창회회장), 허사홍(풀성고교장)          (12:50~14:00) 중 식</p>
<p><b>■ 제 3 부 연구발표 좌장 : 韓春燮(성남향토문화연구소부소장)</b></p> <p>발표: 張玉貴(중국 상양 요녕사회과학원)          토론: 道炳魯(경기대)          3.(15:30~15:50) 三學士와 九農士의 比較 研究          발표: 張玉貴(중국 상양 요녕사회과학원)          토론: 道炳魯(경기대)          4.(15:50~17:10) 三學士의 詩文學 고찰          발표: 韓春燮(성남향토문화연구소부소장)          토론: 金天一(중국 상양 요녕대)          (17:10~ ) 만찬(성남시장 초청)</p>	<p><b>■ 제 3 부 남한산성 답사 (14:00~16:30)</b></p> <p>(안내 : 전보상, 한충섭, 백남숙, 조병호)</p>

## 목 차

개회사(吳世淳)

축 사(吳誠洙)

축 사(金永奉)

축 사(金儀達)

### 기조강연

南漢山城과 三學士의 철의정신(유승국) ..... 5

三學士의 民族精神과 그의 記念碑(千文甲) ..... 13

### 발표논문

丙子胡亂時 三學士의 活動과 意義 ..... 19

발표 : 정옥자(서울대학교)

논평 : 천화숙(경원대학교)

남한산성 현찰사의 건립배경 ..... 35

발표 : 장철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논평 : 정만조(국민대학교)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 53

발표 : 張玉興(중국 심양 哲學系)

논평 : 조병로(경기대학교)

三學士 詩文學 고찰 ..... 75

발표 : 한춘섭(시조시인)

논평 : 金天一(중국 심양 哲學系)

三學士 思想과 仁祖와의 갈등 ..... 103

발표 : 姜相顯(중국 심양 고궁박물관)

논평 : 신호옹(관동대학교)

常道와 權變의 生存哲學 ..... 133

발표 : 치교현(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논평 : 오석원(성균관대학교)

基調講演(한국측)

南漢山城과 三學士의 절의정신

유승국(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 南漢山城과 三學士의 절의정신

유승국(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 I. 머리말

제2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는 성남 문화의 질적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지방 자치화 시대에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내적으로 지방 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의 실현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 자치제의 실현은 지방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려는 것이 사회적 주제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남한산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정치·사회논리가 충돌했던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여 현실을 들여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한산성은 흥익한, 윤집, 오달제의 삼학사 정신이 배어 있는 특정 지역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이다.

성남이 문화도시로 급진화함에 따라 성남 시민들의 문화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남한산성과 삼학사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 개최하는 것은 성남 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케 하고 나아가 문화의 공간을 넓히는 한편,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토대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II. 南漢山城의 역사적 위상과 전망

한국 고대 사회에서 경복 천정이 수행되면서 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런 관계로 국가의 핵심 시설은 산성이었고 국가 방위 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남한산성의 일대는 삼국시대 아래 한강유역을 국가발전의 계기로 인식하여 왔다. 그 중 남한산은 수도의 방어지로써 일찍이 백제시대

## 6 제2회 국제학술회의

부터 이곳에 축성을 하였다.

반면에 기존의 남한산성에 대한 인식은 인조가 청의 황제앞에 출성 항복(出城降服)했다는 사실만에 집착하여 굴욕과 치욕의 장으로 치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 사관에 의한 왜곡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제 식민지사관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이 빈약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와같은 문제 의식에서 탈피하여 궁정적이고 객관적인 조명이 이루어지려면 인조 16년 이후의 재수축과 북한산성의 축성, 군비강화, 복별운동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나아가 남한산성 일대에 대한 지역적 위상을 검토해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반도의 중심축임을 알 수 있다. 즉 남한산 일대 문화권 역인 광주, 하남, 송파, 성남지역은 백제 초기 한성시대의 도읍지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酔祚王廟를 祀祭하던 곳으로 莫陵 등의 國幸路上에 있는 산성내에 행궁을 설치한 곳이라는 사실에서도 이런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침탈기인 구한말에는 南相國, 尹致章 등에 의한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난 곳이어서 역사적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역사 유적지로서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될 수 있고 문화적 자긍심의 단초라 할 수 있다.

### III. 三學士의 절의 정신

남한 산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인조가 청의 황제 앞에 출성항복했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착하여 굴욕과 치욕의 장으로 인식해 왔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 사관에서 연유한 것으로 우리의 인식틀은 이것에 고착되어 이를 타개하고 새롭게 인식하려는 시도도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식민지 사관의 절곡에서 벗어나 삼학사의 절의 정신들은 재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적 맥락은 근대화를 위한 혁사사상과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조선조 선비들에게 관통된 정통성 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삼학사의 정신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정신의 일단을 살펴 현실을 조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유교로써 수백 년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실용적인 유교의 일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초기 教化儒教도 실제적이었고 道學儒數의 시대에 있어도 도학을 崇仰은 하면서도 공담·대언으로 행세하는 자들 외에 실제로 정치하는 유학자들이 있었다. 土類 道學의 귀결은 반드시 이론에 치우치고 형식에 훌러서 도리어 실제의 생활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의 틀을 갖고 있었던 유학자들은 유학의 실천성에 비중을 두고 평분론을 비판하였다.

15세기 초 조선조의 학풍을 道學이라 지칭하는데 ‘聖賢之道’ ‘孔孟之道’라는 道統에 근거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초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대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육신, 생육신의 의리와 함께 연산 시대에 계속 이어진 무오, 갑자, 기묘에서의 사람들의 억울한 회생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키려는 기풍이 송상되어 왔다. 이처럼 의리, 대의의 실현에 의해 유학 전래의 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성리학적 실천 유학이 곧 도학이라 할 수 있다.

사람에서는 大義·義理·名分으로 일컬어지는 성리학의 규범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투철하였다. 사람에서는 그들의 學統을 鄭夢周·吉再·金桓濱·金宗道·金宏弼·趙光祖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를 세계화하였다. 이러한 學統觀은 학문의 실제적인 전수관계나 학문의 업적만으로 설정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색이 있다. 이것은 義理具現을 평가 내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삼학사의 절개는 이런 명분론과 정통성에 충일하고자하는 행동양식의 표출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정통성문제는 실화된 성리학과 예학 그리고 춘추학의 발달로 인해 명분의식과 원리주의가 팽배하게 된 지배계층 정신적 풍토와 의식구조를 배경으로 더욱 성숙되었다.

삼학사인 흥의환, 윤길, 오달체는 언관 출신이다. 삼학사가 현실에 순응하는 것을 멀치고 죽음을 택한 것의 내면에는 면면히 이어온 경통성에 대한 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통성에 대한 인식은 韓明甫=韓明周를 표방함으로써 조선을 중화문명의 계승주체로 파악하여 儒家의 道統은 朱子·栗谷을 거쳐 자신에게 전수된 것으로 자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韓明甫思意論·復醫論은 三綱五倫이 韓周之義·韓章懷論에까지 확대되고 하나의 통일된 현실적 인식논리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草(明)을 침범한 梢(清)는 삼강오륜의 父子君臣論에 대해서 불 태 질연코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삼학사의 철의 정신은 당대의 사림세력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

## 8 제2회 국제학술회의

할 수 있다. 흥익환은 인조반정 이후 관계에 진출하였는데 당시는 서인과 남인의 연합정권으로 中華인 명에 대한 존주의 의리와 임진왜란 때 再造之功을 내세우는 親明拜金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로 인하여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斥和論이 팽배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특히 면면하게 흐르는 小中華思想으로 무장한 선비들은 문화국가에 대한 자금실이 대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북방 오랑캐인 여진에게 군신관계를 요구당한 것 자체가 치욕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삼학사인 흥익환, 윤길, 오달체의 절의 정신도 이런 경통성 확보 절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삼학사가 현실에 순응하는 것을 멀치고 죽음을 택한 것의 내면에는 면면히 이어온 선비정신 때문이다. 삼학사가 보여준 절의정신은 章問=章明을 표방함으로써 조선을 중화문명의 계승주체로 파악하여 儒家의 道統은 朱子-栗谷을 거쳐 전수된 것으로 차부한 것과 맥락을 길이 하는 것이다. 章明報恩意識-復讐論은 三酮五倫이 章問之義-尊華攘夷論에까지 확대되고 하나의 통일된 현실적 인식논리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華(明)을 침범한 夷(淸)는 삼강오륜의 父子君臣論에 의해서 볼 때 필연코 극복되어야 하는 인식이었다.

## IV. 뒷말

지방화 시대에 성남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남한산성과 삼학사에 대해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성남은 21세기 문화 복지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단계에 있다. 이런 추세에 호응하여 문화를 창조적으로 영유하고 풍요롭게 누리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남지역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교육,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활동은 각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점검해 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삼학사 정신의 계승과 평가는 조선 후기 지식인층이 주도하였다. 조선 후기 지식층은 국도의 좌절감에서 자기회복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문의 성향에 따라 상이한 방법론을 전개

하였다. 즉 대외적으로 北伐論을 계획하는 목표설정은 동일한 것이었지만 방법론상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랑캐인 청을 쳐서 '復讐雪恥'하겠다는 북벌론은 당시의 양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고수하려는 공통된 목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북벌론은 의식적인 면에서는 절대당면의 선행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계반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평분론만 고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과 연계되어 볼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基調講演(중국측)

## 三學士의 民族精神과 그의 記念碑

千文甲(중국 심양 요녕발해대학장)

## 三學士의 民族精神과 그의 記念碑

千文甲(중국 심양 유풍발해대학장)

16세기 말 17세기 전반기에는 東北亞 歷史의 한 轉換期였다. 이는 또한 나라의 生存이 危險에 처해 있는 受難의 時代였다. 이 時期에 三學士라고 부르는 英雄的 人物(홍익한, 윤집, 오달재)이 나왔다.

당시 朝鮮, 日本, 明나라, 金나라를 비롯한 三國四方의 關係는 複雜한 樣相을 이루어 반세기에 걸쳐 전란이 끊임 없었다. 첫째로는 일본의 侵略野望이 騰起하여 明나라에 대한 偵攻을 피하여 우선 제일보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행하였다. 1592년부터 1597년까지 7년을 거친壬辰倭亂은 朝·明聯合作戰에 의한 共同防衛로 克服되었으나 朝鮮은 물론 심지어 明나라의 國力의 衰弱을 招來하였다.

다음은 明나라의 地方 民族政權이었던 여진족은 明나라의 束縛을 벗어나 1616년 금나라 정권을 건립하고 明나라와 對抗할 程度로 國力이 強해지자 中原의 頸權을 爭奪하기 위한 戰爭을 시작하였다. 역시 제일보로 朝鮮과 明國의 聯合를 分解함과 同時に 나아가서 朝鮮을 清나라의 對明作戰에 加擔할 것을 강요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청의 侵入은 이러한 戰略背景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될 것이다.

日本에 의한 壬辰倭亂, 后金에 의한 丁卯胡亂과 丙子胡亂은 조선을 반세기에 걸친 外患과 受難의 歷史를 겪게하였다. 壬辰倭亂은 아주 苛酷한 戰爭으로써 근 백만에 가까운 朝鮮人이 被害를 입었는 바, 그는 當時 朝鮮 總人口의 약 3분의 1이었다. 지금 日本京都에 있는 耳塚은 被害된 朝鮮人의 귀와 코 10만개를 풀어 놓은 높이 9m의 무덤이라고 한다. 이것은 당시의 文明水準에서도 容納 못할 殘忍한 행위였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1) 금나라의 침입도 조선에게 莫大한 苦痛을 주었다. 조선왕조실록과 清太宗實錄의 記載한 바에 의하면 안주와 의주만 하여도 살해당한 백성과 병사가 수만에 달하였다. 驟惡한 周邊形勢에 대처하여 조선왕조는 事大交隣의 외교로 國家主權을 지키려하였다. 즉 明과의 事

大關係는 사실상 内政이나 外交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明나라의 厚往薄來의 朝貢政策으로 오히려 實利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明나라에 貢物을 獻納한 나라는 朝鮮, 日本, 安南은 물론이고 中亞細亞 南洋諸國도 포함되어 모두들 使臣을 보내어 貢物 바치기를 즐겨하였다고 明史考證은 전한다. 경제적으로 조공에의 부담이 커서 땅은 조선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하여 5년에 한번씩 바치라고 하였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明史考證이 實證한다. 단지 明나라를 天朝라 하면된다. 사실상 明의 貢이란 貿易의 한 形式으로 主權侵害는 전혀 없었다.

(2)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朝鮮王朝가 對明義理를 固執한 것이 民族主體意識과 矛盾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王辰倭亂時期 明나라는 23만이나 되는 대군을 파견하여 조선을 도와 亡國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再造之恩이 있어 事大外交는 선비들의 共識으로 되었다. 強力한 中央之國이라 부르는 中國의 周邊에서 主權을 지키는妥協策일 수도 있을 것이다.

三學士가 清 王朝의 威脅과誘惑과 죽음의 試練에 面面하에도 민족의 大義를 지켰고, 忠誠을 다할 때 明에 대한 大義도 함께 固守한 것은 上記의 歷史背景에서 나온 것으로 三學士의 정신인 즉 民族精神이고 또 애국정신이었다. 삼학사는 비록 청왕조에 의하여 살해되었지만, 그들이 표현한 민족의 正氣와 崇高한 氣概는 朝鮮民族뿐만 아니라 여진인들에도 깊은 感銘을 주어 感歎을 금치 못하였다. 清나라 朝廷은 三學士의 높은 氣概에 感服하여 심양성 서문 밖에 그들을 追慕하는 祠堂과 碑石을 세우고 三韓山斗라는 글까지 새겨 주었다고 清史演義는 전한다.

그 후 오랜 歷史를 거쳐 그 碑石과 祠堂은 사라졌지만 300년이 지난 1935년에 中國에 사는 朝鮮族 유품인사들이 三韓山斗라는 碑의 일부를 심양 서문 밖 흙더미에서 찾아내었다고 한다. 드디어 그들은 이 비를 다시 重建하였다 한다. 비록 이 비가 300년 전의 그 碑石인지는 證明할 수 없지만 이 碑石을 重建한 것은 사실로서 그 位置는 심양의 春日公園(즉 오늘의 八一公園)이었다. 重修三學士碑記라는 碑文의 첫 구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我 朝鮮 基於檀君 啓靈於箕子, 俗尚忠孝, 土致仁義, 自古稱禮義之邦

(우리 조선은 단군을 조상으로 하고 기자에 의해 국토를 열어 충효를 숭상하는 민족으로 인과 의리를 다함이 선비이나 자고로부터 예의의 나라로 불리워왔도다.)

35년 당시 朝鮮은 亡國의 暗黒한 시기에 처하여 있고, 中國의 만주 역시 日帝의 僥僗政權으로 중국으로부터 분리된 狀態였다. 이 때에 이러한 碑文을 새겨 朝鮮歷史와 遺流를 説明함은 三學土의 애국정신으로 조선의 復權을 호소하려는 用意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碑文의 牡본을 연구하여 三學土碑 重建의 애국적 意味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 碑는 中國의 文化大革命 前까지 繼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文化大革命이라고 하는 中國의 內亂時期 이 碑石은 차취를 감추었는데 1985년 渭河江 가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三韓山斗라 새겨져 있는 이수부분은 보이지 않고 碑身 主體만이 대부분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되어 심양의 조선족들은 360여년 전 옛 심양에서 벌어진 비참한 역사의 한 탁을 알게되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삼학사 사건은 조선민족의 애국애족의 정기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국과 조선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실증하여 주었다는 인식에서 이 비를 우리의 얼이 담겨있는 고귀한 문화재로 看做하였다. 너무나도 事大에 풀든 측면도 없지않지만 事件當時의 歷史環境을勘察하면 反對로 中·韓友誼의 깊이를 立證하는 자료로도 될 것이라 보았다. 1993년 8월 7일 심양에 살고 있는 조선족 유치인사들이 조선족 文化館에서 모임을 가져 三學土碑 및 김상현 선생 瞽堂 再建發起文을 내놓았다.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해내외 동포 여러분, 조선종업의 애국자로 우리 겨레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흥익한, 윤김, 오달세 학사가 심양땅에서 순국한 지 300여년, 꼭절많은 세파를 겪어오면서 그이들을 기념하여 세운 비가 원래 것은 찾을 길 없이 폐허되어 버리고 그 후 뜻있는 인사들이 다시 세운 것조차 중국의 문화혁명시기에 통강난 채로 심양 야외에 보잘것없는 바위들로 버려받았습니다. 후에 비록 조선 유치인사들의 힘으로 비석을 찾아다 看守하였지만 아직 제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얼은 오랜 역사를 거쳐 엉켜진 것으로서 지난날의 좋은 전통을 잊는다면 오늘에 내세울 것이

없고 앞날에 물려줄 것은 더구나 없을 것입니다. 광국노의 천대를 빼  
처리해 받아본 저희들은 민족의 얼이 베어있는 진귀한 문화재를 소중  
히 보호하여 대대로 전하여지게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삼학사비  
및 김상현 선생 사당을 제건하여 우리겨레의 자랑찬 문화재전당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사를 해내외에 호  
소하면서 여러 동포들과 그 학사 후손들이 뜨겁게 호응하시길 간곡히  
바라며 또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발기자(명단생략)"

이 碑의 重建은 두 가지 作業을 必要로 한다고 본다.

첫째는 삼학사 사적과 그의 정신에 관한 연구 결과를 중국사학계를  
통하여 중국당국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삼학사 정신의 민족  
적 성격이 중·한우호를 촉진하는 것으로 다른 부작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시키야 한다.

둘째는 자금문제일 것이다. 중국사회와 이해를 기초로 하는 모금활  
동과 한국의 후원을 필요로 한다.

저는 이 碑의 重建이 中國과 韓國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友好事業  
에 큰 寄與가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저는 歷史에 無知한 自  
然科學者로서 歷史學者들 앞에서 無知妄說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  
도 없지 않다. 잘못된 점은 가르쳐주기를 기대하면서 三學士 精神의  
現代的 再昭明을 中國學者들과의 共同研究로 推進하기를 付託합니다.

## 丙子胡亂時 三學士의 活動과 意義

발표 : 정옥자(서울대학교)

논평 : 천화숙(경원대학교)

## 丙子胡亂時 三學士의 活動과 意義

정옥자(서울대학교)

- I. 병자호란의 시대적 배경
- II. 삼학사의 인적사항
- III. 삼학사의 활동
- IV. 삼학사의 의의

### I. 병자호란의 시대적 배경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은 조선 500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였다. 그보다 불과 40년전인 임진왜란이 7년이나 끌면서 전국토가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전으로 끝났음에 비하여, 병자호란은 불과 2개월의 단기간의 전쟁이었지만 폐천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조선사회에 안겨 주었다. 이 양란으로 인하여 조선후기 사회는 심각한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당위에 직면하여 17세기는 와해된 조선사회를 재정비한 시기였다.

특히 상처받은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모색된 복별론(北伐論)과 존주론(尊周論)은 조선의 자기회복의 방안이기도 하였다. 전자는 무력으로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중원의 주인이 된 청나라를 토벌하여 복수설치(復讐設施)하겠다는 논리이고, 후자는 명이 멸망한 현실에서 주나라로부터 전승된 중화문화를 조선이 존중하여 계승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이론체계는 성리학적 맹문론인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재조지은(再造之恩 : 조선을 다시 회복시킨 은혜)」을 입은 명나라는 중화문화의 적통이자 조선의 은인임에 비하여, 이적(夷狄)인 여진족은 동북아시아의 악탈자이자 무뢰한으로 극복의 대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였다.

임진왜란이라는 동북아시아의 세계대전을 통타 만주에서 힘을 기

큰 여진족의 청나라가 중원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병자호란이 일어나 국체의 상징인 왕이 삼천도에 나아가 철태종에게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였다. 고려때 풍고침입 이후 유사에 없던 일을 당하여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던 조선 지식인들은 정묘호란(1672년) 이후 이미 쳐화론(斥和論)과 주화론(主和論)으로 갈려 있던 사론(士論)에 대한 반성을 시작하였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였다. 이들의 명분론인 화이론(華夷論)은 그들의 세계관이기도 하였다. 중국인들의 인식체계에서 중화(中華)란 지역적으로는 중국, 종족적으로는 한족, 문화적으로는 인륜과 도덕을 중심축에 두고 있는 유학을 핵심으로 하는 유교문화를 뜻한다. 그러나 같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중국에 버금가는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의 중화인식은 지역적 종족적 외괴를 벗겨내고 문화적 의미에서만 파악하였다. 신유학인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고 그 사상의 정수를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조선성리학으로 자기화시키는데 성공한 조선으로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바로 이 중화적 세계질서속에 안정된 농경사회를 추구해온 조선이 침략과 약탈을 일삼아 오랑캐라 인식되던 일본과 벌인 전쟁이 임진왜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겨우 전국을 통일하고 그 팽창된 군사력을 해외로 배들려 대륙을 도모하려던 일본은 정명가도(征明假道 : 명나라를 점벌하려하니 길을 빌려달라)를 내세우며 침입하였다. 이에 대상국이자 당시 세계의 주도국이던 명나라는 구원군을 파견하여 조명연합군을 조직하였다. 의병(義兵)의 계릴라전과 이순신장군이 이끈 해군의 활약이 가세하면서 일본을 국토에서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동북아시아의 세계대전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둔요시켰고 만주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여진족이 흥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금(後金)이라 국호를 정한 여진족은 중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후에서 명나라와 동서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조선을 선제공격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으로 「형제의 의리」를 요구하여 조선을 압박하였으나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자, 1636년 10만대군으로 병자호란을 일으켜 「군신의 의리」를 강요하면서 유목민다운 기동력으로 속전속결을 원칙으로 하여 조선을 공격하였다. 그들에게는 보급이 필요없었다. 말 안장에 달린 말고기를 싣고 말젖을 짜 마시면서 쉬지않고 달

려 그들의 선봉대는 불화의 전달시간과 거의 같은 속도로 서울에 육박하였다. 이어 국호를 청(淸)으로 칭하고 삼만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청 태종은 남한산성을 포위하여 압박하였다. 한정된 식량으로 버티던 조선정부는 1개월 반 만에 인조를 비롯한 조정중신들이 삼전도에 내려와 항복하니 이른바 「정축의 하성(丁丑의 下城)」이다. 병자년 12월에 시작된 전쟁은 다음해인 정축년 1월에 끝났던 것이다.

조선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순정 성리학자군인 사람(士林)이 정계의 주류가 되어 바야흐로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정치에 구현하려는 열의에 불탔지만, 아직 정변후의 청국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두 번의 호란을 겪자 깊은 좌절감을 안게 되었다. 특히 화이본에 입각한 명분론자들인 사람으로서는 오랑캐에게 당한 차욕을 셧아내야하는 당위에 직면하여 사회주도층으로서 책임의식과 함께 국가재건을 위한 지도 이념 창출이 급선무였다. 바로 그러한 필요에 의하여 제기된 논리가 앞에서 언급한 복벌론과 존주론이다.

천란후 조선후기 사회가 재정비되면서 병자호란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평가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체질화된 성리학적 기준으로 볼 때 북방오랑캐인 여진족과 형제의 떠리나 군신의 의리를 맷는 일은 자존심의 포기이자 가당치 않은 굴욕이므로 승패불구하고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람사회의 공론으로 국론화하였으니 이것이 척화론(斥華論)이다. 척화론의 대세속에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국가위기를 수습하는 방법으로 칭과의 화의(和議)를 모색하여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주화론(主和論)이다. 전자가 이상론 내지 원칙론이라면 후자는 현실론이었다. 이 두 주장은 현실타개의 원칙과 방법론에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근대사학이 성립되면서 현대적 가치관과 인식론에 입각하여 척화론자를 허황된 명분론자로, 주화론자를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적 사명에 투철한 이들로 이분화하여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국론분열」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현대의 이데올로기인 힘의 논리와 실리주의를 대입시킨 결과이지 당시대를 세대로 이해하는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질하된 척화론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특히 척화론으로 인한 폐전의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삼학사(三學士 : 洪翼

漢·尹集·吳達濟)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후기 사회에서 이들의 죽음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는 것이 본발표의 목적이다. 이들의 행동은 각각 독립적이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언관(言官)으로서 직무수행 차원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17세기 후반 송시열(宋時烈 : 1607-1689)은 이들을 한데 묶어 「삼학사전」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 볼으로써 별자호란과 그 전란에 첨면으로 맞선 조선사대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자 한다.

## II. 삼학사의 인적사항

홍익한, 윤집, 오달계의 세 사람을 삼학사라 일컫게 된 것은 1674년 송시열이 「삼학사전」을 지은 이후부터이다. 별자호란 당시 홍익한은 이미 52세로 언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 윤집, 오달계와 함께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 사람의 지향한 바가 같았고 함께 청나라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으므로 한데 묶은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호란 당시 “부박하여 이름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반세기 후 송시열에 의하여 충신·열사로 평가를 굳힌 후 18세기에 이르러서도 국가적인 현창작업이 계속되었다. 이들에 대한 인적 사람은 위의 「삼학사전」에 의거하였다.

### (1) 홍익한(1586-1637, 선조19-인조15)

진사 홍이성(洪以成)과 안동 김씨(金璵의 팔)사이에 태어났다. 자는 벽승(伯升), 호는 화포(花圃) 또는 운옹(雲翁)이며 본관은 남양이다.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 1564-1635)의 문하에서 수업했는데 월사는 그를 평하여 “이일(異日)에 반드시 위인이 될 사람”이라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빼어난 자질을 보였고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질의하고 죽은 사람을 보면 반드시 얼굴색이 통하여 마음으로 사모하였다.

1615년(광해군7)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621년(광해군13)에 알성과에 들었으나 권세가의 자손이 아니라 하여 권귀(權貴)들이 발거하여 뽑히지 못하였지만 태연하게 대응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다음해 1624년 인조가 궁주에 행행하여 경시를 행하자 장원으로 급제하니 이미 39세였다. 그의 출사가 늦어진 이유는 광해군 정권이 그의 벼슬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감찰, 사서, 정언, 병조 정랑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묘호란 때는 사간원의 정언(正言)이라는 언관직에 있어서 강홍립을 비판하였고 병자호란이 일어난 1636년 봄 역시 사헌부의 장령(掌令)이라는 언관직에 있으면서 이전이 나라 이름을 청이라 하고 황제를 칭하는 것은 참된 한 일이라고 맹렬하게 논박하였다.

그는 두 번 결혼하여 전처인 구씨사이에 흥취원(洪醉元)과 딸 한명 을 두었고, 후처인 허씨사이에 흥취인(洪醉寅)과 두 딸을 두었다. 이들 가족은 출가한 딸들을 계외하고 모두 전란중에 외연하게 죽음을 당하였다. 후처 허씨가 죽을 만나 굴하지 않고 전처 소생인 흥취원이 몸으로 막다가 칼에 맞아 죽으니 허씨는 물에 물을 던져 자살하였고 이 광경을 목도한 머느리 이씨는 스스로 목을 펠러 자결하였다. 허씨 소생의 아들 흥취인 역시 강화도 마니산에서 피살당하니 일가가 전멸하였다. 송시열은 「삼학사전」에서 “일월의 밤음미여, 산악의 높음이 예, 그 누가 그와 더불어 높고 밤으랴! 오직 화포공(花浦公 : 흥익한)의 절개뿐이로다.”하였다.

#### (2) 윤집(1606-1637, 선조39-인조15)

윤집은 현감 윤형갑(尹衡甲)과 관찰사 황치경(黃致敬)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 조부 윤섬(尹遜)은 임진왜란때 순절한 충신이었다. 본관은 남원, 자는 성백(成伯), 호는 일계(林溪), 혹은 고산(高山)이다. 13세에 아버지가 별세하자 배형인 윤계(尹鑑)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스스로 힘써 학문을 하였고 행실이 독실하여 계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윤집의 성품은 청개(淸介 : 맑고 개결함)하고 직절(直截)하였으며 총명절인(聰明絕人)하여 눈에 거치는 것은 모조리 기억하였다 한다.

1627년 22세 때 소파에 급제하여 생원이 되었고, 1631년 26세로 별시문과에 합격하여 승문원 정자(正字)로서 관료생활을 시작하였다. 시강원 설서(說書)·사간원 정언(正言) 등 청직(清職 : 글로써 업무를 보는 중요한 직책)만을 역임하였다. 이 때 형 윤계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조 정랑에 임명되자 형제는 서로 경계하여 “우리가 남을 뛰어 넘은 것은 아니지만 함께 청반(淸班)을 차지한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며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1635년 흥문관에 새로 녹선되고 수찬·부교리를 거쳐 사간원 정언·

현남을 역임하고 이조 좌랑·정랑이 되었다. 1636년 9월 성균관 칙강(直講)이 되어 영남지방 시험에 출장갔다가 복명하기도 전 길에서 현남(獻納)의 명을 받고 거울에 흥문관 교리(校理)가 되었으니 병자호란 직전에 언관직의 핵심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병자호란 때 대표적인 척화대신 청음(淸陰) 김상현(金相憲 : 1570~1652)의 조카딸인 안동 김씨와 결혼하여 이선(以宣)과 이정(以徵)의 두 아들을 두었다. 김씨는 성격이 단정하고 절백하여 남편이 직진에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를 걱정하였으나 친정아버지의 권유로 살아 남았다가 30여년 뒤 1665년 사망하였다. 후에 윤집의 손녀가 흥익한의 양자의 아들 흥우석에게 시집감으로써 윤집과 흥익한은 죽어서 사돈을 맺었다. 효종은 윤집의 가문에 대하여 “윤설의 조손형제(繼孫兄弟 : 할아버지 윤설, 큰손자 윤계, 작은 손자 윤집)는 양세(兩世 : 선조와 인조)의 삼절(三節 : 절의를 지킨 세사람)이니 어찌 귀하지 아니한가?”하여 그 충절을 기렸다.

### (3) 오달계(1609~1637, 광해군-인조15)

오달계는 오윤해(吳允灝)의 셋째아들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해주,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담(秋潭)이다. 백부인 오윤겸(吳允謙 : 1550~1636)에게서 배웠다. 1627년 19세에 소파에 합격하고 1635년 26년에 벌시문과에 장원하였다. 1635년 6월 윤집과 함께 흥문록에 신록되었고, 성균관 전직, 병조 좌랑, 시강원 사서,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1636년 병자호란이 나던 해에는 청요직의 핵심기관인 흥문관의 부수찬, 수찬, 부교리에 있다가 호란당시엔 수찬으로써 언관직을 수행하여 공론(公論)의 일선담당자로 있었다.

어려서부터 치극히 효성스러워 몸가짐이나 일처리, 사람을 대하고 사물에 접하는 태도에 있어서 효계(孝悌)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꿈의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효제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었다 한다. 인품이 너그럽고 충신(忠信)하면서도 단방정직(端方正直)하였다. 평소에는 순하여 말을 잘 못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국가대사나 시정(時政)의 특실 등 경륜에 관련된 큰 일에는 사기(辭氣)가 격앙되고 강개가 넘쳐 듣는 사람이 모두 봄을 움추렸다 한다.

평소 처남인 남일성(南一星)에게 “무릇 사람이 이해(利害)에 임했

을 때 자신이 지키던 것을 많이 잃게 된다. 대개 사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급에 비추어 보면 이(利)를 막하는 자가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니며 해(害)에 처한 자가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뿐이니 어찌 이해를 비교하고 사생(死生)을 헤아려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며 망설이리요.”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생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 세 사람은 병자호관 당시 모두 언관직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호학파로 서인정파에 속해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흥익한은 이이의 제자인 이정구의 제자로 기호학파이며 당색은 물론 서인이었다. 윤길은 대표적인 척화대신이던 김상현의 조카사위로 역시 기호학파이며 서인당색이었다. 오달계는 이이와 성흔의 양문하에서 수학한 백부 오윤겸에게서 배웠으니 역시 기호학파이며 서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이와 성흔의 재전제자들인 셈이다. 뒤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자 흥익한과 윤길 가문은 노론으로, 오달계 가문은 소론으로 편입되었다.

세 사람 모두 소과에서 생원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전사시험에 주로 문장을 시험하는데 비하여, 생원시험은 경전의 철학적 문제를 시험보는 것이므로, 이들은 성리학적 이념을 어려서부터 꼼꼼하여 체질화시킨 학자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623년 인조반정후에 베슬 길을 시작하여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병자호관 당시에는 사헌부 장령, 흥문관 교리, 흥문관 수찬 등 언관직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치식인사회의 여론인 사론(士論)을 대변하였던 것이다.

### III. 심학사의 활동

병자호관의 단서는 1636년 2월 후금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그 국서에서 나라 이름을 “청”이라하고 황제를 자칭하며 조선에게 기존의 ‘형제의 의리’가 아닌 ‘군신의 의리’를 강요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척화론이 비등하였고, 당시 사헌부 장령의 직책에 있던 흥익한은 사론을 대신하여 상소하였다. 그 내용은 칭제(稱帝: 황제를 칭함)와 참람함을 지적하고 그 사신을 꼭 벤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조선은 예의로 천하에 알려진 소중화(小中華: 작은 유교문

## 26 제2회 국제학술회의

화국기)인데 북방 오랑캐가 형제의 의리도 모자라 군신의 의리를 강요하니 마땅히 책임을 추궁하고 「예의지대(禮儀之大: 예의의 큼)」와 「인국지도(隣國之道: 이웃 나라의 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신이 어찌 군부(君父)로 하여금 욕되게 하고 구태여 살아 남겠습니까? 아! 신이 비록 병약하나 적의 칼에 스러지겠습니다. 동토(東土: 동쪽의 우리나라 땅) 수천 리에 어찌 한 사람의 의사(義士: 의로운 선비)가 없을 것입니까?”

하여 스스로 의사로 자처하였다.

인조가 망설이고 관망하던 중 청나라 사신 융골대(龍骨大)가 도방하였다. 이에 최명길이 화의를 강력히 주장하여 조정의 일부가 좌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흥익한은 대의(大義)로서 최명길을 면책(面斥)하였다. 결국 12월에 청군이 침입하자 최명길은 “적화하여 청의 칠략을 초래한 자는 흥익한이니 지금의 서로지임(西路之任: 서쪽의 임무)은 그 말고 누구이겠는가?라고 하여 결원증이던 평양 서울에 임명하여 그를 사자로 내를 았다.

사람들이 그의 처지를 동경하자 “순국(殉國)-사적(死敵)하려는 것이 평소 지녔던 마음이다.”하며 조금도 혼들림이 없었다. 12월 14일 인조에게 숙사(肅謝)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미 서울 근교에 유파한 청의 기병을 피하여 20여일만에 평양의 보산성에 도착하였다. 때에 도원수 김자겸이 패하여 인심이 흥흥하니 그는 격물을 발하여 훑어졌던 무리를 모으고 밤낮으로 수비의 방책을 세워 성을 보존하였다.

윤집은 1636년 봄 홍문관 교리로서 척화소를 올렸다. 흥익한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최명길이 조정과 대각의 공론을 무시하고 화의를 도모하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라가 대간을 소외시켜 놓고 어찌 하례 하는가?”하고 풍박하였다. 막상 12월 청군의 선발기병대 500여기가 서울에 밀어 닦치어 인조와 조정백관이 남한산성으로 피난할 당시, 윤집은 관직을 파하고 집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걸어서 왕의 수레를 따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흥익한은 평양 서울으로 좌천된 상태이고 다른 연관들은 몸을 사리는 상태에서, 남한산성 안에서 연관직을 주도한 이는 윤집과 오달제였다. 그는 교리의 직책으로 “고성(孤城)이 위박(危迫)한 시점에서 강화하지 않고는 적을 물리칠 수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 예걸하면 적은 더욱 경멸하여 화의(和議)는 마침내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싸워 지

킬 수 있음을 보여 준 후에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일치단결하여 싸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만 강화도 제대로 할 수 있지. 비굴하게 해결하면 상대가 격멸하게 되므로 일방적인 군욕만 당하게 되리라는 현실인식이었다. 윤집은 무조건 싸우자는 헛된 명분론자가 아니라, 유리하게 강화하기 위해서도 조선의 강인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고차원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청나라의 목적은 명나라자 조선이 아니었다. 명을 정벌하여 중원의 주인이 되려하는데 조선이 명의 동맹국으로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 달 반 동안 산성을 포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청대중도 초초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의 「버티기 작전」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주화론이 현실성을 확득하자 그의 강경한 자세는 「부박하게 이름날리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른다. 게다가 남양부사로 있던 형 윤계가 폐비하여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1637년 1월 7일 접하자 계책을 요청하여 물러났다.

1636년 10월 흥문관 수찬의 직책에 있던 오달제는 살학사 중 가장 젊은 29세의 청년으로 최명길의 주화론을 명렬히 비판하였다. 최명길이 인조의 뜻에 편승하여 죄화론으로 모아진 언론을 무시하고 자의로 화의를 진행시키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에 인조는 최명길이 사직에 공이 있는 조정 중신인데 황구소아(黃口小兒)가 할부로 모속한다고 패망하고 그리한 국습(關習 : 언관의 단택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습관)을 한탄하였다. 이 해 12월 병자호란 당시에는 파직되어 집에 있었으나 나이 들어나자 걸어서 왕의 수레를 쫓아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인조와 최명길이 청과의 타협을 통하여 국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현실론에 대응하여 언관들이 들고 나온 원칙론 내지 이상론이 청에 하게 맞부딪힌 것이다. 인조반정 이후 사림정치의 지향은 죄화론으로 모아졌지만 현실적 상황이 주화론으로 기운지 않을 수 없었다. 청이 화의성립의 조건으로 죄화론의 주모자들을 잡아낼 것을 요구하자 조정에서는 수십명을 보내려 하였다. 당시자들이 번명하며 시간을 끌자 청음(淸陰) 김상현(金尙憲 : 1570-1653)-동계(桐溪) 정온(鄭蘊 : 1568-1641)-팔송(八松) 윤황(尹煌 : 1572-1639) 등 세 대신들이

차수하였고 산성에 들어 와서 이리 저리 팽개대며 보신하는 다른 언관들을 대신하여 언론을 주도하였던 오달제와 윤길이 연명으로 청진에 잡혀갈 것을 청하였다. 여기에 봄에 척화를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으로 흥익한이 지목 채포되어 세 사람은 청진에 압송되었다.

이들에 대하여 청은 회유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먼저 호승된 흥익한에게 연회도 베풀고 조식으로 성찬을 대접하는가 하면 관직으로 회유하였다. 흥익한은 다른 척화인을 실트하라는 험박에 굽하지 않고 청태종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청의 무례함과 정묘호란 때의 약속을 과기하였음을 맹공하였다. 청 태종이 척화를 부르짖으면서 포로가 된 현실을 비웃으니 “언관으로서 대의(大義)를 밝히는 것일뿐 성패(或敗)·존망(存亡)은 논할 바 아니다.”하고 뜻을 들어 의견을 개진하고 “빨리 죽여 달라.”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이 날이 3월 5일이니 바로 심양에서 처형되었다.

윤길과 오달제는 1637년 1월 28일 인조에게 하직하고 29일 죄명길을 따라 청진으로 갔다. 청진에 도착하자 좌장 융골타가 나와 청 태종의 말이라 하며 “너희들이 만약 나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면 나와 싸울 일이지 왜 산성에 숨었느냐?”하였다. 이들 역시 흥익한과 똑같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로지 대의(大義)일뿐 이기고 저는 일과 존망은 논할 바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들 역시 다른 척화인을 대라는 험박에도 굽하지 않고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4월 15일 심양에 도착하여 19일에 융골타가 나와 여러 가지로 험박하고 청 조정에서 벼슬하며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살라고 회유하였지만 굽까지 굽하지 않고 결국 심양의 서문밖 행장으로 끌려가 처형당하였다.

힘의 논리에 의거하는 북방족인 청이 조선 언관의 성리학적 대의명분론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이들 세 사람은 굳은 절의와 불요불굴의 태도로 조선 지식인의 만만치 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럴수록 청나라로서는 이들의 사기(士氣)를 적어 굽복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청은 이들이 아직 젊고 수창인(首唱人)이 아니라 속죄양에 불파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굽복하기만 하면 살려 줄 의도였던 것이다. 이들 세 사람은 조선 사대부의 기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끝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 IV. 삼학사의 의의

이상으로 삼학사가 활약하게 된 배경으로서 병자호란의 시대적 의미와 전란 중에 언관으로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한 삼학사의 활동상을 살펴 보았다.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는 인조반정 후의 사림정부가 철리외교를 지향하지 못하여 병자호란을 자초하였다는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삼학사를 헛된 명분론자로 평가절하하였다. 이러한 현대사학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조선시대 역사를 올바로 평가해 보려는 분위기가 성숙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삼학사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확인되었듯이 힘의 논리를 승상하는 청나라는 현실적으로 이길 충산없이 척화하는 조선 지식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를 세 사람의 언관들의 논지는 자신들의 역할이란 이기고 지는 문제나 살아남느냐 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를 밟히는 것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들 삼학사와 청 태종이나 용글타가 나눈 문답은 무력에 외존하는 북방족 청나라와 성리학적 명분사회인 조선의 차별성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준다.

남한산성에 갇혀 항쟁하면서 흥문관 교리작에 있던 윤집이 “내 스스로 애걸하면 적은 더욱 경멸하여 화의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싸워 지킬 수 있음을 보여 준 후에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화론자들의 종전 협상에 척화론자들의 강경한 태도가 배후작용을 함으로서 조선은 유리한 입장으로 화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화친론자들도 비록 전란의 다급한 상황에서 방법론상 현실주의인 주화론을 선택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유교적 명분론에는 동의하여 북방족에 대한 인식은 같았다. 주화론의 대표주자로 강화를 주도한 최명길조차 후에 심양에 잡혀가 유괴된 사실에서 확인된다.

병자호란 당시 흥익한은 52세, 윤집은 32세, 오달제는 29세였지만, 이들은 모두 언관직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흥익한은 병자호란이 나던 1636년 봄에 사헌부 장령으로 척화론에 앞장 섰다. 윤집은 흥문관 교리, 오달제는 흥문관 수찬으로 모두 호란 당시의 언관들이다. 이들은 지식인 사회인 사립의 여론을 꼽본화해야하는 의무가 있었으니

### 30 제2회 국제학술회의

직무수행 차원이었다. 척화론은 사람의 사론(土論)이자 국론이었기에 이들은 소신껏 조정에서 자기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세 사람을 묶어 <삼학사전>을 지어 평가한 송시열의 작업은 조선후기 사회의 계편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문치국 가였던 조선이 무력을 승상하는 야만족의 청에 패배하고 극도의 좌절 감속에 자기회복의 방법으로 들고 나온 북벌대의(北伐大義 : 청을 토벌하여 복수설치 해야 한다는 당시대의 국가대의)는 호란시의 순국열사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명분사회였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현창되었던 삼학사에 대한 역사적 위상은 근대사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학계를 풍미한 식민사학과 그 이후 실용주의적 현대사회의 역사인식 세계에서 평가질하였다.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에 일각한 식민사학이나 공리주의적 현대사학의 시각으로는 명분을 중히 여긴 조선 사대부의 행위를 이해할 수도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 「丙子胡亂時 三學士의 活動과 意義」에 대한 논평

천화숙(경원대학교)

15세기 기반을 구축한 조선 왕조적 지배체제는 16세기를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계방면에 걸쳐 解弛나 荒亂의 단계를 넘어서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이후의 조선 왕조 사회의 성격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임관과 호관을 겪으면서 더 촉진되고 칠저해졌다는 점에서 양관에 대한 관심이 뿌어졌다.

특히 정묘·병자호란은 사회·경제적인 계발문제와 더불어 조선사회를 이끌고 있는 성리학에 의한 명분론과 세계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현실에 직면하게되었다. 즉, 임진왜란 이후 춘추대의에 의한 친명 배금 사상이 강조되고 있어 丁卯利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치욕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병자호란에 대응하는 조선의 조정은 남한산성에서 척화론적인 입장정리가 있은 후 현실적으로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면서 주화론으로 국론이 결정되었다. 이에 척화론자는 성리학의 원칙에 충실한 명분론자로, 주화론자는 현실론자라는 이분론적인 면에서 이해되는 경향이었다. 그 결과 발표자가 지적하듯 척화론자의 대표적인 삼학사는 현실을 도외시한 원칙론내지 명분론자로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현대사학에서 그 의미를 소홀히 하였다 는 발표자의 지적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식인의 일반적인 존명사상과 더불어 삼학사의 관직이 언관이며 당시에 서인 이었다는 점에서 언관의 기능적인 성격과 아울러 당시 관련지에 척화론을 전개한 배경에도 이론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화론과 주화론을 단지 현실론과 명분론이라는 단순한 이분론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사상적인 측면을 떠나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정묘화약에 나타난 많은 악수의 藏幣는 당시 조선의 경제력으로는 국가 재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부담하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힘에 거울 매우 무거운 부담이었다. 나아가 犯越制遷 中江開市와 같은 문제

가 부가되면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막중하였다. 그리고 병자호란 시 청이 제시한 세례는 정묘화약시보다 열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분량 이었다. 이는 19세기 순조시에 중앙 육조의 경비가 140만량이었는데 30만량에 해당되는 엄청난 물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척화론이 있어야지 강화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삼학사의 주장은 대외관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나하면 삼학사는 비롯 현장 정치에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점원 세력인 서인이며 청에게 주는 세례의 궁극적인 부담자는 백성인바 이들의 고통을 절실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전후의 민생 안정까지 염두에 둔 성리학의 경세관을 바탕으로 한 척화론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의 지식인은 종래에 인식되고 있던 崇明思想과 반 청강정은 항쟁의식으로 고조되었다. 특히 명이 망한 뒤에도 개인 문서나 祭享祝詞에는 청의 연호인「崇禎」이란 연호를 사용한다는 악속 을 지키지 않고「崇禎紀元之後某年」, 「崇禎紀元後何干支」 등으로 명 나라 최후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러한 숭명사상 및 반청의식은 조선 의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최명길을 비롯한 주화론자들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척화론은 평분론, 주화론은 현실론이라 이분적인 내용으로 삼학사를 비롯한 척화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치 않는가 한다. 즉, 삼학사를 중심으로 한 척화론자들은 강화의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방략의 일환으로써 강력한 척화론의 주장은 전후에 나타나는 국가와 백성들의 사회·경제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현실론 자인 동시에 민생 안정을 고려한 성리학에 의한 원칙적인 경세가란 점 또한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점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남한산성 현절사의 건립배경

발표 : 장철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논평 : 정만조(국민대학교)

## 남한산성 현철사의 건립배경

장철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 I. 머리말
- II. 조선의 원우 건립 통향
- III. 건립과정

### I. 머리말

주자학을 풍자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 문화정책의 핵심은 주자학 이념의 생활화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가와 민간의 차원에서 각각 다른 제도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가의 차원에서는 한성에 문묘를, 그리고 지방 읍치에는 황교를 건립하여 공자를 비롯한 선현을 숭배하도록 하고, 또 각각 명륜당을 세워 경전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간의 차원에서는 주자(1130-1200)의 「가례」에 근거하여 4대의 조상을 숭배하기 위한 사당을 집에 건립하고, 관혼상제의 4례를 모두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차원의 방법과 제도는 그 성격으로 보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자학 이념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을 통합하는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움직임의 하나가 바로 1541년(중종 36) 주세봉(1495-1554)에 의해 풍기에 세워진 '회현사'와 그것을 모태로 하여 1543년에 벽운동서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적인 차원에서 숭배되던 조상이 공적 및 지역적인 차원의 선현으로 승배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표지로 사우와 서원이 거의 동시대에 건립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것은 회현사의 건립이 관과 민의 경계를

협력에 의해서 전립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탕이 되어 서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저간의 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사우와 서원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원우'라는 통합된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사우와 서원은 성격상 일정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연구는 특정한 시기에 갖는 서원과 사우의 성격을 밝히는데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그것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국가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격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또 그 상호관계를 검토하므로써, 조선시대에 걸쳐 서원과 사우의 전립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고, 같은 맥락에서 현절사의 성격도 밝혀 보고자 한다.

## II. 조선시대의 원우 전립 동향

먼저 조선시대의 원우 전립의 동향을 위하여, 시기별 원우의 전립 및 사액 상황과 그 상호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전립	사우/서원 (%)	사액	사우/서원(%) (서원사액율, 사우사액율)	
중종 이전 (1392-1505)	서원	1	500.0	1	(사우사액율 8.3)	
	사우	5				
중종 (1506-1544)	서원	4	300.0	1	(사우사액율 22.2)	
	사우	12				
명종 (1545-1587)	서원	18	56	4	(서원사액율 25.4, 사우사액율 18.2)	임진왜란
	사우	1				
선조 (1587-1608)	서원	63	34.9	16	25.0 (서원사액율 25.4, 사우사액율 18.2)	임진왜란
	사우	22				
중종 (1608-1623)	서원	29	31.0	12	16.7 (서원사액율 41.4, 사우사액율 22.2)	이괄난, 정묘·병자호란
	사우	9				
인조 (1623-1649)	서원	28	89.4	4	(서원사액율 14.3)	이괄난, 정묘·병자호란
	사우	25				
효종 (1649-1688)	서원	27	37.0	7	57.1 (서원사액율 35.9, 사우사액율 40.0)	
	사우	10				

1) 정반조, 1990, 「서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및 설석규, 1992, 「숙종조 원우동향과 불당미 사회적 기반」(『국사관논총 34』)을 참고로 하였음. 구체적인 수자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대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현종 (1659-1674)	서원	45		31	35.5 (서원사액율 67.4, 사우사액율 47.8)	
숙종 (1674-1720)	서원	166		105	25.7 (서원사액율 63.3, 사우사액율 15.5)	
정종 (1720-1774)	서원	8		9	22.2 (서원사액율 112.5, 사우사액율 10.0)	
영조 (1724-1776)	서원	18		7	114.3 (서원사액율 38.9, 사우사액율 5.5)	
정조 (1776-1800)	서원	2		3	300.0 (서원사액율 150.0, 사우사액율 150.0)	
순조 (1800-1834)	서원	1		1	(서원사액율 100.0, 사우사액율)	
현종 (1834-1848)	서원			1	(서원사액율, 사우사액율 100.0)	
청종 (1849-1863)	서원			1	100.0 (서원사액율, 사우사액율 100.0)	
미상	서원	7				
	사우	43				
계	서원	417		200	35.0 (서원사액율 47.9, 사우사액율 14.2)	
	사우	492	117.9	70		

위의 도표를 통해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서원보다는 사우가 더 많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원과 사우의 수는 417:492로서 그 대비율은 117.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문화현상의 하나로서 사우를 통한 인물승배를 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서원이 인물승배 의례장소와 함께 선비와 유생의 장수처로서의 교육기관임을 고려했을 때, 인물승배는 조선시대 문화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서원과 사우 건립의 지역과 파악, 그리고 그에 배향되는 인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서원과 사우의 건립동향은 중종년간, 즉 16세기 중반까지는 적은 수자나마 사우의 건립이 서원의 건립보다 앞서고 있으나 숙종년간, 즉 17세기 중반부터는 서원의 건립이 사우의 건립보다 단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은 경조년간, 즉 18세기 중반을 고비로 하여 비미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우'의 건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조선시대는 크게 나누어 사우시대(14세기~16세기 중반)-서원시대(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사우시

대(17세기 중반~18세기 말)-원우·좌퇴기(19세기 초~19세기 중반)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조선시대의 인물승배는 18세기 말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세기 들어서면서는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인물승배 문화가 18세기를 마지막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우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18세기 말까지 근 400년간 지속되는데 비해서,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는 서원건립이 활발한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까지, 겨우 150년에 걸친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문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우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그러나 사액율은 서원이 사우보다 거의 3배(200:7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로 보아 서원 사액율이 47.9%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사우의 사액율이 14.2%에 이르고 있는 데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또한 시기별로 보았을 때에도 사우가 서원보다 훨씬 많이 건립되고 있던 시기인 숙종때(1674~1720)의 대비율인 104.9% 가운데에서도 겨우 25.7%, 그리고 경종때(1720~1724)의 250% 가운데에서도 22.2%, 영조때(1724~1776)의 805.6% 가운데에서도 114.3%의 사액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원 사액은 교육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 것일 뿐 아니라, 서원에 소속된 토지와 원속은 면세·면역되고, 계수가 관급되는 경제적 이점이 있었으며,<sup>2)</sup> 이 점은 사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문화정책은 사우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원의 사액을 통한 교육기관의 육성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sup>3)</sup> 그것은 또한 사우의 건립이 조선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에, 서원은 짧은 기간안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광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원의 건립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것으로, 사우의 건립과는 분리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대적으로 보아 사우의 사액율(40.0%)이 서원의 그것(25.9%)보다 높은 시기는 17세기 중반인 효종때로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비

2) 이수환, 1990, 「서원건립운동」, 『한국사 28』, 국민, 296쪽.

3) 서원설립의 일차적 목적은 존현보다는 강학에 있었다(정만조, 1995, 「서원건립활동」, 『한국사 28』, 국민, 296쪽.)

율(150.0 : 150.0)을 보이고 있는 시기는 18세기 후반인 정조때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는 선조때(1567~1608)의 25.4% : 18.2%, 광해군때(1608~1623)의 41.4% : 22.2%, 현종때(1669~1674)의 67.4% : 4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액율을 통해서 보았을 때, 대체로 앞에서 언급한 시기구분과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7세기 후반인 현종때까지는 대체로 서원의 건립이 활발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우의 사액율이 높은 반면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까지 사우가 활발히 건립되는 시기에는 서원의 사액율이 꾸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의 시기, 즉 서원시대로 볼 수 있는 시기는 한편으로 사우사액시기(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로, 그리고 사우시대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오히려 서원사액시기(17세기 후반~18세기 말)로 특징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후반 현종때까지 서원이 더욱 많이 건립되는 시기에 사우 사액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당대에 겪은 국난, 즉 임진왜란이나 이완의 난,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국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가 국가 정책적으로 서원의 설립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의 사액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국난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로 보여진다. 즉 국난으로부터 해이해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심수습·국난극복에 기여한 인물과 후손에 대한 사회적 포상·이를 통한 지배체제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사우의 건립과 사액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남한산성 현철사의 건립배경 또한 바로 이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반면에 사우가 서원의 건립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대이면서도 그 사액율이 오히려 서원에 비해 적은 18세기 말까지는 국난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나 대처방안으로서 사우의 건립이 어느 정도 끌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난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요청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필요성이 바로 서원의 사액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던 것이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서원 건립은 또한 국난 후의 민심수습을 위한 정책적 측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앞의 시기에서 사우건립을 통한 국난극복에 공헌한 인물에 대한 숭배를 서원으로 수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비로소 이 시기에 들어서 국난 극복에 공헌한 인물숭배의 필요성과 국난 후의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서원건립을 통해서 결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사우나 서원에 배향되는 형식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음직임의 결과가 바로 19세기에 들어 서원과 사우의 건립이 쇠퇴기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건립과정

앞에서 제시한 대로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에 따라 현절사의 건립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원시대 및 사우·사액시대

1637년(인조 15, 정축) 3학사 심양에서 사망

1646년(인조 24, 병술) 10월 13일 치평 이무가 3학사에게 시호의 수증과 문려에 청표하고, 향사에 배향할 것을 상소함<sup>4)</sup>

1653년(효종 4, 계사) 3월 3일 시독관 김시진이 3학사의 관직 추증

4) <<인조실록 24년 10월 13일>> : 치평 이무(李懋)가 병으로 사망하며 오지 않고 상소하여 시폐(時弊)를 진달하였다. “화란(鶴淵)의 혹독함이 지난 날과 같은 적이 있는데 당초 절의(節義)의 신하인 흥익한(興翼漢)·옹정(尹正)·오달계(吳達齊)·정온(鄭蘊) 등은 분발하여 자신을 들보지 않고 외리로 순국하였으나, 이들이야말로 이른바 평시에는 과감히 말하고 난리에는 절개를 지킨 사람입니다. 마땅히 3학사가 하룻밤에 멀뚱하였으니, 구군(舊君)에게도 복(服)을 입고 인정과 회식을 반드시 저극하 해야 하며 한번 거예(舉哀)하는 것은 그만두지 못할 바인데도 그 당시 예(禮)를 담당한 관원이 겁을 내어 겨룰이 없었으니, 이 네 선하가 아니었으면 우리 조선이 문자(文子)의 나라임을 천하 후세에 어찌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조종조에서 아름답게 양성하신 남은 문재이며 또한 전화께서 반정(反正)하신 대의입니다. 바라건대 전화께서 여러 충신을 생각하여 백세(百世)에 표준을 세우시어 박술과 시호를 추증하고 문려(門閥)에 징표(旌表)하며 자손을 녹용(錄用)하고 학사(鄉社)에서 제사지내도록 한다면 충훈과 원백(原魄)이 구원(九原) 아래에서 감읍할 것입니다.”

을 주장함<sup>5)</sup>

1661년(현종 2, 신축) 평택에 3학사의 사당을 건립함<sup>6)</sup>

1668년(현종 9, 무신) 7월 27일 풍기군수 어상준이 3학사의 사당을 세울 것을 상소함<sup>7)</sup>

1669년(현종 10, 기유) 1월 21일 관부사 송시열이 3학사의 절의에 대한 포증을 할 것을 건의함<sup>8)</sup>

5) <효종실록 4년 3월 3일>: 상이 주강(畫講)에 나아가 <서전> 군식(君食)관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나서 서독관 김시진(金時珍)이 아뢰기를, “왕년에 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홍익한(洪翼漢) 등이 오랑캐에게 잡혀가 죽었습니다. 선조(先朝) 때 그들의 집에 능묘(D廟)를 지급하게 했습니다만, 관직을 추증하게 하는 문전(恩典)이 아직 없으니, 이는 충신을 기리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니, 상이 유사로 하여금 관직을 추증하도록 하였다.

6) 「동국원우록」 63쪽, 「조두록」에 의하면, 홍익한의 허장묘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7) <현종 9년 7월 27일>: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때 풍기 군수(豊基郡守) 어상준(魚尚樞)이 상소하였습니다. 상이 그 상소를 대신들에게 내어 보았더니... 대화가 이어서 상준의 상소를 끄서 읽었다. 대화를 주장하였던 세 신하의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한 구절에 이르러 상이 묻기를,

“세 신하란 누구인가?” 하니, 대화가 아뢰기를, “홍익한(洪翼漢), 오달제(吳達濟), 윤집(尹集)입니다.” 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이 세 신하는 병자년에 정도를 지키며 대화를 주장하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죽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끝내 일의 명백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죽였다고 했다면서 무엇을 모른단 말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죽였다고 하기도 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하기도 했는데, 끝내 거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대화가 아뢰기를, “그 당시에 화친을 반대했던 사람이 이 세 사람만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뜻을 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결국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고, 허적이 아뢰기를, “그 당시에 나라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한갓 애단스럽게 다루어 과격한 일만을 험썼습니다. 그 가운데 비록 절의를 지킨 사람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은 분위기에 휩쓸린 명분론이었습니다.” 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 “세 신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의를 지켜 죽여도 혼들리지 않았으니, 훌륭합니다. 그러나 충직하는 일은 편찮겠습니다만, 사당을 세우는 것은 소문만 나지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문만 나지 않는다면 사당을 세우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 “이미 즐직을 하였더라도 품질을 하나 올려주는 것이 어찌 안 되겠습니까.” 하였다.

8) <현종개수실록 10년 1월 21일>: 조참(朝參)를 행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나라가 숭상하고 장려해야 할 것은 오직 도학과 절의입니다. 송나라가

## 2) 사후시대 및 서원 사백시대

1681년(숙종 7, 선유) 1월 30일 시강관 조지경이 삼학사의 유족들을 보살필 것을 건의하고, 승지 이사명이 남한산성에 사당('삼신사')을 세울 것을 건의함<sup>9)</sup>

1681년(숙종 7, 선유) 5월 초5일 경기감사의 장계에 의해 '삼신사'의

망하려 할 때 품파가 일고 있는 가운데에도 바다의 배에서 오히려 학문을 익혔던 것은 도덕을 잘려한 효험이었으며, 한나라가 망하려 할 때 조조(曹操)가 정권을 수십 년이나 끌았으면서도 친밀할 수 없었던 것은 절의를 술상한 효험이었습니다. 흥익한(洪翼漢)·오달제(吳達濟)·윤길(尹集) 등 세 사람의 절의는 숭상할 만한데 유독 포증(寶贈)을 받지 못했으니, 진실로 흥전입니다.” 하니, 삶이 이르기를, “몇 년 전에 모두 죽음을 했고, 절표는 먼거름졌기에 하지 못했다.” 하였다.

9) <숙종실록 7년 1월 30일> : 강서(講書)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조지경(趙持謙)이 말하기를, “일찍이 병자년의 반란(變亂) 때 세 사람들이 우리의 당초회화(斥和)를 주장한 신하(臣下)들을 찾으므로, 조정(朝廷)에서 부들이 오달제(吳達濟)·윤길(尹集)·흥익한(洪翼漢) 등 세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 사조(辭曹)하던 날에 인조(仁祖)께서는 그들이 가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숨을 내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유시(諭示)하시기를, ‘그대들의 부모(父母)와 처가(妻子)는 내가 마땅히 푸휼(撫恤)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 조정(朝廷)에서 그 자손에게 모두 벼슬을 주었으나, 세 집안의 자제(子弟)들이 모두 유타(夭死)하고 차차 물약하였습니다. 빈궁(貧窮)하여 피막할 데가 없으니, 즐시가 없고 불쌍합니다. 지금 현존(現存)하는 자가 얼마쯤인지 알지 못하나, 혜조(該曹)로 하여금 방문(訪聞)하여 아울러 수록(收錄)하게 하소서. 만약 어려서 비슬살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또한 절동주(節東主) 자손(子孫)의 예에 의거하여 똑같이 양육한다면 진실로 성조(聖朝)에서 절의(節義)를 존중(尊崇)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달제(吳達濟) 등 3인의 위급한 배를 당하여 피리를 지켜 순절(殉節)하면서 사지(死地)에 나아가기를 낙토(墳土)에 나아가는 것같이 하고, 마침내 이역(異域)에서 운명(命運)하는 데 이르렀으나, 또 어느 땅에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니, 더욱 불쌍하고도 가엾다. 혜조(該曹)에 말하여 그 자손을 수록(收錄)하도록 하고, 식물(食物)도 계급(題給)하도록 하마.” 하였다. 승지(承旨) 이사명(李師命)이 이로 인해서 특별히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아울러 제향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處理)하도록 하였다. 대신(大臣)들이 모두 옮겨 여기니, 마침내 사우(祠宇)를 세우고, 이름을 현절(顯節)이라 하였다. 그리고 후에 김삼현(金三憲)과 정온(鄭溫)을 함께 배향(配享)하였다.

“서원등록”의 2월 초4일조에 의하면, 활관관 이사명과 조지경이 사우를 건립하기를 제청하고 있으며, 9일조에 의하면, ‘삼신사우’의 영건과 위관조성은 경기도에서 달고 액호와 교서는 예문관에서 찬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진을 농사가 끝난 뒤에 사역하기로 함<sup>10)</sup>

1682년(숙종 8, 임술) 9월 초5일 경기감사 장계에 의하여 물자의 조달과 추위를 이유로 다음해 봄을 기다려 사우를 짓기로 연기함<sup>11)</sup>

1683년(숙종 9, 계해) 4월 23일 예조판서 남이성과 영상 김수항이 3학사에 경문할 것을 건의함<sup>12)</sup>

1686년(숙종 12, 병인) 6월 13일 남구만이 3학사에 증직을 건의함<sup>13)</sup>

1686년(숙종 12, 병인) 12월 21일 3학사에 시호를 내림<sup>14)</sup>

1688년(숙종 14, 무진) 2월 29일 남구만이 3학사의 사당 건립을 제론함<sup>15)</sup>

10) 「서원등록」 상(영인본, 민성문화사), 307쪽

11) 「서원등록」 상, 361쪽

12) <숙종실록 9년 4월 3일> : 예조 판서(禮曹判書) 남이성(南二星)이 말하기를, “지난날 조지겸(趙持謙)의 계달(賈通)에 따라 병자 호란(丙子胡亂) 때에 사절(死節)한 신학 흥익한(洪翼漢)의 처자(妻子)와 자부(子婦)의 순절한 실적을 해조로 하여금 방문(訪問)하게 하셨습니다. 강도(江都)가 함몰될 때에 흥익한의 후처인 허씨(許氏)는 적을 만나 조금도 굽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처의 아들 흥수원(興秀元)은 팔을 벌려 허씨를 가리다가 칼에 찔려서 죽고, 허씨는 마침내 물에 뛰어 들어 죽었으며, 흥수원의 처 이씨(李氏)도 스스로 허를 깨물고 죽었습니다. 이 일은 충시열(宋時烈)이 지은 흥익한의 묘문(墓文)에 상세히 적혀 있으나, 그 말이 어찌 믿을 만하고 근거가 있는 것인 아니겠습니까?” 하고, 영상(靈相)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흥익한은 몸소 대의(大義)를 부지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충효(忠孝)와 퇴열(退列)이 모두 한길에 도였으니, 특별히 숭상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아울러 세 사람을 겸문(旌門)하도록 명하였다.

13) <숙종실록 12년 6월 13일> : 남구만이 흥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계(吳達濟)가 저 <청나라>에서 죽어 천하 후세에 할 말을 남겼으므로, 증직(贈職)하여 시호를 내리고 자손을 거두어 쓸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은허하고, 또 해조(駁曹)에 명하여 오달계의 천자(姫子)에게 능묘(Il料)를 주도록 하였다.

14) <숙종실록 12년 12월 21일> : 금주군(鎭州君) 박정(朴正)에게 충숙(忠肅), 해승위(海勝尉) 윤신자(尹新之)에게 문록(文祿), 좌피정 성세창(成世昌)에게 문장(文莊), 관중후부사(判中樞府事) 박순(朴淳)에게 충민(忠愍), 충(忠) 이조 판서(吏曹判書) 흥익한(洪翼漢)에게 충정(忠正), 윤집(尹集)에게 충정(忠貞), 오달계(吳達濟)에게 충렬(忠烈), 우창관(右昌管) 이동량(李夢亮)에게 정현(定顯) 좌왕관(左榮觀) 박동선(朴東善)에게 정현(貞憲), 중(贈) 좌찬성(左贊成) 정발(鄭弼)에게는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15) <숙종실록 14년 2월 29일> : 임금이 경안(慶安)에 주경(暫停)하고, 저녁에 산성(山城)에 이르러 보련(步鑑)을 타고 서장대(西莊臺)에 올랐는데, 승지(承旨)-사관(史官)-육당(玉堂)의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만 따르게 하였다.... 김수홍(金壽衡)이 아뢰기를, “신성립(申誠立)과 지여해(池汝海)가 전사(戰死)

1688년(숙종 14, 무진) 5월 12일 광주유수 이세백이 '삼신사'를 건립하고 위판을 조안할 것을 장계함<sup>16)</sup>

1691년(숙종 17년, 신미) 영천(영주)에 3학사의 '장암서원' 건립

1693년(숙종 19, 계유) 남한산성의 삼신사를 '현질사'로 사액함

1699년(숙종 25년, 기묘) 김상현과 정온을 현질사에 추향함<sup>17)</sup>

1703년(숙종 29, 계미) 10월 5일 평택의 사우를 '褒義祠'로 사액함<sup>18)</sup>

1705년(숙종 31, 을유) 1월 11일 유학 길경조가 3학사에게 증직·사계·겸려하기를 건의함<sup>19)</sup>

1707년(숙종 33, 정해) 평양에 '서산서원'<sup>20)</sup>을 건립하고 홍익한을 배향<sup>21)</sup>

한 참상(擅狀)과 서흔남(徐欽南)이 나라를 위한 정성에는 마땅히 권장(勸獎)하고 포상(賞賞)하는 도리(道理)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자손을 수용(收用)하라고 명하였다.

남구만(南九萬)이 또 아끼기를, “삼학사(三學士)인 홍익한(洪翼漢) 등이 사당(祠堂)을 건립(建立)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뒤에 흥년 때문에 아직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속히 사당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16) 「서원동록 상」 449쪽

17) 홍석모 「충정 남한지」

18) <숙종실록 29년 10월 5일> : 선 정신(先正臣) 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을 모신 불산 서원(鷲山書院)을 문경(文井)으로, 성삼문(成三門) 등 6신(臣)을 모신 영월 사우(寧越祠宇)를 창질(彰蹟)로, 처사(處士) 김시습(金時習)의 충선 사우(忠宣祠宇)를 청일(淸逸)로, 홍익한(洪翼漢) 등 3신(三臣)의 평택 사우(平澤祠宇)를 포의(褒義)로 사액(賜額)하였는데, 여러 유생(儒生)들의 소청(疏請)에 따른 것이다.

19) <숙종실록 31년 1월 11일> : 금산(鏡山)의 유학(幼學) 길경조(吉景祖)가 상소하여 교우(廟宇)를 세워 신종(神宗)을 제사지내기를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고(故) 절사(節士)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계(吳達濟)의 존양(尊攘)한 대의(大義)는 천지(天地)가 다하고 고금(古今)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故) 선(臣) 남별(南撥)이 소설(小說)에서 중국의 황제가 세 신하가 화친(和親)을 베풀한 사실을 듣고는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친히 제사지냈다고 하였는데, 본조(本朝)에서는 아직도 치제(致祭)하는 전례(典禮)를 걸하고 있으니, 높이고 권장하는 도리가 아마도 미친한 듯합니다. 청진대 중신(重臣)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고 의정(議政)으로 증직(贈職)을 가하며 그 문례(問禮)에 정표(旌表)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상소 내용을 보고 내가 매우 칭찬하고 감탄하였다. 웃침목의 일은 이미 충분히 강구하여 시행하였고, 아래 항목의 일은 예조(禮曹)로 하여금 풍자(風旨)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증직(贈職)을 가하고 사례(擧祭)하며 또 정례(旌例)하는 전례를 시행하도록 청하니, 모두 은의하였다.

20) 「동국원우록」에 충정서원으로 되어 있음

1711년(숙종 37, 신묘) 현철사를 현재의 자리에 이전하고, 김상현과 정온을 추향<sup>22)</sup>

1711년(숙종 37, 신묘) 고령에 '운천서원'을 건립하고 흥익한 득향 함<sup>23)</sup>

1717년(숙종 43, 정유) 충청도 유생 이덕함의 상소에 의하여 3학사의 사우건립을 건의함<sup>24)</sup>

1717년(숙종 43, 정유) 홍산에 '창렬서원'을 건립함<sup>25)</sup>

1721년(경종 1, 신축) 홍산의 창렬서원에 사액함<sup>26)</sup>

1787년(정조 11, 정미) 홍익한을 강화 '충렬사'에 배향<sup>27)</sup>

21) 「천고대방」 388쪽

22) 이반운 「조두록」

23) 「천고대방」 376쪽

24) <숙종실록 43년 3월 14일> : 충청도의 유생(儒生) 이덕함(李德涵)이 상소하여 충정공(忠貞公) 유품(尹集)을 위해 시우(祠宇)를 세우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운길과 흥익한(洪翼漢)의 무덤이 다 도내에 있으니, 사제(墓祭)를 떻하여 절의를 승상하고 어진의를 승상하는 데는 납희소서." 하니, 일금이 우악한 비단을 내려 사우를 세우는 것을 용허하고, 인하여 두 신하의 부답을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다.

이 상소의 결과는 「천고대방」에 의하면, 홍산의 '창렬서원'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서원은 1717년(숙종 43, 정유)에 건립되었다가 1721년(경종 1, 신축)에 사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5) 주 24) 참조

26) 주 24)참조

27) 강화의 충렬사는 1642년(인조 20, 임오)에 건립하여, 1668년(효종 9, 무술)에 사액되었다.

<정조 20년 8월 9일> : 충정공(忠貞公) 윤품(尹集)을 강화도 충렬사(忠烈祠)에 아울러 배향하고, 고 통정(通政) 윤형갑(尹衡甲)에게 무조(不祀)의 은전을 배불도록 명하였다.

우의경 윤시봉이 마파기풀, "충간공(忠簡公) 윤품(尹集)를 처음 이 사당에 배향한 것은 창건한 초기였는데 중간에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미년에 고 재상 김치민(金致仁)이 진의하여 윤품과 충정공 흥익한(洪翼漢)이 평소 이 거리에 살았었다는 이유로 아울러 배향하기를 청한 것으로 인하여 윤처를 받았습니다. 충정공 윤품은 윤품의 동생이고 또 이 지역에 함께 살았었습니다. 게다가 유허(遺墟)에 세워진 배석까지 있으니, 지금 배향하는 곳에 훌륭한 형제를 한 사람은 배향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은은 아파도 잘못된 전례가 될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충정공 윤품에 대해서도 아울러 충렬사에 배향하도록 명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또 전교하기를, "문열(文烈)·충간·충경에 대해서 모두 특별 전교로 인하여 무조의 은전을 내렸는데, 충간·충경이 아들이고 문열이 아비가 되어 계속된

1796년(정조 20, 병진) 3월 28일 김열 오태중이 3학사를 '황단'에 배향할 것을 건의함<sup>28)</sup>

1796년(정조 20, 병진) 8월 9일 우의정 윤시동의 건의에 의하여 윤집을 강화 '충렬사'에 배향<sup>29)</sup>

그 밖에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1534년(중종 29, 갑오)에 건립된 부안의 '도통서원'에 홍익한이 배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0)</sup> 이와 같은 건립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조선시대의 원우건립의 동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현절사 건립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건립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에 절의를 분변하고 무자년에 의리에 나아갔으니, 진실로 이른바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 할 수 있겠다. 고 통정 윤형갑도 이와 같으니, 한결같이 세친(避親)하지 않는 은전을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20년 10월 14일>: 충렬공(忠烈公) 황일호(黃一皓)와 충정공(忠貞公) 윤집(尹集)에게 제사를 지내주었다. 이때 일호와 윤집을 강화도 충렬사(忠烈祠)에 추후로 배향하면서 함께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사를 지내주라고 명하였다.

28) <정조실록 20년 3월 28일>: 고 충신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계(吳道濟)에게 사제(驟祭)하고, 조금 뒤에 김열 오태중(吳泰中)에게 유시하기를, “선조 별자년에 옥당 홍익삼(洪益三)이 차자를 올린 때 대하여 비답을 내려 예문관에 붙해 두었다는데, 그 차자는 과연 무슨 일을 논한 것인가?” 하니, 태종이 아뢰기를, “바로 삼학사(三學士)를 황단(皇壇)에 배향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한림에게 베껴오도록 명하였다. 인하여 전교하기를, “별자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삼학사의 집에 사제하고, 마침 이날 또 이 상소를 열람하니,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하다.” 하였다.

29) 주 22 참조

30) 「전고대방」 363쪽

## 「남한산성 현절사의 건립배경」에 대한 논평

정반조(국민대학교)

장칠수 교수의 「남한산성 현절사의 건립배경」이란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첫째는 조선시대 서원·사우의 건립동향을 다루었고 두번째는 현절사의 건립과정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토론도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院宇 건립의 동향부분은 현절사가 흥익한, 윤집, 오달재의 삼학사를 세향하는 사우인 만큼 그 사우의 의미와 기능을 먼저 밝히고 비슷한 형태인 서원과 함께 건립되는 일반적인 추세를 살펴 현절사가 국가의 어찌한 對書院·祠宇政黨 속에서 건립되게 되었는가를 고찰한 것입니다. 여기서 장교수는 서원과 사우를 주자이념의 생활화를 위한 공적차원으로서의 家體에 의한 사당건립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나오게 된 새로운 제도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승배되던 조상이 공적 및 지역적 차원의 선현으로 승배되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나 서원과 사우는 성격상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우는 인물승배만이나 서원은 이에 대하여 藏修라는 교육적 기능까지 갖는다고 하여 서원·사우의 본래 기능을 엄격히 구별했으며, 여기에 근거해 조선시대 서원·사우의 건립추세를 통계를 통해 분석, 14세기~15세기 중반의 사우시대, 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의 서원시대, 17세기 중반~18세기 말의 사우시대, 19세기 이후의 원우 쇠퇴기로 구분하고는 인물승배가 주자학을 생활화 하려는 조선시대 문화의 큰 특징이며 따라서 조선의 문화정책은 사우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원의 사액을 통한 교육기관의 육성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으면서 17세기 말에 세워진 현절사의 건립배경도 國廟으로 해이해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지배체제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국난에 순절한 인물을 포상하고 승배하며 그 후손을 錄用하려 한 정책의 산물이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장교수의 서원·사우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종전의 역사학적 해석이나 시각과는 달리 유교의례내지 민속학적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천민일률적이던 조선시대 서원·사우의 현실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 조선시대 문화현상의 특징설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준 좋은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장교수의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서원·사우의 숫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과학과 거기에 토대한 서원·사우의 시대구분에 대한 역사적 자료로써의 설명이 보완되고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인물 송배문화가 최뢰하고 있다는 19세기 이후,(장교수의 통계는 참혀있지 않습니다만) 후손에 의해 건립 운영되는 門中서원 내지 문중사우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서원·사우가 남설되고 숫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17세기 후반 이후 국가의 서원에 대한 통제령 때문에 서원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고 사우란 명칭의 건립이 시행하였던 역사적인 사실은 또 어떠하며, 그러면서도 사우의 명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서원이 갖는 존귀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만 나면 서원으로의 승격을 도모하게 되어 서원이 더 이상 유생 장수와 강학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우와 마찬가지의 인물제향처로 바뀌고 말았다는 당시 식자충의 비판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 다시말해 서원·사우의 명칭의 통계분석에 기초하여 시도된 장교수의 시대구분은 역사적 사실로서 충분되고 보완되어야만 보다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상 장교수의 임무라기보다는 역사학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철사의 건립과정을 살펴보면 장 교수는 실록과 姊豆錄, 東國院宇錄, 書院廳錄 등에서 자료를 뽑아 제시하면서 국난극복과 민심수습에 기여한 인물 및 그 후손에 대한 사회적 포상을 이를 통한 지배체계의 안정성 확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교수가 제시한 자료를 따라 역사적 측면에서 현철사가 남한산성 아래에 세워지게 된 배경을 좀 더 추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철사의 건립은 숙종 7년(1681년) 정월 경연의 삼학사 충절에 대한 포상과 그 후손의 녹용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승지 李師命이 남한산성에 사우건립을 건의하면서 비롯되었으며 바로 대신들의 故議를 거쳐 확정을 보았고, 이후 흉년이 겹치고 物力준비에 시일이 소요되

어 속종 14년(1688)에야 광주 유수 李元素의 주관으로 三臣祠로서 준공을 보고 속종 19년 현절사로 사액하게 된 것인데 속종 37년 현재의 자리로 옮기면서 김상현, 鄭蘿을 함께 제향하였습니다. 현절사의 이러한 건립과정을 볼 때 삼학사의 순국(인조 15년 1637년)으로부터 부터 51년이 지나서야 현절사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자학이 이념의 생활화를 위해 공적, 사적으로 사우와 서원의 건립 운영을 장려하고 추진하던 당시의 정책으로 본다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잘 알려져 있듯이 삼학사의 충절과 韓明事大를 위한 자기희생은 韓明義理를 앞세워 북벌을 주장하던 당시로 보아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로부터 포상되어야 하고 현양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필시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며 저로서는 바로 이것을 밝히는 것이 장교수가 앞서 지적한 민심을 추스리고 자비체제를 안정시킨다는 점과 함께 현절사 건립의 직접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현절사 건립이 이렇게 늦게 속종 7년에 들어와서야 확정을 보게 된 것은 대개 3가지 이유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①은 의리 명분을 앞세우는 山林세력의 정국주도, ②는 ①과 관련해서 삼학사의 평가문제, ③은 清의 감시로 인한 외교적 마찰 우려가 그것입니다. ①의 山林세력의 정국주도란 정치의 방향과 정국운영의 방안을 놓고 정치집단간의 논쟁 및 권력주도권의 핵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개 아시다시피 조선의 정치는 서인과 남인사이의 봉당적 구도(당쟁)에 의해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봉당내에서도 도동설을 앞세우고 주자명분론에 입각해 의리를 우선하며 爲主보다 道學의 기준에 사회운영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는 理想論과 尊王的 정치논리 위에서 현실적인 實利위주의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現實論이 있었습니다. 인조위주 집권 세력인 서인내부에 송시열을 앞세우는 山蘿과 金堉를 우두머리로 했던 滷蘿이 존재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종 이후 3사 언관권을 근거로 한 전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의 실권은 尊王便에 선 후자에 있었으며 여기에는 남인으로서 서인정권에 참여했던 許積계열이나 同福吳氏 세력이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삼학사에 대한 추증 논의가 전자측에 의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현종 9년 7월 갑자에 풍기군수 魚尚儔의 '三學士 立祠요구'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 50) 제2회 국제학술회의

에서 영의정 鄭泰和가 적화한 사람들이 삼학사 뿐만 아니라 세사람이  
끝까지 自當하려고 해서 화를 입었다고 하고, 좌의정 허적은 더나아  
가 삼학사가 국가의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과격한 주장을 했다고 비  
난하여서 결국 蹤職하는데 그치고 만 것에서 보듯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함에 미쳐 비로소 주자적 명분론이 정치의 현실에 반영되면서 국  
가에 의한 삼학사의 立祠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②삼학사에 대한 평가 문제입니다만, 위의 현종 9  
년의 허적, 정태화에 의해서 보듯이 삼학사의 立祠논의에 대해서는  
이를 충절로 보는 견해와 헛된 명분으로 국가의 화란을 초래했다고  
보는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대개 韓道의인 山黨계통은 전자쪽을,  
韓王의인 한당계통은 후자쪽의 견해를 취하였는데, 현종 12년 송시열  
이 '三學士傳'을 지어 韓周大義의 논리에서 삼학사를 합리화함에 따  
라 충절로 보는 인식이 우세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천하의리의 주역으로 자리하던 송시열의 '三學士傳'이 현종  
말에 편찬되고 그에따라 당시의 지식인들이 이 견해에 공명하게 되었  
다는 것은 삼학사에 대한 포상의 총체적 결론으로서 국가에 의한 사  
우건립이 숙종초에 이루어지게된 논리적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③의 청의 감시로 인한 외교상의 마찰문제 역시 현종때까지는  
삼학사 사유에 대한 국가의 건립을 가로막는 요인이었습니다. 위에  
서 본 현종 9년의 사우건립 논의 당시 이조참판 閔鼎重이 불필요한  
소문만 날 것을 우려해 사우건립은 그만두고 중직할 것만 요청한 것  
이 이를 말합니다. 바로 같은 자리에서 北兵營의 축성문제가 제기되  
었을 때 청의 공간과 監間을 우려해 이를 취소케 한 것이 또한 그러  
한 사정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숙종초에 들어오면서 중국내의 저항  
운동이 모두 진압되고 청이 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게되자 조선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완되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排明斥和의 상  
징인 삼학사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사우건립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에서 장교수의 발표논문에 대한 제나름대로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장교수의 주장에 약간의 보완을 한 데 불과  
하다고 하겠습니다.

##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발표 : 張玉興(중국 심양 요녕사회과학원)

논평 : 조병로(경기대학교)

#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張玉興(중국 심양 요녕사회과학원)

- I. 머리말
- II. 삼학사와 명말 구의사의 활동
- III. 삼학사와 구의사의 반청사상
- IV. 삼학사와 구의사에 대한 평가

## I. 머리말

17세기 3·40년대, 중국 역사 중 명청이 바뀔 즈음 복잡한 모순이 교차되는 국내외 상황하에서 조선 3학사와 명의 9의사는 두 개의 충의 인물의 집단이 시간을 선후로하여 나타났다. 그들은 비록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했고, 그 행적 역시 각기 다르나 그들이 지향하는 사상과 기개는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렬한 반청사상은 서로 매우 비슷하였다. 그들이 반청투쟁 중에서 표현한 견강불굴과 대의결연은 한국의 드높은 민족정기를 홍양하는 승가를 작곡하여, 지금까지 외연하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들의 反清思想의 의의와 내적 의미가 매우 풍부하여 그 중 많은 것은 후세를 이 배울만하며, 아울러 교육적인 계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II. 삼학사와 명말 구의사의 활동

조선의 3학사와 명의 9의사는 모두가 국가와 민족이 위급할 때 출현한 영웅이며 모두 청이 흥기하여 강권정치로 민족탄압 정책을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던 전형이다.

창조의 조상은 본래 명대 遼東都司 치하에 있던 이진족이었다. 그 수령은 대대로 명의 봉을 받은 명의 직관이다. 16세기 말엽부터 17세

기 초업에 이르러 이 민족의 건주부는 그 수령 明建州衛都督僉事, 閻虎將軍이던 누루하치의 영도하에서 별안간 일이나 연이어 제부를 겸 병하고 마침내는 여진을 통일하여 세력이 매우 강대해졌다. 누루하치는 명 畏歷 44년(1616)에 마침내 殊塗을 건국하고, 汗이라 칭하고, 명을 배반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명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여 遼沈으로 진격하여 짐령하였다. 그의 아들 황태극이 즉위하자 반명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그는 스스로 여리차례 군대를 인솔하며 장성을 공격하고 내지에 들어가 대대적 노략질과 약탈을 감행하였고, 아울러 두 번이나 조선을 쳐서, 종래부터 내려오던 명과의 깊은 친선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들과 우호관계를 맺게하여 더불어 조선에 막대한 재난을 안겨주었다.

청의 조선에 대한 침략은 天啓 7년(정묘년, 後金 天聰 원년, 조선 인조 5년, 1627)인데 청은 평양을 점령하고 왕경(서울)을 위협하고, 강화도(강도)를 쳐, 조선을 위협한 뒤 “江島之義”를 제결케하여 서로 간에 소위 형제관계를 맺었다. 이와 동시에 청군은 조선에서 약탈을 감행하였으며, 철군 때는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돌아갔다. 조선은 이를 “정묘호란”이라 했다.

9년 후 즉 명 崇禎 9년(병자년, 후금 천종 10년, 조선 인조 14년, 1636) 4월 황태극은 汗이라는 왕호를 帽로 개칭하고 황제라 자칭하며, 국호를 후금에서 大清國으로 바꾸었고 연호를 崇德이라 하였다. 청은 이를 사전에 조선에 통보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이를 인정하고 동시에 諸臣케하여 명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도록 강요했다. 마침내 그 해 2월에 戶部承政 英俄爾岱 등이 인솔하는 蒙古將領도 포함된 총 백여명 규모의 사절단이 조선으로 떠났다. 사절단은 소위 八和頓貝勒, 十七固山大臣 및 蒙古 四十九貝勒이 조선 국왕에게 “속히 친근하게를 보내여 왕위에 오르기를 청하자고” 하였다.<sup>1)</sup> 이 일은 조선의 전국에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후금으로부터 치욕을 당한 조선은 후금의 이러한 행위는 하늘의 뜻을 어기고 염치없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배반행위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후금과 조선은 화약을 체결하여 양국관계를 이미 확립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청

1) <청대종실록> 권 27,

제하니 이는 한편으로는 피자 간의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전에 떨었던 통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배신 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과 명의 사대 관계는 그 연원이 매우 깊은 것이었다. 따라서 후금의 요구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가 없었다. 조선의 대신들은 국왕에게 분분하게 상소하여 후금의 무례함을 저격하여 곱박하고, 강하게 반대할 것을 건의하였다. 사헌부 장령 흥의한의 상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선은 예의로 친하에 이름이 났고, 군신간에 의가 밟고, 명을 존중하고 숭배하여 점성으로 받들었다. 지금 금국은 우리 나라의 지조를 바꾸려고 망상하며, 자기 의지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가하고 있다.

또한 흥의한은 “그들 사자의 목을 차르고 서신을 빼앗아 명제에게 그의 수금과 서신을 보내 그들이 형제지약을 위반함을 책망하고, 천자의 명에 복종해야 하며 예의의 금과 양국의 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국왕은 비록 그가 사자를 처단하라는 건의는 채 납하지 않았지만 그의 성의를 친양하고, 아울러 청의 활호를 용납하는 것과 자신의 철권, 서신 접수 역시 거부하기로 방침을 결하였다.

이에 매우 화가난 황태극은 마침내 “違天敗盟” “敗盟逆盟”이란<sup>3)</sup> 구실로 당년 12월에 십만대군을 동원하여 조선을 칠입했다. 조선 사람들은 이 병화를 “병자호란”이라고 했다. 조선은 비록 용감하게 저항하여 여러번 청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철장 碐古利를 죽였으나, 마침내 오랜 전투경험이 있는 청의 팔기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각지에서 선후로 패배하여 월말에 왕성이 함락되고 국왕은 남한산성에 피난하였다. 이 때 청병은 각처에서 살육과 노략질을 하여 조선은 또 한번 큰 재난을 당하였다. 한편 이 때 남한산성은 벌써 청군에게 물샐 틈없이 포위를 당하여 성안밖의 연락선이 모두 끊기었을 뿐더러 외부에서 균왕지사가 없고 성안에서는 양식과 군수물이 부족하여 이미 고립된 성이 되어, 조석으로 위험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이듬해 정월 19일 전략적으로 중요하던 강화도가 청장 具勤多爾渾에게 함락되어 광비 및 왕자대신들이 모두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남한산성은 더욱 위험해졌다.

황태극은 “맹”을 허락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조선

2) <이조인조대왕실록> 14년 2월 병신.

3) <청태종실록> 권 32.

국왕은 반드시 출성하여 칭신투항의 예을 해야하며, 세자와 왕자 등을 인질로 심양에 보내며 동시에 소위 폐맹의 수로 23명의 척화지신을 보내여 국법을 바로하고, 후인을 경계하고자 하였다.<sup>4)</sup>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선 국왕은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굳내 그들의 요구대로 출성하여 칭신투항하고 인질들을 보내는 굴욕적인 조건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모험적인 출성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소위 “폐맹” 자신 즉 척화를 주장한 자들을 처단한다는 청국의 방침을 들리려고 여러 조건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국가의 운명이 누관지위에 있을 때 흥문관 교리이민 윤집, 수찬 오달제 등은 선두에 나서 청령으로 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나라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조선 조정이 보낼 준비를 한 척화지신은 이름이 컸던 척화지신과 당시 평양에 가 있었던 흥익한 등의 세월 살학사는 전후하여 철의 마수에 끌려 떨어졌다. 살학사는 그후 실양에 잡혀간 후 참혹하게 청인에게 살해 당했다.

정말 구의사는 조선 살학사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얼마 후에 나타났다. 구의사는 명·청전쟁 중 청병이 입관 후 청병에게 짐히 노예로 된 한족 독서인 아홉사람이다. 그들은 중국에 불모로 잡혀있던 조선의 왕자들이 묵고 있던 절자관에 팔려가, 당시 조선 왕자 봉림대군(보림대군은 후에 조선의 왕위계승을 한 효종대왕 李淏을 말함)에서 노예로 복역하였다. 청 順治 1년 (조선 인조왕 12년, 1645) 3월 봉림대군이 인질생활을 끝마치고 귀국이 허용되어 귀국할 때 그들도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 구인은 山東 濟南人 王以文, 順天府 通州人(지금의 북경시 통현) 楊福吉, 山東 臨聘人 邵三仕 및 山東 青州人 王文祥, 山西 大同人 蘿三生, 山東 東昌人 王美承, 山東 琅琊人(지금의 교남현) 鄭先甲, 浙江 杭州人 黃勁, 山西 大同人 梁溪山이다. 그 중 정선갑, 황공은 “進士”이고 그 외 7인은 모두 “秀才”였다. 이들 중 황공 혼자만이 中都留守라는 명나라 시대의 중급 무관에 이르렀고 나머지인들은 모두가 보통 문사 즉 평민백성에 속했다. 비록 그들의 출신 경력은 다르지만 청이

4) <청태종실록> 권 33. <인조대왕실록> 15년 정월 경신: 可先贈送 23臣, 誓與示以警後人。

명을 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모두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으며 그들의 가족 또한 흩어지거나 노예가 되는 등의 고통을 겪은 후, 마지막에는 제각기 다른 길로 조선인질관에 팔려 들어가 종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조선 인질들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병자호란 중에 청이 조선에 알력을 가하여 성하의 조약을 맺고, 불모로 盛京으로 잡혀온 세자 이개와 차자 봉립대군 등이었다. 그들은 불모로서 한없는 농욕을 받아 청에 대한 원한이 깊었는데 특히 봉립대군이 더욱 중요하였다. 그는 심양에 거류할 때나 청이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들어갔을 때 꽂기인 등으로부터 노예를 사면서 문화수양과 반청사상이 있는 자를 선택하였다. 그는 의식적으로 중국에서 뜻이 통하는 사람들을 구했는데 풍상사, 황공 등 아홉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것이었다. 이들은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서로 마음과 추구하는 바가 서로 일치하여 청인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의기투합이 쉽게 이루어졌다. 봉립대군이 귀국을 허락 받았을 때 이 아홉 사람들은 이미 국가는 멀망하고 가족이 흩어진 상황에서 돌아갈 뜻이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청의 통치하에서 다시 노예가 되어 굴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청조 통치를 뒤엎고 명조천하를 회복하여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으는 일 역시 그들에게 있어 맥찬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에 대한 증오심이 깊고 명이 망한 후 반청복명을 자기 임무로 여기는 봉립대군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존경스럽고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그들은 적렬한 사상투쟁을 거치면서 마침내 최대의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스스로 항청복명의 중임을 맡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과 고향을 등지고 굳건히 봉립대군을 따라 조선으로 건너왔다. 봉립대군과 같이 항청복명의 뜻을 행동으로 바꿀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조선에 도착한 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꿋꿋한 의지로 철조를 고수하며 항청대입의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다. 아울러 힘을 다하여 조선왕조를 위해 힘썼다. 비록 형세의 변화에 의해 그들의 의지는 실현기 어려웠고 오랜 뜻을 이루지 못 했지만 그들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르렀다.

이런 관계로 조선 군신과 백성의 존경을 받아 구의사로 불리게 되었다. 삼학사와 구의사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환경하에서 자기의 조

국과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이었다.

### III. 실학사와 구의사의 반청사상

조선 삼학사와 명만 구의사들은 사상적으로 강렬한 반청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해 연구분석을 한다면, 사람들은 유익한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실학사는 청을 반대하여 절대로 굽복하지 않으며, 마침내는 생명마저 바친 것은 숭고한 애국주의와 위대한 혁신정신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침략, 능욕, 노역 심지어 자기의 국가와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강적 앞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까지 부쟁하였다. 그들은 일에 닥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국가, 민족, 타인 이었으므로 사적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가정보다는 국가를,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전형이되었다.

홍익한은 청이 조선에 들어와 힘을 차량하고 다닐 때 선투에 나서면 처음 정의지론을 주장하고 반청사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항청의 큰 것발을 높이 들어, 조선 국내에서 처음 항청을 주장하는 인물로, 소위 “수모척화자”가 되었다. 그는 청조정에서는 더욱 기개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청 황제 황태극을 적선적으로 지적하며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 청이 맹세를 위반하고 청제를 한 비법성을 지적하여, 조선은 예의를 지키는 나라여서 절대로 외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친명하였다. 그는 용감하게 항청을 주장하는 모든 책임을졌다. 그가 그 자리에서 봇을 가져오게 하여 쓴 한편의 글에서 그의 관점을 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의를 굳게 지켜 절대로 굽복하지 않을 것임을 굳건히 표명하였다. “비록 한번 죽을지언정 마음 달게 여겨진다! 한 줄기 피를 내 뺨으면 혼은 하늘로 윤락가 고국에 돌아가 떠도니 유쾌하다! 유쾌해!”<sup>5)</sup> 사필 귀경과 죽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애국심의 자연적인 발로이고 이것은 조선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는 정의가이다. 그는 청 통치자와 정면으로 대응하여 당일에 살해 당했는데 그는 장렬하게 나라를 위해 희생당하였다.

윤짐, 오달재 두 사람의 위대하고 고귀한 점은 국가가 위급할 때

5) 蘿萬甲, <丙子錄>, 《記斥和死義諸公事》(朝鮮).

반점의 책임을 지고 절대로 타인을 연투시키지 않은 점과, 민족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희생정신을 표출했다는 점이다. 애국적으로 헌신하는 여러 가지 표현과 정신은 후인들의 귀감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윤집, 오달제 두 사람이 스스로 사자에 들어가기 전 국왕 인조를 접견할 때, 인조는 그들이 사자로 들어감에 힘들고 울먹인 목소리로 말하였으나, 그들의 표정은 도리어 차연스러웠다. 윤집은 "지금 이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한번 죽어도 예통하지 않습니다. 천하께서는 왜 이런 작은 일에 이러실니까?"라고 말했다. 오달제는 "신이 자고로 죽을 곳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죽을 곳을 얻었으니 여 한이 없습니다." "신은 나라를 위해 죽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런 절에서 보면 윤집, 오달제 두 사람은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었고 오히려 왕의 안위와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였다. 청의 필 박아래 국왕과 세자는 곧 성에서 나아가 청에게 항복의 예를 올려야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위협이 생겨 국가에 해가 될까를 짚었다.

오달제는 "신의 생사는 문제가 아니온데 그저 천하께서 성박에 나가시는 것이 가장 걱정이옵니다."라고 했다. 윤집은 "신 등은 이제 나가겠습니다. 천하께서 만약 세자를 데리고 나가신다면 성내에 혼란이 생길지 몰라 근심이 됩니다. 천하께서는 세자를 여기에 남기시어 만약을 대비하십시오"라고 건의했다.<sup>6)</sup> 그들의 스스에게 생사위난을 당하고 있어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국가였다. 나라를 위해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 하지 않고 담담하게 맞섰다. 윤집, 오달제 두 사람을 청 영에 보내기 전날 밤, 오달제의 형 오달승이 그를 동반하여 밤을 보냈다. 달승은 극히 비통해 마치 않았다. 그는 동생이 국가를 위해 주동적으로 자청하여 사자로 가려함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 수 없었다. 이 전에 그는 동생에게 자수하지 말 것을 권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놈들이 잡자는 자는 처음 논의한 자이며 자네는 아닌데, 왜 이러느냐?" 달제가 대답하기를 "처음 논의한 자는 아니지만 쳐화자 (마땅히 "주화"라야 한다)를 공격하니 주인이 속을 당하고 신하들이 죽음당하는데 오늘 어찌 그것을 면하고자 합니까?"<sup>7)</sup> 이 때 형은 일

6) <조선이조인조실록> 실호년 정월 기사.

7) <尊周演編> 권 10, <오달제전>, 척화는 마땅히 주화라고 해야한다. <朝陪臣考> 권 2에 이르기를 "既耕和親不可苟免"이라 하였다.

마 후면 죽음을 당할 동생을 바라보면서 만면에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젖어 말을 하지 못하였다. 오달제는 자기 형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제 곳을 알지 않았으니 형은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sup>8)</sup> 그는 “主辱臣死”的 원칙에 따라 헌신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것은 국가(국왕 즉 국가를 대표함)를 가장 위에 놓고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국가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는 “苟免”을 하지 않고 선두에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 헌신해야만이 “死得其所”라고 생각했다. 국가의 이익은 그 무엇보다 앞선다는 것이 그의 국가관이었는데 이것은 그가 나라만을 생각하여 헌신한 자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윤집, 오달제 두 사람이 묶여서 청명에 도착한 후, 다시 심양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침략자들은 여러번 항복을 권하였는데, 이러한 제의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족에서는 항복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청의 통치에 따르며, 나아가 다른 척화파를 밀고 할 것과 전가족을 테리고 심양에 와서 거주하며, 대청의 순민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청인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척화파를 말하라고 하자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우리 두 사람을 수모질행자로 보냈는데 빠진 사람은 없다.”<sup>9)</sup> 또 “나는 내 머리를 가지고 왔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다시 물어 볼 필요도 없다.”라고 대답하였다.<sup>10)</sup>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청인들의 유혹을 거절하였다. 목숨을 보전하여 심양에 거주하는 일은 더욱 거절하였다. 윤집은 “이 일은 안된다. 조선의 신이라면 의가 타국에 있을 수 없다. 그저 속히 죽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했다.<sup>11)</sup> 오달제는 내가 여태껏 살아 온 것은 만일 살아 돌아간다면 천하와 노모를 다시 만나 볼겠는데 만약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면 죽는 것보다 못하니 빨리 죽여라”라고 말하였다.<sup>12)</sup> 그들은 끝까지 반청을 위해 적 앞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할 생각이 없었고 어떠한 타협에도 굽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8) 黃景龍, <明暗臣考>, 권 2 <윤집전>.

9) 위의 주) 참고

10) <대동기문> 권 3

11) <대동기문> 권 3

12) <조선인조대왕실록> 십오년 사월 무자,

<심양장계> 청족년 오월 이십사일조

생을 마감하였다.

구의사의 정신은 삼학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반청의지는 깊고 굳건한 것이었다. 비록 그들은 청병에게 잡혔으나 반청사상은 끊이지 않고 결연한 인격은 더욱더 굳세어졌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고상한 품격과 강렬한 반청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림대군에게 선택되어 “관하”로 두어졌는데 이것은 뜻하는 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들은 조국을 멀리둔채 노정에 올라 이국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어떠한 피난처나 도원을 찾아가 재화를 꾀하고 이전의 불행을 잊고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은 대청투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구의사의 선택은 항청구국의 길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머무르면서 명에서보다 몇 배의 존경을 받았으나 차만 하거나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조선의 관직도 받지 않았다. 구의사의 신념은 청을 물리친 후 명을 다시 세우고 고국으로 돌아가 가업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효종대왕(즉 전봉원대군 이호, 順治 5년 1649년 왕위를 계승)은 원래 그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려 했으나 그들이 모두 거절하였다. 왕이문은 “여정에 나선 신이 어찌 감히 축복을 받으며 조국의 원수를 잊겠습니까! 만약 다행으로 하늘이 도와 명이 중원을 되찾게 되면 돌아가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했고,<sup>13)</sup> 독신의 왕미승은 항청대업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고 결혼을 거절하였다. 그는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서 어찌 자식을 위하여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관직도 받지 않았다. 그는 효종대왕에게 말하기를 “가정과 국가가 모두 망해 대왕의 나라에 몸을 달기고 어찌 관직을 가지겠습니까?”<sup>14)</sup> 황공, 정선갑 등도 조선이 관직을 수여하려는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구의사의 생각은 어떻게 복별대업을 실현하는가 즉 반청항쟁을 마치막까지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황공은 임종 전에 유언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며 길게 판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양친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했고 임금에게 충심을 다하지 못했으니 죄가 크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죽어서 무슨 면목으로 선제를 뵙겠는가!<sup>15)</sup> 풍삼사는 임종 때 집안 사람을 타이며 “나는 중원의 청명을 보지 못하고 이국에서 객사하니 실로 조상에게 죄인이다. 내가 죽으면 상복을 입지 말

13) 『皇朝遺民錄』 권 1, <<王以文傳>>.

14) 『황조유민록』 권 1, <<王美承傳>>.

15) 『황조유민록』 권 1, <<黃幼傳>>.

고 염도 하지 말고 관을 쓰지 않도록 하라”<sup>16)</sup>라고 유언하였다. 구의사는 청에게 지배를 받는 다난의 국가였음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삼학사와 구의사의 반청사상에서 사람들은 정의를 지키며 이상을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정신을 보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줄곧 앞으로 나가며 절대로 더러운 곳에 섞이지 않고 동요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두 길을 가지 않고 한 길을 지키며 헌신하였다.

삼학사의 반청사상에는 반침략, 반노역, 반폭력, 반사악, 정의를 지키고 국가주권과 민족존엄 등을 지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삼학사의 핵심 사상은 일찍부터 형성되었던 명과의 사대관계를 지키는 것 이었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선비들이 인정하고 지켜온 의리 즉 소위 춘추대의에 의한 것이다. 삼학사는 존왕양이를 전지하며 오랑캐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한 점이다. 또한 군신관계를 존중하고 부자지의 를 천경정의로 굳게 믿고 변하지 않는 정신력이었다. 명은 천조대국 이고 유일한 천하공주이며, 명은 조선의 종주국이며 두 나라의 관계 는 군신관계라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명에 대한 조선의 태도는 서 주 때 계후가 주천자를 존중하여 받드는 것처럼 신절을 정성껏 지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기거나 치손하는 차를 용납지 않으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실제행동에서 무조건적으로 대의적 원칙을 굳게 지키고 생사는 어떻게 되던간에 개념치 않았기 때문에 원한이나 후회가 없었다.

홍익한은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에서 의리를 천명했다. “신은 출생 할 때부터 대명천자의 계성을 들어 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예의를 관철하였기 때문에 소중화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列聖相承하였고 사 대와 근면을 수행하였습니다.”라고 한 점은 의리관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후금이 청으로 개칭하고 汗을 帝로 개칭함은 하늘을 배반하고 역적의 일이므로 그들과 강화함은 바로 역적을 듣는 것이므로, 청이 칭제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이 무력으로 협박할 때 조선 대신들 중에는 청과 강화하려는 논조를 나타냈는데, 이는 즉 명을 배반하고 청을 향해 칭신하려는 태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윤집은 상소문하여 “주화론자를 참하라”<sup>18)</sup>라고 했다. 오답제, 윤집이 잡혀 청

16) <황조유민록> 권 1, <<馬三仕傳>>

17) 앞의 주) 2

영에 보내기 전 국왕이 접견시에 그들은 격정이 없었는데, 유일한 격정이라면 국가가 패박을 받아 끈 청을 향해 칭신하는 일이였다. “신들이 죽는 것은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는 천조를 배신해야 하오니”<sup>18)</sup>라고 하여 명과의 관계를 과과에 대해 자괴감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존명시대는 삼학사의 기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흥익한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청 조정에서 붓을 들어 쓴 글 중에 “천지간에 오직 하나의 천자밖에 없는데 그는 바로 대명황제이다. 조선과 명은 일찍부터 깊고 돈독한 친선관계를 맺었다. 대명은 조선에 대해 옛부터 은혜를 내렸으므로 조선은 명조와 깊게 맺은 대恩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흥익한은 충효를 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신의 직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명과의 이런 관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실로 달게 느낄 것이다”라는 당당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는 대의를 위해 진정으로 죽어서 돌아갈 것을 각오했다. 삼학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대의를 지키기 위해 죽을지언정 굽복하지 않음은 위대한 민족으로서 모욕을 안 받으려는 숭고한 정신의 표출이었다.

구의사는 청을 승인하지 않고, 아울러 통치에 반대하는 태도를 지켰던 것도 역시 의리상의 명분 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자기들이 적첩 지내본 비참한 경험은 이런 사상을 더욱 깊게 하였다. 청이 흥기할 때 명·청전쟁에서 청이 흠악무도한 행위와 살인, 악랄 등은 반청감정을 더욱 깊게 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조성된 상해는 어떠한 것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었다. 이와같이 국가가 과과되고 가정이 과과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뼈에 저린 한이 되었다. 그러므로 청의 통치에 대해 불공대천지의 원수로서 청에 대한 어떠한 굽복의 여지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분기하여 청에 대항하고 투쟁하여 더 나아가서는 이를 뒤집어 놓아 소멸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구의사는 조선으로 가서도 시시각각으로 효종대왕과 더불어 반청 복벌을 도모하였다.

비록 명이 존재할 때 그들은 기득권자들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김겐 충도 아닌 일반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대의명분 때문에 명에 대해 한시도 잊지못했고 비록 이국타향에 몸이 있을지언정 그들

18) <조선이조인조대왕실록> 십사년 심이월 정묘.

19) 나만감. <명자록>.

은 여전히 명조의 신민으로 자처하여 南明 永歷年號을 계속 사용했다. 기실 남명은 벌써 없어지고 상징적인 의의 뿐이었다. 그러나 이 상징의 의의는 바로 그들이 오래동안 그침없는 고국의 정 및 壢奉不移의 대의인데, 이 대의는 바로 그들의 정신지주이며 위대한 민족정신의 풍모라고 할 수 있다.

삼학사와 구의사는 역사상의 우의와 참다운 성의를 나타낸 것으로 두 민족의 위대한 품격과 고상한 정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학사가 지킨 원칙은 존주사대, 존중평조이며 아울러 堅定不移였다. 이것은 이론 문제이자 현실문제이다. 소위 이론이란 자고이래로 군신부사 관계를 분명히 하는 윤리 도덕관이며 소위 말하는 춘추대의 와 頤常名教이며, 현실문제란 즉 평이 조선에 대한 일관적으로 존중과 특별한 예의이다. 조선은 평이 떡이 있다고 여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철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성지진의 정신이었다. 흥익한이 수난을 당할즈음에 정의 조절에서 칙설적으로 떡이 조선에 대한 “字小之恩”을 극구 찬양하였으며, 조선은 평파의 “深結之大恩”을<sup>20)</sup>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이러한 떡을 잊지 않고 죽어도 번치 않는 태도는, 극히 고상한 정조에서 조선 민족이 자고이래로 충신수의하는 위대한 품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의사는 바로 조선 군신과 백성들의 순박한 품격과 정의를 굳건히 지키는 전통과 정신 및 우정에 대해 굳게 지킴을 깊이 이해하여 의연하게 조선으로 간 것이다. 구의사는 조선 백성들의 진정한 환경과 열성적인 관심과 배려를 받았으며, 그들에 대해 거주와 반청사상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하였다. 구의사와 그들의 자손후대가 조선(한국)에 정주하며 지금까지 남명 영택연호를 계속사용해 왔을은 이것이 바로 중조(한) 두 민족간의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깊고 유구한 역사적 기록이다.

#### IV. 삼학사와 구의사에 대한 평가

조선 삼학사와 명말 구의사는 역사적 인물이며 특정한 역사 시대의 인물이므로 다른 어떤 역사인물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상은 시대적

20) <조선이조인조대왕실록> 실사년 삼월 갑신

으로 각인된 관계로 시대의 국한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보면 반드시 정확히 인식해야 할 문제이다. 그로 인하여 더 정확히 역사 인물의 사상과 행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정확하게 평가해야만 정당한 역사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점이 상학사와 구의사를 평가하는데 중요성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 역사상에서 존주사상의 객관적 존재 및 그 깊은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자면 삼학사상의 반청사상 중의 핵심이 바로 숭명사대 사상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외회를 연금할 때 삼학사는 숭명사대의 정신에서 회생한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이것이 가치 있는가, 필요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아야하는 가라 할 수 있다.

조선 역사상 존주사대의 사상은 뿌리 깊게 존재했으며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은 명을 大明, 皇明, 巾明, 天朝, 皇朝, 皇華, 혹은 천조대국이라 불렸으며, 조선은 小國, 小華, 小邦, 薄邦, 屬國이라 자칭하였다. 또한 명의 최고 통치자는 황제, 폐하, 군, 부라고 하였고 조선의 최고 통치자는 왕, 전하, 신, 자라 자칭하였으며 명과의 관계를 부자와 같은 군신관계로 즉 사대관계로 여겨왔다. 조선은 세계 고대국가의 하나로서 역대 중국 왕조와 내왕이 번번하였다. 기본적으로 송, 원부터 번속관계를 확립하였는데, 원나라는 강원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들을 대하는 것은 조선(당시는 고려라하였음)을 원의 행정성 중 하나로 여겨 원의 중서성에서 통치를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집권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원은 얼마후 비록 그런 정책을 취소하였으나 조선에 대한 멸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명이 건립된 후, 명태조 朱元璋은 조선에 대해 존중과 우호정책을 실시하였다. 洪武 25년(1392) 조선의 무장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운 뒤 명에 표를 올려 국호를 바꿀 것을 건의하였다. 주원장은 이 요구에 응낙하여 국호를 조선으로 하였고, 이로써 이성계는 조선의 국왕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 사람들은 명을 조선에 있어서 復國의 은혜를 베푼 것으로 여기며, 명태조에 대해 깊이 감사하였다. 이로부터 명은 계속하여 조선에 대하여 우호정책과 예의로 대하였고 조선은 명을 승상하여 사대의 애로 명을 섬겼다.<sup>21)</sup> 특히 명 만력 20

21) <역사> 권 320.

년(1592)의 “임진왜란” 시기 즉 일본의 풍신수길이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점령을 당한 상황이었다. 이 전란기에 명은 조선의 청병에 응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하였다. 7년간의 전쟁을 거쳐 마침내 일본을 물리쳤다. 명은 비록 이 전란으로 인하여 크나큰 대가를 치루었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즉시 군대를 철수시켰고, 조선에 대하여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였다. 조선은 명의 이런 행동을 “再造藩邦”이라고 하였고, 더욱더 존명사대에 힘을 다하였다.

조선의 이러한 승명사대 사상은 온 나라가 받아들이는 이성적 인식이었는데, 즉 국가적 의리에 대한 종체적 인식이었다. 이것은 유가사상을 받아들이고 수호한 결과이다. 소위 말하는 충족대의 논리적 사상을 사회생활의 지도사상으로 여겼고,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원칙으로 여겨, 의심하지 않았다. 당시 역사적 조건하에서 그들은 천하에 당연히 하나의 천조대국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명이라고 여겼으며, 황제도 오직 명의 황제 하나뿐이라고 여겼다. 뿐만 아니라 국가도 모두 황제의 나라에 속하고, 신민 또한 모두 황제의 신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하늘의 도리로 대의가 있는 곳은 쉽게 바뀔 수가 없으므로 “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하늘에 물으면, 비록 어린아이도 쉽게 대답할 수 있다.”<sup>22)</sup>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로 참호하는 것은 우스운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조선의 대신홍명고는 왕에게 올린 상서에서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로 칭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心譖俱裂, 不覺痛哭”<sup>23)</sup> 하였다. “만약 청을 승인한다면 그 칭호를 용납하는 일이고, 그러면 이는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고, 그 수치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인식하였다.<sup>24)</sup> 또한 그들과 화의를 맺는다면 “나라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 것인가”<sup>25)</sup> 이는 곧 대의를 배반하는 것을 말하며, 엄치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명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첫째가 “의”였다.<sup>26)</sup> “일을 하며 지성으로 황제를 대한다.”<sup>27)</sup> 차

22) <조선이조인조대왕실록> 십오년 삼월 갑신

23) <조선이조인조대왕실록> 십사년 사월 경자

24) 위의 주) 23).

25) <조선이조인조대왕실록> 십사년 오월 갑자

26) <조선인조대왕실록> 십사년 오월 경인

27) <조선이조인조대왕실록>

라리 후금에 못보일지라도 “황명을 배신해서는 안된다.”<sup>28)</sup> 조선이 존명사대 사상을 오래동안 지켜온 것도 현실적인 정치배경과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고에서부터 나왔다. 이는 곧 조선에 대한 명, 청 두 나라의 서로 다른 태도에 소산이다.

명은 조선의 종주국이지만 조선에 대해 시종 존중해 왔으며 서로 우호적으로 대했 해 왔다. 그러나 막 일어난 후금(청)은 명파는 관이하게 달랐다. 이로 인해 조선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조선 국왕은 황태극에게 울린 상서에 “명은 줄곧 우리 나라를 존경하였고 또한 각별한 예로 대하였고, 말로 명을 내릴 때도 육된 말이 없었다. 비록 우리가 명에 드리는 재물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명은 우리에게 풍족한 쾌물을 보내왔다. 이는 遷次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찌하여 귀국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 데도 불구하고 육된 말이 많다. 당초 결맹을 맺을 때 본래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백성들이 힘이없고, 저작거리에는 남은 물건이 없으며, 길가의 고을은 모두 비어 전관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이는 평화라 할 수 없다.”<sup>29)</sup>라고 명화하게 말하였다. 이는 청에 대한 규탄이었며 청은 조선 국왕에 보내는 상서에도 “육하며 꾸짖고, 노예로 여겼다.”라고 적혀 있었다. 조선을 대신한 사신에게도 힘으로 협박하고, 모욕을 가하였다.<sup>30)</sup> 조선 국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알리는 교서에서 협박에 못이겨 청과 형제관계를 맺은 십년은 모욕을 당한 십년이며, 후금이 제 멋대로 오만하게 업신여김을 한 것은 천대미문의 참혹한 일이다.라고 하였다.<sup>31)</sup> 이 둘을 대조해 보면 조선의 군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분명해 진다. 청의 계속적인 침략의 현실에 닥쳐 조선의 국왕과 대신들은 명에 대해서는 일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 국왕은 말하기를 “삼백년동안 정성으로 사대하였고 은혜를 받아왔다.”<sup>32)</sup> 조선은 “매년마다 명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다. 임진왜란 시기 우리 나라는 아침 저녁으로 망하게 되었는데 신종황제께서 천하의 대병을 움직여

28) <조선이조인조대왕실록> 십오년 정월 신례.

29) 주 261 참조.

30) <청태종실록> 권 28.

31) 위의 책.

32) <조선이조인조대왕실록> 십사년 십이월 정례.

재난 중에서 생령들을 구해 주었다. 지금 청에 죄를 지을지언정 명에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sup>33)</sup>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어찌 군신상하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그 공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날 대난을 당하여 해를 당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후세에 얼굴을 들겠는가?<sup>34)</sup> 우리나라가 명에 사대하는 것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군신의 대의는 반드시 떠날 수 없다. 만약 이 마음이 쉽게 변한다면 도가 없는 것이고 그 죄는 하늘과 땅에 찰 것이다.<sup>35)</sup>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관계를 굳게 지키려 하였다. 이것은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의 은덕을 잊지 않으며 자극히 은혜를 알고, 염치를 아는 것은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는 한 민족의 고상하고 위대한 품격이다. 그들은 후안무치의 모리배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덕을 잊고, 원수와 간이 일하고 이익에 따라 의리를 잊고, 옳고 그름이 바뀌는 무리를파 어찌 근본적인 구별 뿐이겠는가? 이는 인류 사회에서 아름다운 일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 보게 하는 품덕이다.

조선 역사상에서 숭명사대의 사상이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회피할 필요도 없고, 숨기거나 왜곡시킬 필요도 없다. 비록 지금에 있어서 큰 국가에 의지하는 사상은 올바르지 않지만, 조선 역사상에서 존재했던 이런 면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된다. 완전한 궁정도 완전한 부정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역사상에서 일찍이 존재했던 이러한 것들은 취할 곳도 있다. 이런 사상은 이로운 면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폐보다는 이가 더크다. 솔직히 말한다면 이것은 궁정할 만한 사상이다. 왜나하면 그것은 바로 특정의 역사시기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사상적 지론과, 그 당시 현실사회와 정치생활과 결합되며 이루어진 지성의 인식과 행동의 준칙이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조선은 명을 숭상하는 사상을 끝까지 지켰으며 특히 명, 청 전쟁시기 명이 몰락할 무렵에서도 조선은 이런 사상을 지켜왔다. 이는 진정한 사회와 역사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도의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강한 침략자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지켜왔다. 이렇게 스스로 도덕을 준수하는 행위는 민족의 위대

33) 위의 주) 28 참조.

34) <조선이조인조대왕실록> 심사년 십월 정축,

35) 위의 주) 1.

한 기질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어떤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모두 조건과 모종의 정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은 이런 의지와 원칙을 끌임없이 지켰고, 국가와 민족의 존엄을 보존해 왔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 명의 존중과 우호정책을 수여받는 과정중 승명사대 사상을 지켰다. 만약 명이 조선에 대한 정책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승명사대 사상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특이한 역사적 환경에서 조선이 지켜온 승명사대 사상은 일정한 정도의 적극적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논의가 필요없다. 역사상 서로 다른나라, 민족, 혹은 정치집단간에 협의를 달성한 것은 많지만,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지켜온 것은 매우 적다. 명과 조선처럼 우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는 극히 드물었다. 조선의 승명사대 사상은 위와 아래가 일치하였고, 절과 속이 같았으며 허위와 가히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사상적으로나, 정치원칙상, 그리고 현실생활을 통일시킨 전형적인 예였으며, 또한 광명정대하고 정직한 불굴의 민족 성격을 형성시켰다. 명이 멀망한 후 조선의 국왕과 대신들은 여전히 명을 잊지 못하였기에 朝宗岩, 大報壇, 萬東廟 등을 건설하였고, 명태조, 명신종, 숭정황제의 제사를 지냈다. 이는 정의를 기리면서 깨끗한 우의를 잊지 않는다는 정신을 반영하였고, 위대한 조선 민족성격의 자연적인 표현이었다. 삼학사는 조선민족의 고상한 품性和 위대한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런 사상의 대표자이다. 이들의 승명사대 사상은 완벽한 것이며 대의를 위한 헌신은 위대한 것이었다.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피와 생명을 조국과 민족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정의를 시현하여 국제적인 우호에 이바지 하였다. 삼학사는 당당한 민족의 영웅으로 조선 사람들의 자랑이며, 세계적으로 선량하고 정직한 인사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이며 역사상 빛을 낸 세계 인물이다.

청의 흥성시기에 압박과 폭력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대혼란을 가져오게 하였다. 구의사가 조선으로 가 한 행동이 반청행동이며, 인격과 민족의 존엄을 보존하는 정의적인 행동이었다. 그 후 국내외 형세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를 복귀하는 이상은 실현할 수 없었지만 이국타향에서 의사들의 선택과 의리를 추구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었다.

후금(청)이 조선에 대한 두 차례의 군사적 침략과 불의와 잔혹한

행동은 똑바로 보아야 한다. 반드시 침략 전쟁이라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침략에 저항하는 정의성을 부정하거나 나아가 조선은 명이 부패하고 몰락한 운명에 불구하고 숭명사대 사상을 지킨 것에 대하여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또한 명, 청전쟁시기 조선이 명을 도움으로서, 조선을 청의 교전국으로 여겨, 조선을 침략한것을 부정해서는 안되며 전쟁의 성질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면 사실을 왜곡 시켜서는 안된다. 후금(청)이 조선에 대한 두 차례 군사적 침공은 그의 강권정책과 야심의 폭로이다. 그들의 조선 침략은 조선에 큰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조선인 반대한 것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 존엄을 수호하는 정의 투쟁이었다.

역사적인 인물은 특정한 역사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주자하다 시피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과 얼마 후 출현한 조선의 삼학사와 명발구의사는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다. 반청사상 중 내재된 깊고 넓은 애국정신은 영원히 세상에 알려질 것이며, 그들이 날관 민족 정기는 영원히 후세인들을 고무 격려할 것이다.

##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에 대한 논평

조병로(경기대학교)

최근에 중국 동북 3성의 하나인 요녕성과 심양시를 중심으로 남한 산성과 삼학사, 중국사행로 등에 관심을 갖고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 학자들이 '남한산성과 삼학사'라는 주제아래 개최된 한·중 국제 학술회에 참석하여 발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삼학사의 절외정신과 국가 최우선의 대외명분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분야에 더욱 좋은 연구성과를 기대합니다. 특히 장육홍교수는 요녕성사회과학원 역사구소의 淸史研究室 주임연구원으로서 최근에는 『清代東北史』라는 역작을 편찬하는 등 청대의 역사 연구에 팔목할 만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심양시와 성남시와의 학술 및 문화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있으시길 희망하며 몇 가지 이해를 듣고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지배하의 전주위 등 누후하치와의 관계와 명·청 교체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특히 청(후금)이 대명 정벌을 강행하게 된 내외적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둘째, 명대에 성립된 양명학파의 입장과 주자성리학을 지지하고 학파들간의 청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없는지요? 있었다면 성리학적 명분과 양명학적 입장의 차이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셋째, 明末의 9의사가 명청전쟁 이후 朝鮮館(質子館으로 표현되어 있음)에 팔려가 봉림대군의 노예로 복역, 조선으로 귀국하였다고 하는데 관련 사료는 무엇입니까?

넷째, 당시(明代) 9의사의 신분적 지위는 무관, 진사, 수재 등 소위 사대부적 소양을 지닌 인사로 보이는데 보통 문사 즉 평민 백성이라 평가했는데 명대의 사대부 또는 진신계층에로의 상승욕구가 있는 과거 준비자들로서 설리학적 소양과 정신적 기질이 채감된 인물로 보이

는데 굳이 평민 백성으로만 평가해야 하는지요? 진사, 수재는 일종의 한국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예비 양반 신분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여지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삼학사나 9의사가 모두 전통적인 韓王 慶夷적 춘추대의의 名分 簡義論에 입각하여 할청정신을 천하에 드러내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특히 9의사는 노예적 입장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하고도 차결 또는 순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조선에 봉립대군과 함께 와서 '抗清復明'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은 봉립대군 즉 효종의 복별운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구체적 영향을 주었는지요?(군사전략상 등)

여섯째, 본 연구 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의 朝帝論에 대한 명의 구의사 또는 다른 지식인들의 입장에 대한 소개와 그들과 조선 삼학사와의 입장 차이 여부는 어떠하였다고 평가합니까? 항상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정치세력들의 현실론적 실리론과 재야세력간의 이상적 명분론이 개재된다고 보는데 명·조선간의 주화·주전론에 대한 상호 비교를 정치세력들의 입장에서 평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끝으로 「清實錄」에 남한산성, 조선 정벌, 삼학사 공초자료 등이 어느 정도 사료로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정리 상태와 「遼海叢書」 등에 보면 「書館錄」 등의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질문자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清의 조선침략, 삼학사 관련 등에 관한 고문서, 문집, 비문등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하여 질문을 하면 조선에 귀국한 9의사들의 이후 向方과 후예들의 존재는 어떻게 되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질문을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국가간, 학제간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여 남한산성과 삼학사를 새로운 인식, 忠孝愛國의 국가안보의식 강화와 지역 향토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중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삼학사 사적비 등을 심양시, 성남시 등에 전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三學士와 詩文學 고찰

발표 : 한춘섭(시조시인)

논평 : 金天一(중국 심양 요녕대학교)



## 三學士와 詩文學 고찰

한춘섭(시조시인)

- I. 머리말
- II. 詩작품에 나타난 三學士의 나라사랑  
1) 花譜 흥익한과 관련된 작품  
2) 林溪 운집과 관련된 이야기  
3) 秋隱 오달재와 관련된 작품
- III. 三學士 칭송의 詩문학 分析
- IV. 맷용말

### I. 머리말

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접국 일본과 중국의 침탈이 무수하게 많았다. 그때마다 騰戰의 깃발이 울려지기도 하였으나, 군욕적 攻戰의 피눈물도 적지아니 훌린 것이다. 그들에 의한 지속적인 노략

질은 한국의 역사지도 위에 얼룩진 상처를 새겨 놓았으며, 피살, 노예

와 인질 등으로 인하여 민족사 심장 위에 빠져든 아픔을 남겨 주었다.

조선조 16대 仁祖(條 1595~1649 / 재위 1623~49)가 집권 중에 겪은 정묘, 병자호란은 치욕적인 國亂으로 본다. 그 당시 귀족관리와 향촌선비 사이의 국가보위정책은 抗戰과 和解의 두 길 뿐이었다. 丙子 國亂은 한국에게 있어 예초부터 대결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清太宗은 12만 군사를 이끌고 1636년 12월 2일, 삼양을 떠난지 10여일 만에 서울에 육박하였다.

조정에서는 청의 침략 暈報를 접하고 황망한 중에 조정의 왕, 귀족들 피신처를 강화도로 택했다. 종묘, 사적, 신주와 세자비, 원손, 대군들의 韶兵 뒤이어 인조 자신도 그곳으로 피신코자 했으나 사전에 차단된 강화도를 못 건너고 어쩔 수 없이 南漢山城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므로 병자호란의 전쟁은 싸움다운 싸움도 크게 하지 못한 채 산

성 안에서 달포가 넘는 엄중설한 중에 主戰派와 主和派 간의 논쟁이 지속되던 나머지 결국, 山城밖 한강 동쪽의 三田渡에서 조선의 항복으로 일단락을 짓고 만 것이다.

당시, 斥和派(주화파)의 주동자로 열렬했던 예조판서 金尚憲(1570~1652), 이조참판 鄭蘊(1589~1641) 등과 三學士라 불려 오는 사헌부 掌令 洪翼漢(1586~1637), 흥문판 校理 尹集(1606~1637) 흥문판 修撰 吳達濟(1609~1637)의 충절기백은 靑史대대로 한 멀기 民族正氣를 새삼 깨우쳐 준 나라사랑의 표징이 되어졌다.

이 연구발표는 저 三學士의 애국혼령을 더욱 드높여 보이려는 추모 사업의 일부라 해도 될 것이다. 三學士는 한국역사의 무수한 애국혼령 가운데 결코, 외면해서 안될 烈士이다. 삼학사 세 분 후손들의 지속적인 추모사업에 비하면 다소, 미력하기 그지없는 일회성 학술회의에 불과하다.

하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선 한국과 중국 특히, 三學士 民族正氣의 파향내가 서려진 심양시 연고의 중국학자와 공동연구 발표를 주관하는 우리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사업결과는 헛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은 부족한 자료 몇 가지에 의존하여 주로 詩文學 속에 담긴 애국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花浦(霞飛) 흥의한 외에는 30전후 젊은 나이로 나라를 사랑하며 활행 당하므로 인하여 한두 권의 文集이라든가作品이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용하고자 해도 세 분의 문장이 넉넉지 않아 三學士를 칭송한 다른 사람들의 몇 편 글도 자료로 인용하였다. 성남시 일원의 故土와 관련된 병자호란의 역사적 사건을 무관심하게 생각해 온 본인도 이 기회를 통하여 새삼, 위대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거듭거듭 추스려 가기에 주저치 않았다.

三學士에 관련한 자료접근에 임하며 새삼 깨우친 점은 현대인들의 그릇된 삶 그 자체다. 과욕과 무절제로 일관하며 진정, 어떤 일이 소중하고 무슨 일이 진실로 소중한가를…? 너나없이 쓸데없는 무가치함에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 뿐이다. 글 한 편을 짓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하는 우리로서는 三學士라든가 남한산성, 병자호란 등 일련의 본격적인 연구작업이 국내외 학계와 문학가 사이에선 지금까지 무관심 상태였다. 오히려 우리측을 침탈하였던 중국의 후대 학자들에 의해 우리 보다 앞서 三學士들의 멋진 죽음에 대해 그 전말을

연구했다는 점은 실로 부끄러움 마저 갖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선례는 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절실한 것이다. 회계, 율곡의 생애와 사상 업적을 다른 나라 학술기관에서 더 애써 연구하는 것이라든가, 崔溥의『蘿海錄』또한,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반성하면서 삶을 영위해야 하겠다. 아무리 역사의 사실을 보는 시각이 변화한다 해도 犢私奉公의 正義로운 愛國者 偉人行跡은 끊임없이 검증되어 본받도록 계승되어져야 할 일이다.

三學士의 뜨거운 민족정신을 찬양기록하고, 연구평가한 論表조차 어느 교과서나 참고도서, 연구논문집 등에 충분치 못한 우리로서는 이번 학술회의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보다 활발한 研究검증과 칭송의 追慕文章이 지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삼학사 忠魂碑 建立 또한, 이 지역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것이다.

三學士 세 사람이 龍陽에 끌려가 斬刑된지 어언 360년이 지났다. 시간은 적지 않게 멀어져 갔지만, 그 당시의 뜻뜻한 流血사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슴을 멀리게 하지 않겠는가? 문학전공의 작품분석을 통해 후대인들에게 남긴 삼학사의 <나라사랑> 민족정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詩 작품에 나타난 三學士의 나라 사랑

### 1) 花浦 흥익한과 관련된 작품

韋 습 흥익한은 본관이 南陽이며 初名 습(讐), 字 伯升(伯升)이다. 젊어서부터 총명하고 풍채가 빼어나며 孝友하고 忠信하였다. 매양 사서를 읽을 때마다 節義에 죽은 사람을 보면 반드시 얼굴빛을 고치고 마음으로 사모하였다.<sup>1)</sup>

39세때 경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典籍이 되었으며 뒤이어 감찰로 명나라에 주청관-시종-고령현감-사서-정언에 이어 51세 때 사헌부掌敎에 제수되었다.

後金사신 용골대의 무례함을 본 흥익한은 임금 앞으로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1) 송시열, 『송자대전』 213권 <삼학사전>傳 번역본

우리 나라는 비록 궁벽한 바닷가에 있지만, 본디부터 예의의 나라로 친하에 알려져서 친하가 小中華라고 일컬었고, 열성들이 서로 이어서 대대로 기초를 삼아 事大하는 일편단심이 정성스럽고도 근실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노나라를 받들어 구차하게 눈앞의 안일만 도모한다면 비록 시간은 조금 연장된다 할지라도 祖宗에게는 어찌하며 친하후세에는 어찌하겠습니까? (중략) 신은 청천대, 빨리 저 사신을 잡아 죽여서 예의의 끝과 가까운 이웃나라의 도리를 밝게 보여준 후에 그 머리를 베어 이같은 사실을 명나라에 알리면 龍氣가 더욱 멀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신의 말이 허황된 짓이라면 저의 머리를 베어 노나라에 사과하소서. 신이 어찌 차마 임금으로 하여금 모욕을 받게 해 드리면서 구차히 살고자 하겠습니까? 아, 제가 아무리 잔악하다 해도 오히려 한 강벽을 타고 넓어서 오랑캐의 칼날에 몸을 바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 수천리 안에 어찌 豪士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중략)

장해치고 악해지는 것도 이 기회에 있고, 나라가 보존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있습니다.<sup>2)</sup>

라는 상소를 올린 후 평양부 府尹으로 부임케 된다. 여러 사람이 와서 花浦를 위로하자,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내 평소의 마음이다.』

하며, 집으로 달려가 양어머니 이부인과 가족들을 강화도로 피난시킨 후 자신은 힘겹게 20여 일의 바닷길로 하여 입지에 도착하였다. 보산 소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군사와 백성들을 격려하며 힘썼으나 결국, 관찰사 포고령에 의해 평양 任地에서 오랑캐 군사에게 넘겨지기에 이른다.

의주 땅에 이르자 임경업 府尹을 만나게 되고,

『살아서 대의를 지키고 죽어서 역사에 빛나는 것이 참된 남자의 일이다.』

2) 앞의 글

라는 칭송을 들으면서 중국 삼양시에 암송되는 도중, 거리의 구경꾼들도,

「이 분은 義士다. 대명천지가 안다면 어찌 기뻐하며 가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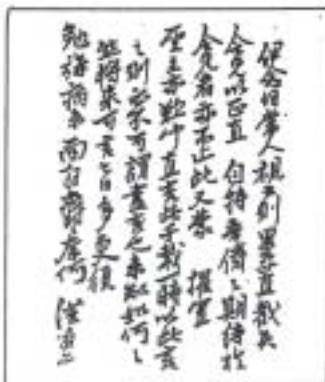
하였다.

여러 차례의 회유책을 제시받은 花浦는 끝내 당당한 목소리로 거절  
하며, 언어가 통할 수 없는 관계로 붓을 청하여 말하되,

(진략)신하의 分離는 마땅히 嗣과 孝를 다하는 것뿐이거늘, 위로  
君親이 계시나 부양보호하여 편케 해 드리지 못하고 지금, 왕세자와  
대군이 모두 포로로 잡혀 와 있으며, 놓으신 어머니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부질없이 올린 한 장의 상소문이 집안과 나라  
를 당치게 하였구나, 忠孝의 도리를 따져 본다면 쌓아버린 듯 혼적조  
차 없으니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나의 죄는 죽어 마땅할 뿐 용서할  
수 없겠다.

비록, 만 번 주목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기쁠 따름이요, 괴를 복에  
발라 그 혼이 하늘을 날아가 고국에 돌아간다면 통쾌하고 통쾌하리  
라. 이밖에 다시 할 말이 없다. 빨리 빨리 죽이다오.<sup>3)</sup>

하며 심양 서문 밖 형장에서 처형되었다.



花浦 丙午年生 亂跡 (1586~1637)

3) 남양홍씨계보(1권), 1991. 5. 148쪽.

## [例作] (1)

曾陽山 나린 물이 梁齊의 壓漬되야  
 주야 不憇하고 여흘여흘 우는 뜻은  
 지금에 위국충성을 끗내 술마하노라.

## [例作] (2)

主辱臣死라하니 내 먼저 죽어져서  
 魂歸故國함이 나의 體이러니  
 어즈버 胡塵이 舛日함을 차마 이이 보리오..

## [例作] (3)

양지바른 언덕에 새 박이 돋아나니  
 새장 속의 외로운 새 마음 더욱 서럽구나  
 옥중 죄인 담청놀이 풍속 생각이나 할쏘나  
 서울에서 마시던 술잔 꿈속에 떠오르네.

발 바람 풀을 날려 용산이 진동하네  
 불물은 눈빛으로 달속을 열게 하고  
 기갈속 실날 같은 폭습 겨우 이어 가노니  
 한 백년 오늘의 눈물이 뺨가를 적십네다.

花浦 洪瑞漢의 작품 세 편은 그야말로 大丈夫로서의 굳센 치조를  
 염 듯 느끼게 할 만하다. 그가 仁祖 군왕 앞에 올렸던 상소문 내용의  
 忠節 다짐이 時調詩나 漢詩의 주제인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國亂期를 통해 나라사랑의 忠義歌는 清陰 金尚憲(1570~1652)을 필두로  
 翠谷 洪瑞鳳(1572~1645), 白洲 李明漢(1595~1645), 松岩 李廷模  
 (1613~1673)들에 의해 뜨겁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花浦의 시 세계  
 는 다소 해독하기 어려운 한문 투의 용어가 투박한 듯 느낄 뿐이지  
 결코 작품으로서의 성과를 감쇄하진 않아 보인다.

花浦의 인간적인 면모는 <三學士傳>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성품이 자극적 효성스러우며 흘어머니를 섬김에 힘써, 즐겨하는 술잔  
 도 과음한 적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忠臣으로서도 대단한 기개를 봉  
 소 실천공행한 면모가 여실히다. 그러므로 그의 문장은 '청건하고 경  
 민하며 기격이 기일하여 한 마디 한 구절 모두가 忠義에서 나온 것'  
 이라 했던 것에 감탄하며 칭송할 따름이다.

斥和派의 거두었던 花浦, 清陰, 洞溪 등의 강인했던 必死抗戰 애국심은 조선과 檀君의 긴장관계로 이어졌다. 국호를 清으로 바꾸고, 칸(Khan)을 皇帝로 고쳐 부른 침탈국의 강세 앞에서도 굽욕적인 국교관계를 거부한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섬겨 온明朝와의 군신관계에서 그외 다른 나라를 섬긴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므로 뜻이 옳은 抗淸의 의침일지라도 나라가 위태로운 폐망지경에는 한낫, 개인의 의지가 아무 소용없음도 다 잘 알고 있었으나 그도 어찌하랴!

이에 당시 행의정 金蘓는 조정의 명분으로 “斥和者는 자수하라!”고 포고령을 내리게 된다. 自首敎이 내려지자마자 김상현, 정온, 윤집, 오달재, 김익희, 정회경, 윤문거, 김수익, 이행우, 홍탁 등 11인은 앞장서서 스스로 청나라 진영에 자수하여 들어감으로써 나라를 제양에서 구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조정대신들과 인조 국왕간에는 여러 차례 심사숙고한 후에 드디어 清行을 고집하는 尹集, 吳達濟 두 사람만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뒤엔 평양부 서윤 洪翼漢 까지 암송되도록 결심하였다. 三學士는 이렇게 하여 청나라에 각기 암송된 것이다. 결국, 花浦를 위시한 林溪와 秋潭 세 사람의 척화파 심양 암송은 한낫, 그들만의 처함만은 아니다. 조선에 멋진 麥人이 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낸 '나라사람의 불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 2) 林溪 윤 집과 관련된 이야기

校理 윤 집은 본관이 南原이며 字 성백(成伯)이다. 아버지가 13세 되던 해에 별세하자 伯兄으로부터 행실을 익히며 성심성의로 학문에 힘썼다. 22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26세연 문과에 급제, 시강원 설서-사서-사간원 정언-홍문관 수찬, 교리-이조 낭관-성균관 직강-교리 등을 고루 거친다.

主和派 崔鳴吉(1586~1647)의 강력한 和親 제의에 분개한 나머지 상소를 올렸다.

天朝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부모요, 오랑캐는 부모의 원수이니, 我나라 臣子된 자가 부모의 원수와 평약을 맺어 형제가 된다면 부모를 놓아버리는 치경에서 수치로 여기지 않고 태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임진왜란 때의 도와준 일은 떨꿀만한 것이라도 모두 황제의  
은혜이었으니 우리 나라에서는 먹고 숨쉬는 동안에도 잊기 어려울  
것인데, (중략) 어찌 화친하는 의론을 차마 이때에 주창할 수가 있겠  
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능히 그들의 죄를 바로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탈을 받아들여 臺諫의 습격가 일어났는데도 國書  
는 이미 강을 건너 갔으니 아아, 국가에서 대간을 두는 것은 도시 무  
엇에 쓰려는 것입니까. 장차 임금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독단하여 의  
리를 돌아보지 않으며, 대간을 꺼리지 아니하고 오직 사특한 의론만  
을 용호하시고, 간사한 신하만을 의뢰한다면, 마침내 나라를 일어버  
리고야 말 것입니다.<sup>4)</sup>

강력한 문자의 논지로 꾸미졌다.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가 곧 망해 가는 지경인데, 어찌 말이 결손해질 수 있겠습니  
까. 聽分이 있는 곳에 몸과 마음을 바칠 뿐입니다.』

하였다. 抗戰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할 지라도 결코, 오랑캐와 어찌 손  
잡고 설기려 하겠느냐며, 和議를 거론하는 崔鳴吉같은 이는 마땅히  
군중 앞에 表示하여 백성들의 힘을 단합시켜야 한다는 뜻이 林溪의  
주장이었다.

남한산성에서 힘겹게 城을 지키며 주화, 칙화론이 분분할 때, 청의  
書字가 전해왔다. “하루속히 城밖으로 나와 항복하고, 칙화파 2~3인  
만 잡아 보내면 절은 마땅히 이들만을 목매어 효시하여-”라 하니 林  
溪는 거듭 역양된 기운으로 간악한 무리를 폭로하며,

『이제 國書가 오자 된 것은 모두 鳴吉의 죄입니다. 어제 그 담서를  
보니 이는 謂和가 아니고 謂伏이었습니다. 臣子의 입장으로 차마 이  
런 글을 짓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나 三司의 대부분 신하들이 이같은 의견을 걸으론 따  
르는 채 하였으나 기실, 崔鳴吉 주화파로 쓸려 몇 사람의 力爭이 속  
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三學士 중심의 뜨거운 애국심

4) 이궁익, 「연례설 기술」(국역) : 민족문화추진회, 160~171쪽.

은 극소수 의견에 불과하고 만다. 급기야 남한산성을 빠져 나와 仁祖 자신의 향복은 기정 사실화 지경에 이르고, 뜻을 같이하는 秋潭과 함께 적진으로 끌려 갈 것을 자청하고 만다.

林溪 尹 集의 인간적인 면모는 <三學士傳>에 몇 줄로 기술되어 전한다.

공은 품질이 청개하고 性氣가 直截하며 총명이 뛰어나서 한 번 눈에 스친 것은 모두 기억하였다. 젊어서 집에 있을 때부터 반드시 孝友를 우선으로 삼았는데, 어버이가 질병에 있을 때는 항상 근심스런 낯빛으로 지냈고, 3년상을 치르면서는 哀禮를 갖춰 극진하였다. 형제 3인이 한 방에 거처하면서 학업에 힘쓰고 생업을 일삼지 않았으며, 해진 옷에 거친 밥을 먹고 살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세 차례나 臨閣에 들어가 質責을 스스로 달았고, 네 차례나 經幄에 들어가 지성으로 옮은 일은 순종하고 나쁜 일은 바로 잡았다. 그는 수양한 바가 매우 빠르고 칙기는 바가 매우 확고하여 끝내 大節을 성취하였으니 물세출의 군자라 이를 만하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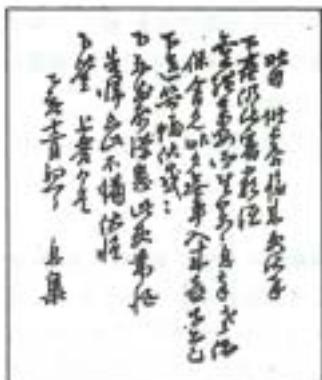
라고 한 대목을 읽으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치 못할 강직하고 효성스러운 면모가 느껴진다.

길지 않은 생애를 뜻뜻한 義理에 끌어 끌게 마감한 林溪의 높푸른 기상을 살가 우러를 뿐이며, 역사와 민족 앞에 삼가 추앙해야 할 큰 어른으로 모셔져야 마땅하다.

林溪의 작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遺書 및 기행 1책이 衣帶 속에 들어 있었으나 죽기 직전에 清人에 의해 수거 당하므로 산실되었음을 알 뿐이다.

다만, 南漢山城에서 45일 동안 對清할 때, 尹 集은 自作詩 3편을 雷癡에게 지어 주었다고 하나, 난리 중에 정신이 흩어져 그 全篇을 기억치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기억 중에 있는 林溪 은 집의 시 세 구절을 아래에 적어 놓는다.

5) 송시열, 「송자대전」 213권 <삼학사전> 第 번역본.



林溪尹 集선생 葉諱(1806~1837)

- 눈 가득한 치로운 성에 壮士들이 슬프고
- 맘새도록 내린 눈이 旌旗를 짓누른다
- 끝없는 마음 속 치로운 이야기를 내 친구(武仲)에게 알려 주려네

6)

斤和臣 정회경은 위 몇 구절을 익지로 기억하며, 그래도 시의 주제는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위의 詩 세 首에 대한 和答詩로 아래와 같은 글을 치어 전한다.

義에 죽은 그대, 이제 술과 할 것 없네  
나는 吳城에 끊은 항복하는 것발을 보았네  
이별할 때 정녕, 칼을 넘겨준 것은  
백년이 지나도 친구의 뜻 저버림 부끄러이 알게 합이려니.

— 鄭雷卿자음 —

사람들이 청렴결백하고 直諫臣으로서 으뜸이었던 林溪는 大義를  
전지하여 항전할 것을 주청한 이다. 秋潭 오달계와 같이 자청하여 請  
行할 것을 결심한 후 암송직전, 仁祖 국왕과의 접견이 특별히 있었다.  
國王은,

『그대들의 의견이 비록 낫았지만 본래 나라를 그르치려고 한 것은

6) 帶方言行錄 권4, 31면

아님을 내 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음은 고급천하에도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였다. 이에 林溪는,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나라에 이로움이 된다면 설령, 반 번 죽는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와 같이 구구절절이 애통해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대답을 의연히 하며, 오랜 시간 仁祖와 솔별 대답을 나눴다.  
林溪, 秋潭 두 忠臣에게 애통함으로 가족 간절을 하자, 이에 답한 후,

『臣들이 나가는 데 전하께서 爲子들과 적앞에 나가신다면 폐전하여 멀망하는 城안의 원관이 실로 염려되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자를 이곳 山城에 남기시고 동행치 마옵소서.』

라고 말하였다. 이에 전하께서는

『死地로 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하는구나! 죄가 없으면서 도 죽음의 땅으로 미나는 그대를 보니, 나의 가슴은 젊어지는 듯 가히 할 말이 없도다.』  
하며 국왕은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관에게 술을 가져오라 하여 장도에 오를 신하에게 성대한 접견을 마친 인조는 시종 서럽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두 신하는 왕궁을 떠난 후, 결박된 채로 적 진영에 압송되어졌고, 청태종 앞에 이르렀다. 몇 차례의 회유와 또 다른 척화신 이름을 말하라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채, 한 때는 적지로 따라 가기 전에 自決코자 하였다. 그러나 秋潭 오달체의 만류로 들은 모두 늄름한 正氣를 보인 채 충신의 大義를 품고 오로지 처형되기만을 기다렸다.

花浦 흥의한이 義死당한 지 일 개월 여 뒤인 19일(1637년 음4월)  
賀子館에 머물고 있던 조선의 肉臣 여러 명을 불러내어 옆에서 듣도록 한 채, 林溪, 秋潭 두 충신을 실문하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義를 주장하고 칙화하면서 양국의 분쟁을 일으켰으니, 그 죄가 무거워 죽일 만하다. 그러나 특별히 인명을 중히 여겨 온전케 살려주고자 하니, 너희 妻子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살도록 하라.』

라고 속마음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林溪는

『이 문제는 절대 따를 수 없다. 이미 조선의 신하인 이상 의리상 타국에서 벼슬할 수가 없으니, 오로지 빨리 죽기만을 원한다.』

하였다. 뒤이어 秋潭 오달제 역시, 빨리 죽여 달라고만 할 뿐, 청나라 심문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清人们은 그날을 넘기지 않고 심야의 西門밖 형장에서 살해시켰다. 살해 당시, 林溪의 나이 만 31세였다.

### 3) 秋潭 오달제와 관련된 작품

修撰 오달제는 본관이 海州며 字 계휘(季輝)다. 19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25세엔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되어 성균관 전적-병조좌랑-시강원 사서-사간원 정언-사헌부 지평-홍문관 수찬, 교리-홍문관 부교리에 이르렀다.

和親을 반대하고 逆和를 극력 주장하던 秋潭은 은밀하게 清과 화친하고자 사신까지 파견하려 함에 상소의 글을 올렸다.

—공론이 한 번 나오면 비록, 임금의 지존으로도 위협하지 못하며, 대신의 중한 위치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인데, 화물며 필요하게 임금의 뜻을 저버리고 감히, 공론과 맞설 수 있습니까?(충락)그런데도 鴻吉은 임금님의 뜻만을 믿고 나라의 정세는 생각지 않은 채, 豈對하던 날에 감히 기만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진술하여, 위로는 천청을 혼란시키고 아래로는 公議를 위협으로 제재하였으며, 심지어는 <臺論이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 한 쪽으로는 사신을 보내야 합니다.>고 까지 하였으나, 예로부터 대론을 놓아보지 않고 제 뜻대로 직행하는 술책으로 그 임금을 인도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sup>7)</sup>

秋潭은 벼슬을 잠시 그만두고 집에 머물러 있다가 國亂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도보로 임금님을 직접 호송하여 南漢山城에

7) 앞 책에서

들어갔다.

山城안 행궁안에서 연일 上下대신들간 爭論이 거듭되는 가운데 斥和派의 주장은 열세에 급침을 당한다. 급기야 척화신들에게 自首할 것을 권유하는 슈이 내려지므로써 淸陰 김상현, 洞溪 정온을 위시한 수십 명 斥和臣은 스스로 자수하였다. 이에 가장 적극성을 보인 林溪은 김과 秋潭 오달계 두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자청하여 척진에 들어 가길 바랬다. 이때 秋潭의 형인 承旨 달승이 아우의 손을 잡고,

『청나라가 찾는 사람은 지난 봄에 척화를 극렬하게 논의한 조선의 신하를 잡아 보내라 하였지, 너 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하자, 秋潭은

『비록 으뜸으로 논의한 사람은 아닐 지라도 이미 主和한 사람을 功斥하였고, 특히, 임금이 군욕을 당하면 신하는 용당, 죽어야 하는 것은 내가 흠헤하게 생각하는 바인데, 오늘날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피하겠습니까?』

『남아가 한 번 죽는 데, 죽을 곳을 얻은 것이 귀중합니다. 뒷일은 형님에게 말기미, 너무 슬피 여기지 마십시오.』

하니, 형도 저지하지 못하였다. 뛰어어 秋潭, 林溪 젊은 두 斥和臣을 임금이 직접 대면하며,

『고급 천하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었다. 그러자 두 忠臣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군욕이 이 지경에 이르니, 臣들은 이미 죽지 못함을 한 만했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두 忠臣들은 淸兵에 의해 압송되면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을 법하다. 그러나 그 자신들의 소청에 의해 남아답게 '나라 사랑'의 길을 택한 이상, 누구를 탓하거나 비방치 않고, 묵묵히 歷史의 大勢에 순응할 뿐이었다.



秋潭 吳道濟선생 篆跡(1609~1657)

## 〔例作〕(4)

난리 속 남북으로 부평처럼 훌어졌네  
이처럼 서로 나눌 길 누구가 알았으랴  
어머님 헤어질 때 두 아들 절했건만  
울 때는 한 아들만 홀로 둘에 나아가리  
옷깃 짧고 나왔으니 삼천지고 저버렸고  
옷을 보며 공연히 이 아들 술퍼집니다  
관세의 길은 멀고 저녁 해 저무는데  
이승에서 어느 길로 다시 문안 올리리까  
외로운 신하 반듯한 외리 부끄럼 없고  
임금 은혜 깊어 죽음 또한 가벼워라  
가장 이승에서 한없이 술픈 것은  
동구에서 기다리실 어머니 정을 저버렸음이로다.

## 〔例作〕(5)

남한산성 무너진 날 죽었어야 할 몸인데  
포로되어 아직도 못 돌아간 신하라오  
심양 오미 형 생각에 몇 번 눈물 뿌렸던고  
고국 쪽 바라보니 아무 그린 형 가련하오  
흔령은 기러기 따로나 외로운 그림자 서립고요  
춘초몽 놀라 깨나 가는 봄 서글피요  
우리 형님 색동옷 입고 어머님께 나아가  
늙으신 어머님께 무슨 말로 위로할까?

## 〔例作〕(6)

부부의 길은 사랑 중하기도 하건만  
 만난 지 겨우 두 해 되었어요  
 지금은 만리밖 헤어져 있으며  
 배넌 언약 허물어지다니  
 먼 먼 길 편지조차 못 보내고  
 산도 멀어 풍조차 늦어진다오  
 내 살 길은 기회할 수 없으니  
 뱃속 어린 아가 잘 보호하시구려.

秋潭 吳達濟의 세 편 漢詩는 사람의 뜻과 정을 음화시킨 佳作이라 하겠다. 그의 유풍문집『忠烈公遺稿』(乾)중에 수록된 10여 편 작품 중에 일부인 例作은 하나같이 불모로 암송 도중 은밀히 지어 전해진 귀한 글이다. 生死 기로에서나마 육친의 사랑을 못내 그려한 한 구절 한 구절이 자못, 애절함의 극단을 골라 뽑은 듯 하다.

〔예작〕(4)는 어미님께 바친 글('寄母詩'). 그 다음의 (5)는 형님 앞으로 보낸 글('贈伯兄'), (6)예작은 아내에게 전한 글('寄夫人南氏')로서 어느 순간적 감흥을 나타낸 글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고국을 등지고 죽음의 중국땅 심양으로 끌려가던 秋潭이 대동강가의 借川 한 촌가에서 몰래 지었다고 한다. 암송 병풀의 눈을 피해 짓고 유축처의 주인 놙은이가 평안감사에게 빼돌리므로서 편지 속에 넣어 고향집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忠과 孝와 仁義禮智를 몸 속에 익힌 반듯한 삶속에서 예통함을 예통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孝友와 儉愛를 삼상하게 바탕에 짧면서 속깊은 사랑을 표현한 글이다. 秋潭의 인품평을 잠시 인용하자면,

秋潭은 관후하고 충신하며 단정하고 方直하였다. 평상시에는 澄廓하여 말을 잘못한 듯 하지만, 나라의 이해와 政事의 특실을 논할 때에는 사기가 격昂하여 회피하는 바가 없으므로 듣는 자가 위축된다. 성품이 매우 효성스럽고 우애가 더욱 돈독하였으며, 평소 언행이 모두 여기에서 근본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孝悌의 마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곤 하였다.<sup>8)</sup>

8) 앞의 책에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이해를 파져서는 안된다고 역설한 그의 평소 생활철학이 주웠사람에겐 하나의 표본이었음을 적감할 수 있다. 죽음을 앞당겨 암송되는 죄인 아닌 죄인의 처지에 있으나 극단적인 슬픔에 빠져들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식으로 형제로 또, 지아비로서의 범상치 않은 고뇌를 전했다.

'반듯한 의리'에 살고자 말과 행동을 하나같이 힘썼던 秋潭, 병자호란의 슬픔으로 함께 죽어져야 마땅했을 秋潭, '내 살 길은 기회할 수 없다'며 외연한 남아의 가상으로 이국 하늘아래 멋진 朝鮮 護人임을 뽐냈던 秋潭 그 자신도 평범한 한 지아비였기에 '햇속 어린 아기'를 아내에게 잘 부탁하며 호국영령의 계단 위에 육신을 바친 것이다.

### III. 三學士 칭송의 시문학 분석

지금까지 삼학사의 행적을 살폈다. 忠臣 세 분의 上疏文에 담긴 懷愾했던 '나라 사랑' 의지와 행적을 통해 진정, 忠臣 중에 忠臣이었음도 새삼 알게 된 셈이다. 아울러 몇 편 되지 않는 作品으로나마 까지지 않을 불꽃같은 大義가 평생의 전부였음을 알게 되었다.

主和派 무리들을 배척하면서 사사로운 부귀영화에 초연한 때,

『나라 위한 죽을 길에 나아가니, 조금도 恤이 없습니다.』

하였던 丈夫로서의 鏡모운 육성이 아직도 들려 옴을 실감케 한다. 용기로서 直諫하고 철개로서 위풍당당했던 삶을 헛되지 않게 근본으로 삼기 위하여 그 분들이 지키려 한 '大仁之國' 정신을 한국사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三學士 못지 않게 斥和義理를 삶의 충체로 여겼던 清贊과 洞溪의 또다른 충신들도 함께 추앙되어져야 할 것을 덧붙이면서, 충분치 못한 자료와 부족한 본인의 연구결과가 오히려 僧人們의 발걸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다만, 국문학속 詩작품을 통한 三學士 評說은 처음이라는 데 다소 위안을 삼을 따름이다.

三學士의 심양 義死는 당시의 조선은 물론이요, 중국에 까지 커다란 사건이었다. 위로는 君臣으로부터 아래로는匹夫에 이르기까지 大義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로 모든 이에게 감동과 충격이 넘쳐

義節을 깊게 흡모하였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땅엔 삼강오문의 孤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오래두고 칭송케 하여 그 밝았던 이름들이 천추하에 빛내지길 바랬을 것이다. 그러므로 君臣들의 봇과 베 무에선 잠시라도 三學士 丽誦의 문장이 오랫동안 끊이지지 않았다. 그러나 거듭되는 내우회환의 국관으로 인하여 수많은 典籍, 文集들이 빼앗기고 불태워져 산실되므로 하여 현 시점에 와선 그 솔한 자료가 빈약할 따름이 아니겠는가?

하므로 몇 편을 들고 三學士 순국선열의 값진 피향내를 둘이켜 찾고자 함은 무리에 가까운 연구였다. 어쩔 수 없는 첫 발길임을 감안하여 보완작업이 이어지길 고대해 보면서, 다음의 漢詩 및 時調詩 몇 편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 [例作] (7)

슬프다 三學士, 늘름한 그 절개,  
皇朝가 있음을 알 뿐,  
오랑캐 화친을 배척했네.  
며날 때 인사말에서도 충성은 더욱 찬되고,  
죽음 앞에서 그 뜻, 더욱 고집하지 않아라  
옛 침을 다시 고쳐 빛내려 하니,  
옛일 생각할수록 느낌은 새로우니라.

&lt;應宗 지음&gt;

## [例作] (8)

南漢의 세 신하, 해와 별을 뱃삼아  
천추의 孤節이 우뚝 솟았구나  
북海의 꽃다운 이름이 모두 사라졌다지만,  
西山의 高義은 대나무 같이 푸르러라.

&lt;宋殷審 지음&gt;

## [例作] (9)

눈보라 험한 바람, 형세가 어지러운데,  
생령도 가벼이 하고 燕京 구름에 떨어졌구나  
오로지 행장에 뿌린 泪, 담당하고 마땅하지만,  
동창의 한 거친 무덤, 널리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lt;李黃蘋지음&gt;

인용된 3편의 漢詩는 모두 三學士 추모시였다. 제19대 숙종이 지은 (7)예작은 온양온천을 다녀오면서 花捕 흥미한 묘소 옆으로 지나던 임금께서 花捕의 묘계를 지내도록 당부한 후 손수, 이 詩를 지었다고 전한다.

숙종은 花捕에 대해 각별한 추모의 정감을 지녔던 임금이다. 先祖代로부터 익히 알고 있는 花捕를 특별히 추앙한 탓인 듯, 花捕의 ‘梅園’ 한 폭에까지 친히 詩 한 수를 지어 상단에 쓰고 대궐에서 감상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예작] (8)은 尤庵 송시열선생이 쓴 『삼학사전』을 읽은 지은이가 독후감으로 쓴 것이다. 구성이 체계적이며 규제미가 남다른 면이 있고, 작품의 언어사용 또한 닉월한 글이다. 삼학사의 칭송에 어울리는 상징과 은유로 암축시킨 솜씨가 대단하다. 대강의 이야기를 통해 상투적인 詩風을 탈피하고, 몸소 義人們이 걸었던 ‘나라 사람’의 참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한 창작 솜씨로 재운미를 요하게 한다.

[예작] (9)의 작품은 원래 제목이 ‘西將臺 2수’였다. 绶句體 3수가 겹쳐 이어지며 <김첨음에게 부침>이라 副題를 달았고, 뒷부분 4행의 결구체 한 수 副題에는 <三學士에게 부침>으로 모아진 글이다. 南漢山城 들레의 山 정상에 터잡은 수어장대라든가 훈련병사들의 무기창고였던 침과정을 현장답사한 후의 느낌을 적고 있다.

나라의 정세가 항시 불안한 때에도 뜻껏하게 살았던 三學士 大義를 칭송하면서 한편, 이들에 비해 침탈자 오랑캐들에게까지 조공을 바치기에 금급한 역적 奸臣들의 비열한 행동을 지적한 후, 한 몸의 부귀를 꿰한 간신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三學士의 당당한 피 뿌림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다만, 초라한 무덤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이 처한 시대를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파연, 순국하신 충신들에 대한 국민적 추앙심은 과거만 소홀하였을까?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 적 없이 ‘나라 사람’을 몸으로 바쳤던 지금까지의 衍國偉人們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깊이 반성해 볼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고장부터라도 이같은 현상은 아직도 추앙사업을 손도 대지 못한 채, 거룩한 땅위를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다음으로 三學士 칭송의 時調詩 몇 편을 골라 감상해 보고자 한다.

漢詩 못지 않게 우리의 民族詩歌로서 오랫동안 국란극복의 교훈성을 담아 온 문학장르에 의존한 忠臣 찬양은 오래 기억될 만하다.

## 〔例作〕(10)

楚王 어부들아, 고기 낚아 죽지 마라  
屈三臣 충흔이 魚腹裡에 들었나니  
아모리 墓道에 삶은 물 변할 줄이 있으랴.

&lt;李明衡 지음&gt;

## 〔例作〕(11)

三學士 피 흘린 곳이 여기리까 저기리까  
심양설 풀 우거진 곳 風雨만 제오쳐라  
忠魂을 부르는 손이 갈바 풀라 하노라.

세 번 부르노라 三學士의 가신 냅을  
삼백년 지나가도 忠魂이 스오리까  
오늘에 치는 風雨를 눈물 흘러 피노라.

&lt;李光洙 지음&gt;

## 〔例作〕(12)

三學士 애국충절 松竹같이 푸른 마음  
清 太宗 네 威力이 호령한 들플 무엇할고  
殉節한 세 문 충령에 명복 빙고 가노라

&lt;高 百韓 지음&gt;

〔例作〕(10)은 삼학사와 뜻을 함께한 和平 한 사람의 글이다. 清 나라에 두 차례나 잡혀갔다 온 도승지, 한성부우윤, 이조판서 등을 두루 거친 이로서 글씨에도 능했다고 전한다. 春秋전국시대의 충신 屈原과 다를 리 없는 三學士의 용맹탁특한 氣概를 故事로 비유하고 있다. 그 어떤 強壓 앞에서라도 지조를 깎이지 않은 우리의 애국혼령을 추앙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例作〕(11)은 春園 이광수의 作品이다. ‘弔 忠魂의 노래’ 詩題 아래 遷型틀을 갖추었다. 비바람 치는 日帝下의 암흑기에 三學士 참형 장소를 순례하며 역사속 떳떳한 忠節을 추모한 자취가 엿보여 진다. 삶을 버리고 義를 선택한 호국영령들의 서망은 삼백년이 지나가도 사

라질 리 있겠느냐 하였다.

[例作] (12)는 어느 文士의 작품이다. 古時調의 풍류적인 체취가 서린 창작 솜씨에서 痴烈先民을 추앙하는 마음이 배어 있다. 오랜 역사의 根幹을 이룬 애국훈령 앞에 명복을 빈다는 이 詩題는 '變節祠'이다. 자기 주장은 죽음 앞에서 굽하지 않았던 '나라 사람'의 뜨겁던 忠血 방울방울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역사로 서려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는 것 같다.

#### IV. 몇을말

작품 속에 부각된 三學士의 忠節을 종합하면서, 통일된 구조 안에서 의미 부여가 두렷하였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15세기 이후의 한국 사회 관념체계는 가장 논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반드시 실천할 삼강오륜에서 벗어난 삶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丙子胡亂 그 당시의 主和派 논리는 어긋나는 義理일 수밖에 없었다.

歴史속의 이야기도 인간 과거의 사건인 것이다. 시간의 짧고 긴 간격만 다를 뿐, 어제의 일이 곧바로 과거의 역사며, 오늘 또한 역사로 기록되어 나간다. 한국의 歷史속의 이야기도 인간 과거의 사건인 것이다. 시간의 짧고 긴 간격만 다를 뿐, 어제의 일이 곧바로 과거의 역사며, 오늘 또한 역사로 기록되어 나간다. 한국의 歷史 속에 大義로 正論을 살아 목숨까지 바친 殤國抗戰의 忠臣 이야기는 무수히 많았다. 三國時代 중에 城을 쌓아 나라를 잊지 않으려고 一身의 죽음을 바다하지 않았던 왕과 장수들이 그 얼마였는가?

變節하기란 죽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던 저 高麗末 困倦같은 忠臣들이 조선시대에 이어졌으며, 나라와 君主를 위해 생명을 아깝다 하지 않았던 예는 적지 않게 역사의 초석으로 깔려있다. 死六臣, 三學士, 義兵, 일제시대의 獨立志士 등 실로 많은 殤國先烈 자취는 이 나라의 전 국토를 덮고도 남음이 있음 직하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달라지고 있다. 자신이든 민족이든 백년대계를 위해 악착빠른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해타산으로 급급해 하고 있다. 당장 눈앞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가고 있다. 가깝게는 韓國戰爭으로 순국한 전문 英靈들과 멀리는 日帝시대의 義兵 그리고, 이 민족

역사위에 참다운 義人이 있음을 드러낸 三學士의 그 헌신적 忠節氣概는 한낮, 옛날 소설책 속의 이야기처럼 무관심해 하는 성실다.

三學士 義死 사건의 배경이 바로 南漢山城에서 발단되었으며, 그 분들의 추모 사당 顯節祠가 이곳에 있지 않은가? 않으나 서나 '爲國忠節'을 입속에 뇌까리며, '반듯한 義理로 나라 위해 만 번 죽는다 해도 서럽지 않으리라'한 그들 <애국애족 정신>을 이 시대와 후세 앞에 백 번 천 번 설교한다 한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에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하찮은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집, 정리, 연구, 보존시켜 나가는 걸 보게 된다. 그들은 무의미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판국이건만 하물며, 있었던 과거사의 기록현장을 역사문화 유산에 있어서 어찌, 무관심에 가까운 외면으로 과거를 숨두리찌 잊어가려 하는가?

시대는 갖고 사람들도 갖지만, 不死鳥같은 三學士의 忠節과 品德의思想만은 천추하의 민족사 지렛대로 계승시켜 나가야 할 일이라고 하겠다.

본인은 지금까지 본말이 천도된 쪽으로 이야기했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이든 국가 전체이든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하여 너무 등한시한다는 점이다. 몰라도 될 일과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일체를 외면하고, 내것과 우리 것에의 문제에 대하여 너무 몰라라 하는 태도다.

三學士는 민족 앞에 '나라 사랑'의 숭고함을 헌신으로 가르쳐 준 분이다. 잠시만 침묵인 채, 그들의 갑동적인 죽음을 들어보기만 한다면 맷속의 사무치는 숭고함이 솟구칠 만 하다. 당시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正義를 찾고자 목숨을 들보지 않았던 志士의 정신은 충분히 시대를 뛰어 넘을 만한 品德이지 않은가?

하이, 三學士 추모사업은 몇몇 후손들의 현창사업으로 전개할 게 아니며, 이 고장 향토문화의 총효계승 사업으로 크게 부과시킬 일이라고 계안한다. 광주군과 성남, 하남시 일원의 문화적 한 팻줄 속에서 애국훈령을 위한 추모비 건립 같은 일과 더불어, 매년 정기적인 강좌라든가 백일장 개최 등으로 '나라 사랑'의 높은 뜻을 계승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는다.

## 「三學士와 詩文學 고찰」에 대한 논평 —正義를 稱頌하는 一篇의 正氣歌—

金天一(중국 심양 요녕대학교)

時調詩人 韓春燮先生님께서 <三學士와 詩文學 考察>이라는 學術論文을 發表했다. 이 發表文에서 나타나는 感情, 思想, 風格은 三學士의 正義 精神과 一致되므로 韓春燮先生이 發表한 學術論文은 正義를 稱頌하는 一篇의 正氣歌라고 아니할 수 없다.

### I. 正義는 人類의 魂이다.

三學士 精神의 核心은 正義이다. 正義를 위해 싸우고 正義를 위해 獻身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韓國에서는 三學士의 正義 精神에 대한 研究는 아직도 積極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연구된 자료가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히 한춘설선생께서 이 論文을 發表했기에 文學的 시도로 三學士 研究를 開拓하여 이 領域의 空白을 베끼 역사적으로 큰 공헌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中國에서는 三學士에 대해 研究하고 있는 學者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중국에서 無國한烈士가 中國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가? 답안은 하나다. 「도덕이 있는 사람은 둥반자가 반드시 온다.」(德不孤, 必有鄰) 中國의 古代思想家 孔子께서 이렇게 말하는 本質은 正義가 人類의 魂이기 때문이다. 道德의 本質은 正義이다. 正義가 사람을 人間답게 만들고 正義가 사람을 감동시켜 천년 만년 명원히 青山처럼 常青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道德을 강조하고 正義를 稱頌하는 것이다.

360년 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三學士는 오늘에 와서 後輩들이 이렇게 확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주므로 九泉之下에서 눈을 편안히 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에 와서 역사 인물을

이렇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히 後孫으로서 先祖들의 功勳을 높이 평가하고 家門을 높이 선양하고자 하는 뿐만 아니다. 물론, 가문을 높이 선양하는 것도 정의를 선양하고 사회의 정신문화 건설에 하나의 기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보다 더 우기 중요한 점은 역시 현실의 사회적意義다.

깊은 正義思想을 가지고 있는 선구자들은 오늘날 文明은 發達했으나 人間은 날로 애소해지고 죽어 간다고 개탄한다. 물질만능 통조와 과학기술 향상으로 인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을 느끼며 인간경시, 인간소외, 인간부재의 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크게 우려한다. 날로 심각한 人口問題는 식량 및 자원과의 부조화를 이루고 개발 계획주의는 환경훼손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질적 요구에 의한 정신적 타락은 우리의 삶을 온통 대중적 퇴폐와 향락문화에로 전락시키고 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극단적인 배타적 이기주의와 감성주의는 대중주의에 빠져들게 하여 人間性을喪失케 할 뿐만 아니라 物質萬能主義, 科學技術至上主義의 풍조는 X세대의 출현과 假想세계를 바라보는 cyber-punk족을 냉정하게 하여 온 인류를 대결의 장으로 몰아 넣어 세대간, 계층간 그리고 종족과 종교 및 국가간의 분쟁을 조장시키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세계기류 속에서의 범죄상과 사회상을 어떠한가.

사회의 범죄상을 살펴 볼 때 三綱五倫은 땅에 떨어져 있고 정의는 어느 곳에 숨어있는지 찾아 볼 수 없다. 날로 늘어가는 사기, 절도, 강도, 방화, 마약, 테러, 유괴와 인신매매, 가정파괴, 존비속의 학대와 살해 등의 폐륜범죄를 볼 때, 우리 스스로가 과연 인간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조직망을 넓여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치가로부터 나라를 망친 사기사건이 날마다 뉴스에서 폭로되는 것 보다 이 훌륭한 살학사 정신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 학교폭력이 날로 활개치는 청소년들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비슷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역시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1996년 10월 10일 中國共產黨 第14屆 中央委員會 第6차 全體會議에서 通過된 <中共中央關於加強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干重要問題的決議文>을 통해 사회 정의를 재건하여 정신

책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의 딕은 무엇이고 나라의 정의는 무엇인지, 삼학사의 문장과 자신의 행동으로 답안은 당당정정하게 친하에게 알려졌다.

## II. 벌들이 體造한 百花 꽃이 인간의 삶을 달게 만든다.

한출섭선생께서는 삼학사 人品과 詩文學에 대해 자세히 고찰 연구를 해왔다. 花捕 홍익한과 관련된 작품, 林溪 윤집과 관련된 이야기, 秋潭 오달계와 관련된 작품, 그리고 삼학사 청송의 詩文學 分析, 그 많지 않은 자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논문을 내놓는 자세가 '모래에서 굽을 우려내는 듯한 대단한 경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文學의 시도에서 三學士 研究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는 역사의 유적(遺蹟) 혹은 전적(典籍)으로 말하는 것이고, 뉴스는 그 시간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文學은 그것만 가지고는 문학이라고 말할 기 어렵다. 그 사건과 사실은 꽃을 만들기 전에 자연의 花汁뿐이지 꽃은 아니다. 美國 文學理論家 보로 (John Burroughs 1837)博士가 이렇게 말했다. 「純正한 문학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흥미는 작가의 그 자신이다. 그 자신의 性質, 人格, 見解 - 이것이 바로 真理이다. 우리의 어떠한 흥미가 그의 자료에 있다고도 말할수 있지만 그러나 純正한 문학자들은 어떤 자료도 다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그의 작품에게 자신의 인격적 요소를 注入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를 숙이고 그 자료의 事實, 議論 報道만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엄밀한 의미의 문학은 감상할 수 없다. 문학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무엇을 알려 주는 것보다 작가는 어떻게 알려주었나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작가가 그의 작품속에 자기의 독특한 성질 혹은 매력이 어느 정도 注入한가, 이 작가의 독특한 성질 혹은 매력은 作家 자신의 靈魂의 사물(屬物)이다. 이것은 작품에서 빼 낼 수도 없는 것으로 새의 털, 꽃의 화분과 같은 근본적인 것이다. 벌들이 꽃에서 빼내는 것은 꽃이 아니다. 꽃을 만들려면 벌이 반드시 자신의 분비물-蠟酸을 꽃줄에 注入하여 꽃즙을 특수환경에서 개조해야 새로운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다. 벌은 특수적 人格의 寄與이기 때문에 그의 문학작품에

서 반영된 일상 생활의 事實과 經驗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조하며 더욱더 高尚化로 된 것이다. 그래서 文學作品은 실지 生活보다 더욱 더 生動되어 있고 더욱 더 침중되 있으며 그가 더욱 더 普遍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성(眞型性)도 忽視할 수 없게 된다.

三學士 詩文學은 바로 이러한 特殊 법의 인격적 寄與이다. 『살아서 大義를 지키고 죽어서 歷史에 빛나는 것…』 피와 죽음으로 쓰여진 人間의 眞理篇은 이러한 의미에서 대대손손으로 社會教育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론 기초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역사적 각도에서만 연구하는 것보다 문학적 연구하는 것도 사회교육 의의가 더욱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인격 가치가 있는 문학작품은 영터리로 꾸며놓은 문학작품보다 글 가치는 천하에 차별 (天壤之別)이라고 말할 수 있다.

中國 漢시대 <史記>를 쓴 司馬遷이 이러한 말을 한 적 있다. 「人固有一死, 或重于泰山, 或輕于鴻毛」 (인고유일사, 흑중우태산, 흑경우홍모) 뜻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이 혹시 태산보다 무겁고 혹시 기러기 털 보다 가볍다.

삼학사의 「爲國盡忠」은 태산보다 重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된 것이다.

문학작품의 완성은 자신이 그를 썼다고 해서 작품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작가가 쓴 글은 반드시 독자가 있고 작가의 의지를 독자에게 전달되어 독자가 그의 작품부터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작품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작가들은 독자를 끌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특징의 하나는 감정으로 사람을 감동시켜 작가의 의지를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작가가 노력 할지라도 작품이 사람을 이끌 매력의 水準은 高低, 文野, 粗細의 구분에 있다. 「無病呻吟」 아무런 병도 없는 데 흥얼흥얼거리는 것도 문학이라고 광고 내어 팔겠다고 하지만 생명력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꽃리가 꽃위에서 섯다가 다리에다 꽃분을 묻혔다 뿐이지 인간의 삶을 달게 해주는 꿀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학사처럼 피와 죽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달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인간의 삶을 달게 만드는 꿀이다. 광자께서 <시언지>(詩言志)라는 말을 한 적 있다. 그 뜻은 시는 자신의 의지를 말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는 천년만년 생명력이 있고 해마다 읽어도 혼신 털털이 들게 되는 정의의 호소문이기에 우리들은 반드시 잘 연구하여 후손들에게 이러한 寶貴遺產을 물려 주는 것이 몇 천억 金銀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욱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 III. 民族의 群體 生명은 個人의 個體 生명보다 더욱 더 크다.

民族의 群體 生명은 個人의 個體 生명보다 더욱 더 크다는 것은 道德의 하나의 原則이다. 中國의 哲學家 孟子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生도 나의 慾이고 義도 나의 慾이다.」(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이것은 生과 義, 生命과 道德은 모두다 중요하다는 것을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두자의 협조원칙은 정상적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특수한 사정에서는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다. 그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맹자께서 또 말한 것은 「두자를 다 같이 가질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生을 버리고 의를 구하는 것이다.」(二者不可得兼, 則捨生而求義者也.)

어느 사정에서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을까? 이 것은 두 가지 사정 하에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민족의 독립이 意骨을 받을 때, 또 하나는 개인의 존엄(尊嚴)이 협박을 받을 때 자신의 尊嚴을 위하여 죽어도 不屈하는 것이다.

삼학사는 민족의 생존이 意骨을 받을 때 생을捨て고 의를 지킨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내 평소의 마음이다.」(花蒲), 「나라가 곧 망해가는 치경인데, 어찌 말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畢分이 있는 곳에 몸과 마음을 바칠 뿐입니다.」(林溪), 「비록 으뜸으로 논의 한 사람은 아닐 지라도 이미 主和한 사람을 공척(攻斥)하였고, 특히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응당 죽어야 하는 것은 내가 흡족하게 생각하는 바인데, 오늘날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꾀하겠습니까?」(秋潭) 이러한 말씀은 魂魄의 道白이다. 捨生取義의 대표적 말이다.

삼학사에 대한 연구는 현시대의 사회 배경에서 연구하여야 그 의의가 더욱더 깊고 가치도 더욱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가 정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연구의 시야를 좀더 넓혀보면 효과가 더욱 더 크겠다고 본다.

## 三學士 思想과 仁祖와의 갈등

발표 : 姜相順(중국 심양 고궁박물관)

논평 : 신호웅(관동대학교)



## 三學士 思想과 仁祖와의 갈등

姜相順(중국심양고궁박물관)

### I.

360년전 명말청초 조선의 三學士 洪翼漢, 尹集, 吳達濟 등은 朝鮮史  
書의 “三韓山斗”가 되어 동북아시아 역사계의 큰 주목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1985년 沈陽 漢河 강변에서 “三韓山斗” 비석이<sup>1)</sup> 발견되어  
중국, 일본, 한국학자들과 삼학사의 후손들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생각하여 자못 흥분하게 만들었다.<sup>2)</sup> 금번 한국 城南市의  
요청을 받아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본 글에서 필자는 조선 삼학사  
연구자료를 간단히 기록하고, 丙子之亂(1636년) 중의 三學士와 국왕  
의 관계 및 그들의 사상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이 논문을 통하여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을 만나 이 관계의 연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이다.

삼학사와 국왕의 관계는 당연히 君臣 관계인데, 이것은 매우 뚜렷하다. 그러나 中國 明朝시대 東北지구에서 滿族의 흥기와 清朝의 건립  
뿐만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조선 침입으로<sup>3)</sup> 조선의 군신관계를 흔들어 놓았으며, 이로 인하여 조선 조정의 격렬한 사상충돌을 일으켰다.<sup>4)</sup> 본 글에서는 丙子年(기원 1636년, 조선 인조 14년)부터 丁丑年까지의 動亂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중점적으로 논할 것은 조선군  
신들의 관계이다. 이를 위하여 간단하게 역사적 사실과 그 관계 및  
사상을 토론하면서 각국의 학자들과 교류를 도모하려 한다. 명 延歷  
중기에, 일본의 풍신수질이 침입하여 조선의 팔도를 점령하였다. 명  
조는 조선의 철에 응하여 7년동안 군대를 파견하여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 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과 명조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였는데,  
조선은 명조의 은혜를 생각하여 정치적으로 명을 존중하였을 뿐

1) 沈陽市 民族宗教委民統志廳公室發見.

2) 삼학사 중의 한 사람이었던 오달세의 후손은 여러번 심양을 방문하였다.

3) 明成祖, <清太宗實錄>

4) 明成祖, <李朝實錄> 仁祖.

만 아니라 경제, 문화상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민간에서는 혼인을 통하여 혈연관계를 맺는자들이 적지 않았다.

## II.

조선이 명에 대한 충의는 깊은 사상적 기초가 있었으므로 명이 成化年간에 建州를 칠 때, 군대를 파견하여 도왔고, 정묘년(1619년)에 명이 군대를 파견하여 누르하치를 칠 때에도 姜弘立 원수를 파견하여 원조를 하였다. 이후 명의 총병 모문룡이 遼民 수만명을 모집하여 皮島를 지킬 때도 조선을 의지하여 군대를 출병시켜 연해의 성새를 습격하였다. 1626년(金天聰元年, 조선 인조 3년) 皇太極은 阿敏, 岳托 등으로 하여금 조선을 침략하였는 데 수만의 군민을 도록하고, 양식창고를 불태웠으며, 곧바로 서울부근까지 진격하여 서울을 위협하였다. 이에 조선국왕 李倧은 왕실의 原昌君 李贊을 파견하여, 開州 남해의 豊華島에서 金軍과 학의를 하고 금과는 형제지국을 맺었다. 금은 무력을 사용하여 매년 봄가을로 세례를 금에 보내도록 정하였는데, 불평등이 매우 분명하였다.<sup>5)</sup> 금·한지간에 사상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금은 명이 천하공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천하는 먹이 있는 자가 차지해야 된다는 사상을 고취시키며, 한편으로 金汗이 계속하여 조선에 압력을 넣으므로 조선 조정은 나날이 불만이 더해 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아래에서 洪翼謙, 尹集, 吳達濟 등은 弘文館(명조의 한림원에 상당함)에 들어가 국왕 이종의 문신이 되었는데,<sup>6)</sup> 이들은 동란시기의 우수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묘당에서 “正言” “修撰” “獻納” “吏曹佐郎” “吏曹正郎” “掌令”的 직을 맡은 귀족출신의 청년들이었는데, 그들과 조선왕실은 밀접한 관계의 군신관계였다. 그 충군사상의 대의는, 명황제에 대한 충성은 조선 왕실에 대해서도 공통의 약속이 된다. 삼학사 중의 한사람이었던 흥익한은 장령재직시 올린 상소 중에 매우 분명하게 이를 표현하였다. “신은 세상에 올때 그저 대명친자가 있음을 들었을 뿐이며”, “우리 나라는 예의로써 천하에 소문났으며, 소중화라고 불리웠고 여러 제상들은 일에 있어서 마음을 크게 같고 공경하였고 근면했다.” 라고하며 “지금 오랑캐에 복

5) <清史稿> 권56.

6) <이조신록> 인조권31.

중하여 안위를 쫓는것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평을 하며, 황태극이 황제가 되고자하는 아심을 강렬하게 반대하며 국왕에게 “분별하여 더운 더 대용을 발휘하여 급히 사자들을 잡아 처결하여 천하에 위력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였다.<sup>7)</sup> 이에 국왕 이종은 “葛爾爲國之誠”이라고 하며 표창을 주었다. 그러나 사자를 죽이라는 요구는 “너무 이른 것 같으니 형편을 보아가며 죽여도 늦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소중에서는 정묘년 이래 “번번히 뛰어다니며 화해를 빙고”, “무조건 복종하며”, “조정에서 사자를 제왕으로 모시니”, “陛下는 무슨 면목으로 천하에 서시는가”라는 격렬한 인사를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조선 국왕 이종은 일체를 탓하지 않았으나 조선국왕과 삼학사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사상이 어느 정도 공통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의 사상은 “예의”에서 서로 통하고 “天朝” 즉 명황제를 존중했다. 조선의 군신들은 “오랑캐의 사신을 접견하지 말라”, “悖理之言을 듣지 말라(즉 皇太極이 임금이 되려고 하는 언사)”는 조치와 鎮臣을 향한 전쟁준비를 하자고 결정하였다. 金汗의 사절은 사자를 죽이려 했다는 소식과 慢書를 받지 않음에 노하여 문을 박차고 성을 나갈 때 구경꾼들이 길을 막우고 아이들이 기와조각을 던지며 욕을 하였다. 이 때문에 이르러 금과 조선은 위기에 다달았다.<sup>8)</sup>

이러한 국면이 형성된 것은 단순하게 흥익한 등의 일이 아니고, 이를테면 삼학사의 사상에 국왕 이종이 동의한 것이다. 우리는 그 해 3월 국왕이 8도에 하달한 교시를 보면 “우리 나라는 정묘지변을 당하여 부득이하여 잠시 권세에 양보하였다. 그들의 염치는 한정이 없고 공갈이 나날이 더하여져 우리 나라에 전에 없던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미 속을 당해 이를 아프게 생각하며, 나의 생각으로는 훗날 기회가 있으면 갚으리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그들은 점점 舊呼之設을 동의해 달라는 서신을 갑자기 보내왔으니 이에 우리의 군신들이 어찌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있겠는가?”, “강약존망지세를 불문하고 정의의 결단을 내려 서신을 거부하였다. 胡虜 등은 연일 서신받기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서신을 받지 아니하자 이에 화를 내고 돌아갔다. 도성에 사는 남녀들은 병화가 조식으로 닥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모두 척결함을 꾀하여졌다. 하물며 관로에 조정의 正大之擧가 있었

7) <이조실록> 인조권32.

8) <이조실록> 인조권32.

음을 알면 위급한 형세는 반드시 풍문에 의하여 일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적을 대하는데 어찌하여 원근귀천의 관계가 소원해지겠는가! 충의지사들은 각기 책략으로, 용감한 사람들은 자원하여 군문으로 들어가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여 국운을 갚을 수 있어야한다.”<sup>9)</sup>

기실 국왕 이종이 참을 수 없는 것은 僮呼뿐만 아니라 金汗의 상하가 조선에 대한 계속적인 재물요구와 일련의 치나친 요구이다. 명백하게 “강약존망지세를 불구하고 정희의 결단을 내려 서신을 거수하였으니, 그 후과는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의 기강이 흐려 법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담오의 풍조와 사치가 심하였으며, 군액은 나날이 줄어들어 자체의 병력은 약해지는데, 이와 반대로 적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천재지화가 계속되어 국가는 전체적으로 위난에 빠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도성의 흉흉한 무리들은 밤마다 중실의 대군을 사자주변에 소란을 일으키고, 역적 흥의 아들을 반들어 세운다거나 光海를 재추대한다 하며”<sup>10)</sup> 국왕의 사정은 더욱 복잡하였다. 명조의 黃監軍이 조선에게 사신을 보내라는 일에 대해 서신을 보낸 것인가, 어쩔 것인가, 어쨌든 화해를 하여 무사이 지낼 대계를 놓고 중신 최명길파 삼학사 중에 하나인 수찬 오달계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오달계는 대외에 따라 격앙한 나머지 최명길은 저격하여 “위로는 천자를 미혹하고, 공의를 억누르며,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멋대로 한다고”하며,<sup>11)</sup> 금한의 사자와 화해를 하고, 투항하는 것을 격렬히 반대하여 서로가 원한을 갖게 되었다.

국왕 이종은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사람이라면 잘못을 모면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그저 실수를 책임하면 된다. 만약 경중을 조사하지 않고 존비를 불문하고 때를 잡아 육설을 펴부어 세멋대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명길은 일품중신으로 그의 공적이 사직에 남아 있으므로 설혹 그의 언사가 옳지 않더라도 절대로 멸시와 모욕을 해서는 않된다. 한데 어떤 사람이 모욕을 가했으니 오늘의 풍습이 한심하지 않은가? 오달계는 일시 면직하라”. 이것으로보아 국왕의 뜻

9) <이조실록> 인조권32

10) <이조실록> 인조권32

11) <이조실록> 인조 권32

은 죄명길에 기울어 있었고, 政院과 廪府에서는 오달제의 면직명령을 회수하라고 권고를 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고, 최후에는 이를 뿐인 차리로 이동시켜 지위를 보존케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비평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다. “조선은 자강의 대책이 없고 금국은 만족을 못하는 욕심이 있어 화해가 매우 어렵고, 과거 천조의 힘을 빌어 나라를 다시 일으켰는데, 오늘날 큰 화가 닥치며 반드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년 봄 화해를 거절한 행동은 사기를 돋우는 행동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을 파견하여 사자를 과전하여 간접적으로 오해를 풀고자 하는 임금에게 권고하는 언론은 존중을 받지 못하니 후에 생긴 폐단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왕 이종은 이런 소리가 듣기 싫었지만, 여론의 압력을 받아 죄명길의 사직에 동의를 하였다.

삼학사 중 오달제는 상소를 통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화외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망칠은 옛적부터 그러하였는데 오늘날처럼 삼해본 적은 없다. 천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이다. 놈들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이다. 신하로서 어찌 부모의 원수와 형제라고 약속하여 부모를 잊어버린단 말인가!”. 동시에 조선 국왕에게 “赫然奮發하여 쳇화론을 근거로 하여, 청국한이라는 석자를 입에 올리고 항복을 장려하는 것을 비평하였다. 국가대사를 논의하는데 많은 신료들을 제외하고 몇몇이 토론하는 것은 아니된다. 나라 일을 연구하는 데는 남의 말에 따르는 말이 아니어야 하며 군신에게는 밀어가 있을리 없고 진회도 같이 하지 못한다. 명길은 서슴없이 해내였고 訓處厚는 성실성의로 아뢰었고 오달제의 상소는 실로 공론에 의거하였는데 엄한 책망을 받았다. 삼사의 직을 가진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쌓았으니 어찌 무리를 인출하리요! 임금이 위에서 독단을 하고 우리들의 언론을 중시하지 않고 사의만을 따르며 아첨자를 외치하는 것은 용인하지 못 할 일이라고” 화력을 집중하였다. 죄명길의 투항하여 나라를 상하게 하고 “임금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밖으로는 도적의 세력을 엄고, 안으로는 임금을 위협하며”, “백성을 크게 고생시키고, 종사에는 제사도 없다”라고<sup>12)</sup> 위협하며, 자기의 더러운 곳을 팔아 먹는다고 하였다.

12) <이조실록> 인조권33.

윤집은 이 상소의 마지막에 “여기까지 말하고나니 머리카락이 일어선다”라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개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李行健의 遷辭에서도 “淸議”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략적으로 보면 “안으로 마음을 속이지 못하고, 밖으로는 하늘을 속이지 못하니 회의에 이르러 거짓을 내어놓고, 마음에 없는 아첨을 하는 사람을 통해 죽해야 한다고 인정하며 범안직간을 하지 않는 것은 망군애국”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조선 국왕에 대하여 비평하기를 “感於逢迎之邪說에 유혹되어 조상이 준 책임과 백성과 신하들의 바램에 부용을 하지 못하니, 천하의 후세는 어떻게 국왕을 보며 국가는 어떠한 경지에 처하겠는가? 수백년의 종사는 명길의 한마디에 방해버리는가! 그는 대당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여도 賤性愚妄을 실현하지 못하고 수시로 부양을 못하니 사직의 직을 없애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정직한 언론이었기에 대다수의 조선관리들에게 찬동을 받았다.

이런 정황下에 大司諫 李敬求는 책방을 받고 면직되었으며 양사의 많은 관원도 서로 뒤이어 사직하였으므로, 육당은 삼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소, 사직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국왕 이종은 윤집과 김상현이 한집안이어서 상현과 동당이 되어 죄명길을 공격하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원인이란 전일 죄명길이 연희 중 趙綱의 일 때문에 김상현에 대하여 비평을 하였고, 윤집이 삼사에서 의거의 옮고 그름을 평한 것에 대하여 비평을 하였다. 정원은 윤집의 상소로 인하여 양사의 많은 사람들이 면직되었기 때문에 윤집을 시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국왕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정원은 국왕이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함을 설명하였다. 육당의 계신을 보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왕은 이것에 동의하였다. 고리 趙賦, 수찬 李潤 등은 환영받지 못함을 보자 사직을 요구하였다. 국왕 이종은 다수를 단결하기 위해, 말하기를 기왕의 사경이 있어 그렇다고 말하고 또 사직을 요구하니 고금에 어디 이런 공론이 있단 말인가? 자네들은 시비를 중함을 모르니 나를 한심하게 만드는구나!

임금 역시 방벌이 없고, 혀를 뗀 다른 사람은 기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얼마 후 죄명길을 兼知經筵으로 하여 충신지위를 회복시켰고, 척화를 주장하던 趙賦, 洪處厚 등을 “相繼出外”로 임직시켰으니, 이는 국왕 이종의 내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 III.

청파의 화해편에서 출발은, 사절을 파견하여 청이 철기를 이용한 를연 습격을 방지하려는 계획은 조선참판 鄭蘊, 고리 李時暉, 부수찬 李尚衡 등이 반대를 불구하고 병조판서 李聖求가 국서 이외에 쓴 清國汗에게 보내는 "公讞"에 따르게 되었다. 비록 재상들의 의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급작스런 사신 파견에도 불구하고, 청은 "조선이 정령의 한계를 일어버렸고, 두서가 없어, 시비가 불분명하며, 원칙과 예절이 없고, 그리고 담담하여 점차 난망의 길로 나간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적군은 아주 경내에 침입하였으니 조선은 부평초와 같이 바람 부는대로 흔들렸다.<sup>13)</sup> 조선의 韩元帥 金自點은 수중에 병력이 없어, 그저 청병이 서울로 진공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국왕은 이 때야 비로소 松京兵 일천육백명을 도원수에게 주어 지휘하게 하였는데, 아직도 청병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그 때서야 경기내의 예비병을 소집하였다. 조정은 적을 방어하는데 조정의 사람들을 나누어 적을 대항하는 것에 대하여 세자가 반대하므로 방어의 방법에도 의견이 있었다. 당시 청병은 이미 송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 때야 비로소 피난을 준비하였는데, 예방승지 韓興一에게 명하여 종묘사직과 후궁, 후비 등을 먼저 강화도로 가게하였다. 그리고 실기원을 유도 대장으로 기용하였다. 감신일 당일밤, 조선국왕은 어가를 충직였는데 태복사인원들은 모두 헤어져버렸고, 오직 內乘 李星男만이 어가를 따랐다. 어가가 숭례문에 다달았을 때 청병이 이미 良鐵峯에 다달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종은 남대문에 올라, 申景眞에게 명하여 내외에 진을 치게 하였다. 최명길은 청군영에 가서 동정을 살피겠다고 청하였는데, 이종은 청병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청을 향하여 "請成"을 시켰다. 이 두 가지를 지시한 후 남대문을 내려와 水溝門을 나와 南漢山城으로 후퇴하였다. 당시 사정이 긴박하여 시신들은 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걸어서 어가를 따라갔고, 성안은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 혼란을 일으켰다.

초경에 이르러 조선국왕은 남한산성에 다달았다. 이 성은 지키기는

13) <이조실록> 인조권33.

쉽고 공격하기에는 어려운 곳이었으나, 성이 작아 청병을 맞아 오랜 시일 대치하기는 어려웠다. 성과 또한 공고하지 못한 것을 알자 金鑑은 어가를 강화로 옮길 계책을 내었다.<sup>14)</sup> 김유는 "고립된 성에 머물고 있으면 밖에서 구원이 없고, 양식과 물이 궁핍하며, 적의 의사는 명에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와 오래 대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화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종은 왕자, 비빈들이 먼저 강화로 갔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 삼사, 중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軽騎를 준비하여 강화로 풍진하려고 하자 남한산성의 하룻밤은 들끓는 것처럼 되었다. 다음날(율유) "어가는 새벽에 산성을 떠나" 강화로 향했다. 당시 눈보라가 심하여 산길이 미끄러워 말을 타지 않으면 걸기가 어려웠다. 이종이 보니 걸어서 강화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시 남한산성으로 돌아왔다. 양사는 명령을 내려 출진하여 적을 딱도 뚫하였는데, 청병은 도강을 한 후 아무 저항도 받지 않았다. 이는 청병을 깊이 끌어 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적이 혼들리고, 국가의 근본으로 신민이 아픔이 국에 달하였다.<sup>15)</sup>

그러므로 원수, 부원수, 평안병사, 의주부윤 등을 처벌하라고 요구하였다. 실제로 조선의 군사들은 매우 약하였고, 청병은 고의적으로 기습한 것이기 때문에 이종은 고전한 장수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적인 상황을 볼 때 무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종이 강화도로 떠날려고 하였기 때문에 "군병들은 어가가 끝 떠나므로 대궐에 모여서 성을 치킬 것에 대하여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 "적이 성아래까지 다다른 후에 군중의 경황이 흄 흄하며, 수여사 李時白, 사관 金弘都 등이 이종에게 將士들을 庭 중에 소집하여 군령에 복종하게 하여, 전고히 성을 지켜야 한다고" 왕을 일깨웠다. 이 때 최명길은 청군영에서 "왕제와 대신을 인질로 하여 강화회담을 한다고 전해 왔다. 조선의 왕신들은 繢蜂守를 왕제로 칭하고 판서 沈謙을 대신으로 하여 보내자는 대책을 세웠다.

국왕은 최명길이 보내오는 청에 대한 강화의 뜻을 끈이 끊으려 하지 않았다. 김유, 이성구 등은 사태가 점점 급해진다고 생각하여, 국왕이나 태자가 대장십여명 혹은 수십 기로하여 강화도로 가기를 여러 번 권했으나 "내가 난을 모면하여 홀로 살면 무슨 면목으로 여러 사

14) <이조실록> 인조권33.

15) <이조실록> 인조권33.

람들앞에 나타나겠는가”하면서 거절하였다. 동시에 최명길, 尹暉 등을 다시 청군영에 보냈다.

나흘째(병술), 남한산성에 포위된 이종은 명을 내려 각지 근왕 수령을 잡기록하여 일이 지난 뒤 상벌을 준비하며, 도·부원수의 죄를 특사하여 속히 진공하여 공을 세우라고 하였다. 청에 의해 인질로 잡던 가짜 왕제와 대신들은 모두 청에 발견되어 격을 높여 청은 태자를 인질로 할 것을 강화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종은 “성을 둘며 군사들을 위로하고”, 성의 고수를 강조하며 동시에, 팔도의 군과 고통을 나누며 부원수가 구원하는 것으로 포위 상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16)</sup>

닷새째(정해), 이종은 “국사는 다 됐다”라고 하면서 울었고, 김유, 이성구 등도 울면서 “전하는 14년동안 아무 실정도 없으니 절대로 망국지주는 아닙니다. 전일 강도로 후퇴했더라면 이미 도착하였겠는데 신체에 병이 생겨 나갔다가 돌아왔으니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아쉽기 짜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종은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 병이 있어 돌아왔는가? 나는 청병이 이미 이성을 포위하고 있어 만약 도중에 광격당하면 의회로 모욕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기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김유는 지금 사태가 위급하니 훈구 심여명을 이끌고 평복차림으로 동문으로 나가 충원 혹은 영남, 호남으로 피신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말하였다. 국왕은 매우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는 무슨 말인가? 나와 함께 남한산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종족, 백관들인데 그들을 사망지경에 놓고 내자신만을 탈신하여 독주한 단말인가? 설혹 내가 유행으로 산다하여도 무슨 얼굴로 천지간에 살아있겠는가? 김유와 洪瑞鳳은 ‘지금은 사태가 매우 위급하니 부득히 화해를 요청해야 합니다. 적들은 이미 승세를 타고, 또한 우리의 원병이 온다하여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강화는 정묘년보다 더 많은 암박과 굴욕이 있은 후에 강화가 성립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종은 오랜시간을 생각한 뒤 사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라고 말하였다. 비록 이 말은 해야될 말은 아니지만 그저 명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주희론을 주장하던 근신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런 지경에 이르러, 무슨 시간이 있어 명분과 체면을 다루

16) <이조실록> 인조권33.

겠습니까? 우리가 淸主를 보러가면 역시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조 왕제에 대한 예절로 대해서 합니다. 국왕은 말하건대 삼백년이래 성의를 다하여 대국을 섬기었고, 명에서 받은 은혜는 아주깊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의 신민과 칩이 되어야하니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우리 나라의 기강이 문란할 때 다행이도 기개가 있는 현명한 신하들이 있어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여 평화롭게하여 나로 하여금 임금의 자리에 앉게 하고, 오늘까지 이미 실사년이 되었다. 마지막에 짐승과 같은 청주에게 귀복될 줄을 그 누가 예측하였던 말인가? 그러나 제신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겠는가? 내가 천박하고 용렬하고 덕이 없어 오늘의 악운을 불렀다. 대신들이 울면서 이것은 모두 저희들이 더이없이 그렇게 된것이지 전하께서 무슨 실정한 데가 있겠소이까? 라고 말하였다. 이종은 이 패서야 마음속의 말을 하였다. 젊은이들은 기혈이 활성하고 사려가 깊어 과열한 의론을 주장하여 끝내 이번의 화란을 초래하였다.

당시 만약 청조의 사절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화가 왔어도 이렇게 어렵게까지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금과 대신들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깊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종이 말하기를 “이 의논은 정확한 논의이다. 나도 당시 책 화의 의견을 거절하지 못하여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누구를 책망하랴?” 이상의 군신간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화평을 결정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명령이라도 조건없이 따르고, 오직 생명만을 보전할 뿐이지, 통치자의 지위와 대의명분을 더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청이 쳐들어온 것을 청의 통치자들을 탓하게 아니고 조선 삼학사 흥익한, 윤집, 오달재 등의 젊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의론이 정확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종은 중신 흥서풍 등을 보내어 청군 영에 가서 화해를 협의하고, 천일 가짜 왕제와 대신을 보낸 것을 인정하고, 청이 요구하는 세자와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였다. 강화사절을 보낸 후 군신간에 또 한번 회의가 있었다. 김유는 말하기를 국왕의 옥체에 아마 상해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국왕은 말하자 “나는 자살은 참아 못하겠다. 그러나 무슨 밥먹고 물마시고 살아갈 마음이 있겠는가? 설혹 다른 날 산다하여도 무슨 면목으

로 명조의 사람들을 대하고, 무슨 면목으로 선조들을 대하겠느냐? 이 중은 청병이 판교일선에 운집하여 자기가 남으로 후퇴할 길을 막으려 하자, 왕과 함께 있던 東陽尉 申璽聖은 한탄을 하며 강화를 반대하는 예조판서 김상현의 말에 찬동하였다. 이 때 주화파 김유, 흥서풀, 金龜國 張維, 裴明吉, 이성구 등이 국왕과 대화할 것을 요청해왔다. 김유가 말하기를 청이 많은 병력을 증강하여 남한고성의 형세가 이미 급박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릅니다라고 말하였다. 장유는 말하기를 신들은 의견을 말하려 해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국왕은 말하기를 세자를 청에 인질로 보낸 일을 감히 말 못하느냐? 김유는 대답하였다. 인질을 내어 신임을 받는 일은 옛부터 있었습니다. 가령 세자를 적진영에 보내면, 심양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종은 말하자고 대에는 절차를 교환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교환이 아니다. 비록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러는 것이 적합하다면 나는 물론 세자를 과전할것이니 세 대신은 수행하면 된다. 이 때 양사와 講院의 제신은 앞으로 나와 億局의 제신들이 세자를 奢貨로 삼아 끈 청영에 입송하려 하는데 이는 참으로 나라를 망치려는 언론이니 그들의 죄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종은 주화파를 강싸주기 위해 "이것은 종사의 연속과 광대한 백성의 생존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동양위 신익성은 국왕을 만나 대화하면서 누가 전하를 위해 이런 방책을 내어 놓았습니까? 그래 전하는 宋朝의 일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흠풍은 잡하고 뒤이어 휘풍이 생포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왜 보지 못합니까? 지금 君父를 잡아 청영에 보내려는 대신파 국가의 일을 상론하니 멀망하지 않고 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15세부터 선조의 부마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태자를 잡아 적에게 보내는 일에 어찌 차마 보고만 있겠습니까? 신은 마땅히 허리에 찬 검으로 이런 말을 한 자들의 목을 베고, 세자를 보내는 말의 머리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건 대 '제가 한일을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국왕은 표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 자네가 잘못들었네라고 대답하였다.

옛새빼(무자) 되는날, 왕은 김상현, 장유, 윤휘를 億局堂上으로 하고 저항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돌격하다 회생한 선전관에게 표창하고 남문에 나가 백관에게 적에게 대항하라고 강조하였다. 전 참봉 沈光洙는 엎드려 말하기를 한 사람을 참하여 의회를 단절시켜 군심을 바

르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고 둘으니 최명길이라고 답하였다. 국왕은 '너의 뜻은 이미 알았다.'라고 말하였다. 이 때 최명길은 왕의 곁에 있었는데 이를 듣고 피하였다. 국왕은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익이 부족해서 악운을 만나 능욕을 당했고, 경묘지번이 발생했다. 힘에 못이겨 화해를 허락하여 치욕을 감수함은 정말 부득이한 노릇인데 마음이 매우 불편하기 짜이없다. 이번 적의 괴수가 황계를 참호하여, 우리 나라를 멀시 모욕하기에 내가 천하의 대의를 위해 그 사절을 거부한 것이니 이것이 화란이 생긴 원인이다. 지금은 군신상하가 같이 성을 지키야 할 뿐, 화의는 이미 끌렸다. 싸움할 뿐이다. 싸워 이겨야만 살고 싸워서 지면 모두 망하니 오직 죽음속에서 삶을 구하고 위급에서 편안을 찾고 모든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 용감히 적을 대해야 한다. 그러면 적들은 고군이 되어 강한 것이 약하게 변하고 사방의 원군들이 계속도울 것이니 만약 하늘이 정의를 도운다면 전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후, 한 겨울 밤낮 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격려하고 공에 의해 삶을 주었는데 상품으로는 内酒房의 銀器를 하사하였다.

계칠일(기축), 국왕은 친히 성을 순시하면서 성내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해주고 賤人을 면해 주면서 민심을 얻었다. 납서를 도부원수와 제도의 김병사들에게 보내어 밤낮을 가리지 말고 달려와서 군부의 위급을 구하도록 명령하였다. 청군이 남한산성가까이 진격해오자 조선의 군사들은 화포를 쏘아 풀리쳤다. 국왕이 친히 성에 올라 장병을 위문하며 전사자는 그의 자손을 등용케 하였다.

팔일제(경인), 청의 사신 세 사람이 성밖에 도착하였다. 김유는 최명길을 보내자고 하였으나 국왕은 명길이 청군영에 가면 모욕을 당한다고 하면서 김진국과 이경직을 가도록 하였다. 김유는 후방에서 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였는데, 胡差가 말하기를 "대신들이 돌아가서 아무 소식이 없고, 清汗은 이미 松京에 이르러 이 후 양국의 생령들을 위해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였다. 이런 위험에 대하여 국왕은 청사신을 데려 보내고 금서를 도·부원수에게 보내어 군졸을 보내어 구원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각도에 병을 모집하여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구일제(신묘), 충청도 원병이 왔는데 그저 獻陵내에서 불화살로 살을 할 뿐이었다. 당일 청의 사자 馬夫達이 성밖에 도착했을 때 김유는

김진국 이경석 등에게 가서 무슨일인가 물어 보라고 하였는데, 김반, 조익수 등 주전파들은 재상 가지 말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국왕은 의연히 사절을 파견하여 담판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런 상황下에서 지중추부사 沈悅이 상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듣건데 호차가 성밖에 와서 또 화의를 말한다는데 그의 성의는 어떠할지 모르나 교전 중이라도 사절의 황래는 있어야하는 법이다. 지금 적합하고 믿을 반한 사람을 파견하여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한다. 즉 처음에 양국 생령들을 위하여 왕자대신을 인질로 하여 화의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반복하여 동궁을 인질로 하거자 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를 못한다. 그러므로 삼군상하는 죽을 결심을 하고 다시는 화의를 생각지 않을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데 만약 성실으로 화의를 하려면 군대를 경기밖까지 후퇴시켜야 한다. 그러면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함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서 적세를 탐지해 보자! 이것도 용병을 하는 한 방법이다. 근일 아군은 자원출전하여 개별적으로 적을 소탕하여 조정은 이를 표창 장려하는데, 아마 이러면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병가와 일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듣자하니 적의 병력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의 소원 역시 화의만 시작하면 후회할 것이다. 그렇지만 산성이 오래 포위당해 있고 외부의 지원이 없으며, 청군이 중병을 하고, 성중의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가 군부를 모시고 고성에서 모험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어떻게 화를 진화할 생각은 많고 존망의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하는가. 주전파인 대사간 김반은 이전의 듣자 지금은 은혜를 갚기 위해 분발을 해야 할 때 감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그 상소를 쫓아버리고 그를 쫓아버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국왕은 모든 것을 통의하지 않고 그저 그의 상소를 정원에 보내어 태워버리라고 하였다.

십일째(임신), 왕은 김유를 불러 “오늘은 용당히 그들과 결전을 한 번해야 한다” 김유는 결전이 어렵다고 표시하였다. 국왕은 각 영에 명을 내려 “식사 후에 출전하라고 하여라. 우리의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다. 심열은 오늘 화의할 가능성성이 없었음을 몰랐단 말인가! 우리가 최답에 말을 많이 한 것은 지레 겁을 먹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때는 주전파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리 윤집을 대표로 하여 삼사는 함께 모여 주화과 침수를 요구하였다.<sup>17)</sup> 주전파 내부

의 대사간 김반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극력 반대를 하여 삼사의 안을 정치시켰는데, 이후의 좌근을 물었다. 이 때 백성이 조직한 힘을 보고 친히 대청으로와 自募軍에게 상을 주었다.

십일일제(계사), 국왕은 작은 가마를 타고 성내를 순시하며 정청에서 군사를 위로하고 차도군이 출전하여 죽이는 것을 장려하였으며, 노획한 물건을 본안들에게 주라고 하였다.

십이일제(갑오), 국왕은 남한산성에서 신하들을 대리고 聖節의 望闕禮를 진행하였다. 이 때는 성이 포위된지 오래여서 진상하는 물건들이 모자랐으나 국왕은 출전할 사백여 장사들에게 친히 음식으로 위로하였는데, 이들은 철방 백여명을 살상하였다. 당시 날씨가 추웠고 비와 눈이 내려 밖에서 과수를 보는 관병이 매우 어려웠다. 왕은 후원에서 날이 개어기를 기원하면서 웃자락이 젓는 것도 개의치 않고 중신 김상현을 성황묘에 보내어 날이 개도록 기도하게 하였다. 위험한 국면에 이르러 김유는 밤에 결사자를 모집하여 포위를 뚫고 나가 충청병사에게 형세를 알리자고 하였다. 김반은 한쪽으로는 출병을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전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도로 이루어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종은 매우 조심하여 “평지에 내려가 큰 전을 치는 것은 만천지책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

제십삼일제(을미), 고성이 포위된지 십여일이 지났는데 각도의 근왕사들은 청병에게 저지를 당하여, 단지 성황묘에서 온조신우를 벌고, 성안에서는 마른 말을 잡아 군을 위로하였다. 사영대장 신경진, 구홍원, 두표, 이시백 등은 적을 소탕할 계획을 상의하였는데 우선 병줄을 쉬게하고, 적이 쳐올라올 때 기다려 습격하거나 밖에서 응원이 오면 협공하는 전법을 정했다.

십사일제(병신), 이날은 날씨가 추워 군사들은 출전하지 못하였고, 밖의 원군들은 도착하지 못하였다. 홍서풍은 성중에 있는 것은 “士心之不沮”이니 퇴병을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김유, 김진국, 장유는 적경을 분석하여 생각할 때 청군은 “이 유없이 퇴병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먼저 사자를 파견하면 그들이 비록 귀심은 있으나 반드시 중지한다, 처음에는 고성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고 했고, 지금은 산성의 형세가 암공이 어려우므로 그저

우리가 망하기를 기다리거나, 위협하여 화해를 한 후 돌아간다.”라고 말하였다. 군신은 사신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강화의 뜻은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벌써 백성과 병사들은 성을 고수할 역량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 營將 罷井吉이 병력을 인솔하여 구원와서 겹 단산에서 횃불로 신호를 보냈는데 말지않아 청병의 습격을 받아 구원에 실패하고 말았다. 산성을 고수하던 십오일에 국왕은 小臣 李翼男을 시켜 청영에 소와 술을 보내었다.

대사간 김반, 승지 崔衍 등은 사절을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삼 학사인 교리 윤집은 상소를 하여 외회주장자들을 참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국왕은 채납하지 않았다.

이기남은 소 두마리, 폐지 세마리, 술 열병을 가지고 청영에 갔으나 청군은 받지 않고 말하기를 “黃天은 우리에게 동방을 주었으니 팔도의 주유 등 모든 풀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국왕은 石穴에 있어 내외가 서로 통하지 못하고, 신하이하는 배를 굽추리지 않는 자가 없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는가? 자네는 가지고 가서 굽추리는 신민을 주라!” 또 말하기를 “어디에서인가 원병이 왔는데 우리는 삼천을 무찔렀고, 또 어디에서는 이천명을 무찔렀다. 황제는 이미 나왔는데 너희들은 들지를 못하였는가” 이기남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 왔는데 청장의 언사가 조선의 상황에 적중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황계도 “지금은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날이니 나의 밭상을 후하게 준비하지 말며 날뛰 등을 진상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때 公清 감사 鄭世楨가 병사를 인솔하고 겹천에 이르러 산을 의지하여 진을 쳤는데, 적의 습격을 받아 전군이 전멸하고 세규자신만이 단신으로 빠져 나왔다. 청군은 조선의 원군을 또 격파하였다.

십육일(무술), 이조판서 최명길은 국사가 여기에 이르러 복원할 수가 없으니 사신을 파견하여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위 許門은 汗이 우리와 형제의 의가 있으니 서로 모른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또한 雜軍深入은 병가에서 끼리는 일이다. 그들의 화해욕망은 우리보다 간절한 것이니 화의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였다. 군신은 또 사신을 파견하고 화의의 성사여부 대책을 결정하였는데, 국왕은 화의를 회망하면서 한편으로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때 날병사 徐佑中 등이 남한산성으로 들어왔고, 선전관 閔震益이 포위망을 뚫고 산성을 출입하며 명령을 전달하여 내외가 통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왕의 저항태도에 큰 힘이 되었다. 留都大將 沈器遠이 270명으로 청병 5, 6백을 저항했다는 소식은 산성을 고무시켰다.

산성이 포위당한 심칠일째(기해), 김유는 마침내 병사를 이끌고 북문 밖으로 나가 평지에 진을 치고 청군과 대진을 하게 되었다. 해결 무렵 성위에서 철군하라는 명령을 듣고 철군하다가 청군이 뜻밖에 습격하여 사상이 매우 많았다.<sup>18)</sup> 조선의 군신들은 병가의 승패를 논하는 자리에서 청영에 사신을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丙巖植 실년(정축), 조선 인조 십오년 정월 초 하루(신축), 남한산성이 포위당한지 벌써 십구일째, 이종은 백관을 거느리고 望闕禮를 했다. 황태극은 계군을 모아 峴川에 진을 치고, 張黃率에 올라 남한산성동쪽의 月峰과 성안을 내려다 보았다.<sup>19)</sup> 조선은 魏山寶를 시켜 술을 가지고 청영에 가서 설 인사를 시켰는데 청에서 거절하였다. 산성이 포위된지 이십일(임인), 조선에서는 최명길과 김상현은 사신을 파견하는 문제를 가지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 최명길은 篾櫓를 본 받아 먼저 국가를 보존하고 와신상담을 할 것을 역설했으나 청제의 諺論을 받고 돌아왔다. 皇太極은 고유 중에 조선의 팔otto를 질책하고 고난과 재화를 자초하는데, 만약 귀순할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겁게 대하라고 말하였다. 회답여부에 대하여 최명길, 김유 등은 회답을 안 할 수 없다고 하고, 김상현은 회답의 형식은 가볍게 의논을 못한다고 하였다. 국왕은 위급존망의 때에 회답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회신은 장유, 최명길, 이식 등이 작성하고 명령을 내려 승지와 사관마저도 보지를 못하게 하였다. 비록 동양의 신의성이 지적하기를 우리는 포위를 당했지만 지리의 이점이 있고, 土心이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 원군들은 도여들 것이다. 마땅히 놀들의 서신을 불태워버리고 참호하라는 적에게 굽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국왕은 외연히 흥서풀 등을 파견하여 국서를 大清寛溫仁聖皇帝에게 받치며 신이라고 칭하였다. 이것은 산성이 포위당한지 이십일 일째(기묘)의 일이다. 이국서는 "밀이 아주 중요하므로 감히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고, 처음으로 타식을 했다(타식이란 신이라고 칭하는 말이다)." 서신 중에는 조선 스스로가 인정하여 "小邦 신민은 쇡간이

18) <이조실록> 인조권33.

19) <이조실록> 인조권34.

짧고, 천박하여 명의를 잘못지켰으며, 소방은 지난날 잘못을 알고 있는데, 죄가 있으면 토벌하고, 죄를 알면 용서하는 것이 대국 넓고 높은 천심으로 만물을 감싸는 것이 근본인 줄 안다.<sup>20)</sup> 만약 대국이 용서를 하지 않고 기어코 병력으로 대한다면 소방은 앉아서 죽을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sup>21)</sup> 어찌할바를 모르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 국서는 칭신청제를 하였으나 삼사의 반대로 청국의 낸호는 쓰지 않았다. 불교 李之桓, 태교 金弘福, 설서 俞계가 말하기를 "비록 오늘날 담서에서 칭신이 필요하고, 칭신하고 난 후 만나면 반드시 淸城으로 갈 것이라고"<sup>22)</sup> 지적하였다. 지환은 지적하기를 "지금 조정에서 세자를 보낼 말을 하면, 내일은 기필코 전하를 출성케 하리라"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국왕은 방언이라고 여겼지만 불행이도 후에 모두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었다.

산성이 포위된지 이십이일째(감신), 김상현은 주장하건데 군신상하는 굳게 싸워지킬 것을 준비하자고 주장하였고, 김유는 시간이 긴박하고, 위험하다고 강조하여 투항하려는 사람들과 철예하게 대립하였다. 이 때 李命雄, 교리 윤집, 정언 鍾彦, 수찬 李尚衡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어제 사절을 파견하여 화의를 빌었는데 역시 동의를 하지않으니, 오직 싸워야 하지 않는가! 지금의 방책이란 오직 성을 지켜야만 한다. 무슨 일이든지 양립하지는 못한다. 죄명길의 죄를 정치하여 군실을 진정시키도록"라고 건의를 하였다. 이종은 생각전대 "남문이 위급할 때 이판이 선두에 나서 적의 예봉을 쳐었으니 나라를 뒤흔든 성의가 확하구나! 지금 여러 재상은 모두 그를 업신여겨 단지 명길의 죄만을 징계하려 한다면, 역시 원통하지 않은가". 윤집은 짐증분석하여 말하였다. "오늘의 일은 모두 명길의 죄입니다. 사신을 보내어 모욕을 당하고 담서에 급급하였지만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그가 쓴 담서는 넓은 여론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만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사와 여러 대신들은 비겁한 자들 몹시 두려워하여 쓸데없이 보신 체만을 내어 聖命이 무엇에 따라야 할지를 물었는데, 명길이 주화를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만회하기 힘들고, 싸움을 말할 때는 지키는 자들의 택을 못추게 하고, 시세를 말하면 반드시 적들의

20) <이조실록> 인조권34.

21) <이조실록> 인조권34.

22) <이조실록> 인조권34.

사기를 듣고 이 죄는 자기도 역시 어렵다고 말을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조선 국왕은 이것은 무슨 말인가. 정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명옹이 말하기를 “죄명길은 처음에는 나라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직에 공격이 남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화전이 양립이 되지 않고 그 죄를 요구할 때 이종은 말하기를 그가 이번에 청에 가서 모욕을 당했지만, 국세에 대하여 죄명길은 확실히 일반 사람을 초과하는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에 죄를 씌울 수 없으니 자네들은 물러가서 생각해 보라. 이종이 말한 일반 사람을 초과한다는 것은 죄명길이 자기 의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가르키는데, 즉 조선과 청의 역량대비를 청이 먼거리를 달려와 습격포위한 힘을 고려한 것이다. 이종은 전통적인 ‘존왕양이’의 예의적 교육을 받아와서 그의 사상속에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저항을 하였기 때문에, 청의 정통을 순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 신하중의 척화과 특히 삼학사의 사상과 통하는 네가 있어 참호사신과 회견을 거부하며 남한산성을 고수하고, 각도 병민을 동원하여 청의 침략에 대항하는 표현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왕의 사상은 타협과 주화에 기울어 있었는데 그 목적은 강산과 사직의 유지였다. 그러므로 혐어사, 기병군 유백이 상소하여 척화과를 공격하였는데 오랫동안 재상자리에 있었던 윤방, 김류를 공격함으로 면직을 당했다.

산성이 포위된지 23일(음사)부터 26일(무신)까지 조선 각도의 원병을 계속 구원해 왔는데 간혹 철보도 있었지만, 다수의 경우에는 청병에게 기습당하여 패배했다. 이런 상황하에 국왕은 성을 고수하는 것은 지구전의 계책이라고 하였는데, 김류, 홍서풍은 지킬 수도 있고, 외부의 원군을 기다리며 동시에 사자를 보내는 길도 끊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산성이 포위된지 27일(음유)부터 29일(계축)까지 상층은 들로 나뉘어 사신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는 일을 가지고 정론을 벌였는데, 통역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방법을 정하고, 홍서풍, 죄명길, 윤휘를 과연하여 평화를 벌었는데 돌아와서는 화의가 성공할 것이라고 풍문을 띠놓았다. 국왕은 얼마후 죄명길이 제출한 “조정은 화해를 추진하고, 장병은 성을 지키고, 밖에서는 원병이 전투를 하는 세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건의하였다.

그러나 청군은 산성이 포위된 32일(병진)째 되는 날 성에 초황이라 는 두 글자의 큰 깃발을 보였는데 이는 반드시 新語 즉 새로운 태도 가 있어야 함을 표명하는 뜻으로, 산성이 포위된 23일(정사) 때의 “대 청국관인성황초유조선국왕” 수중에 제출 “이국진입관도”의 문제에 있어서 조선이 귀명과 항쟁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요구하였는데 역시 산성고수에 대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엿보게 하였다. 조선의 회신은 승명을 표시하였는데 그 상충 두 과는 칭신여부에 대해 또 논쟁이 벌어졌다. 청제는 조선의 답서를 받은 후 또 서신 쪽에 말하기를 산성은 “진공하면 물론 점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양식과 병마가 결핍하니 너희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여 점령할 수 있다. 또 표시하기를 “만약 충성을 하면 귀명하면 먼저 수모 스물셋을 묶어 보내라. 그러면 짐은 목을 베여 걸어 후인을 경고하련다. 짐의 西征을 잘못되게 하고 생령을 고난 속에 빠지게 함은 그놈들이 아니고 누구 관할이니” 척화의 신을 묶어서 보내는데 대해 조선국왕은 참아 그럴 수 없다고 표시하여 그 사상의 공통점을 표명했다. 산성이 포위된지 37일(신유)에 이르러서 국왕은 상서에서 명화이 칭신하며 충성과 척화자신을 묶어 보내는데 대하여 황제 폐하가 판대한 태도를 취할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청의 조정은 황제가 이미 나왔으니 조선 국왕이 출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종은 “출성을 유흥하는 것은 잡아서 복으로 보내려 함이 틀림없으니, 답서를 않기로 하자”라고 했다. 최명길은 “만약 청이 항복하라고 하면서 태자를 출성시키라면 어떻겠는가”고 물었다. 홍위가 말하기를 “태자는 아직 모친상이 끝나지 않았고, 중병으로 출성을 못한다고 하면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척화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김유는 “만약에 스스로 나가면 좋고, 처치는 일의대로 하라고 하자”라고 하였고, 최명길은 걸으로 아는체하며 익한과 한 침안인데, 만약 명령이 있으면 어떻게 피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홍위는 지금 묶어서 보내며 포위망을 풀면 인연을 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포위를 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니 묶어 보낸다는 것을 어찌 참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성구와 김유는 척화자신을 묶어 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절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왕은 참으로 참혹한 일이다. 날씨가 너무 차니 모두들 잠시 휴식하고 국가와 종묘사직을 위하여 태자를 출성하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조참판 정팔

은 말했다. 죄명같이 칭신하여 초래한 일로 저는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국왕이 출성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하여 저는 자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들건데 그들은 척화지신을 잡는 데에 애를 쓴다고 하는데 비록 제가 처음 참사문서를 주장한자는 아니지만 시종 주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죽어서 조금이라도 존망에 유익하다면 어찌 몸을 아껴 군부를 위해 죽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오니 조정은 빨리 저를 보내어 농률의 요구를 만족시키십시오. 이에 대해 조선군신들은 할 말이 없었다. 조선의 남한산성 내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청군과는 교착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 때 강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겨 조선과 청조의 교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원래 청은 多爾袞 원수로 하여 병을 나누어 강도를 공격하기로 하였는데, 돌연한 습격으로 방어선을 뚫고 성을 포위하였다. 다이곤이 강도성을 할딱하자면 매우 쉬운 일인데, 청제가 명을 내려 진공을 잠시 정지하고 있었는데, 외나하면 조선의 강화요구에 동의를 했으니 속히 사람을 보내어 담판하자고 하였다. 대군 한홍일이 말하기를 “그들의 말은 믿지 못한다. 허나 담판의 일은 이미 들은바 있으니 사람을 파견하여 보자.”라고 말하였다. 사람을 적진에 파견하니 청군은 대신을 파견해야 된다고 하여 대군 해창군 윤방에게 가게 하였다. 그가 가마를 타고 청영에 가서 말하기를 “나는 늙고 병들어서 곧 죽게 되어 절을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청병들은 칼을 빼어들고 위협하였는데 다이곤이 계지하였다. 그리고 쌍방의 강화가 곧 성공할테니 대군과 만나자고 하였다. 돌아가서 대군에게 회보를 하니 대군은 속이는 줄을 알면서도 남한산성의 곤경을 고려하고 더욱이 들헌대 태자가 출성하여 철령에 간다고 하니 만약 철령에 가서 남한산성 군부의 곤경을 해결한다면 내 개인이 화생을 하여도 아쉽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군은 서슴치 않고 청군 전문까지 나갔다. 다이곤은 통역보고 인도하여 들어오게 하여 예으로 대하였다. 그날밤 대군은 다이곤과 함께 말을 타고 입성하여는데, 병들은 성밖에 머물게 하였는데, 피아가 동서로 나뉘고 잘히었던 선비와 여인들을 돌려주었다. 외면상으로는 평등하고 화목했지만 실제로는 다이곤의 계략으로 강도는 점령이 되고 만 것이다. 다이곤은 대군에게 국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게 하였는데, 이로써 사실상 대군과 후비 등은 청군의 포로가되어 인질이된 것을 알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바로 국왕과 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하고, 대군이

맹목적인 회생정신이 지기가 뛰어난 다이곤에게 이용당하여 국왕이 계속하여 남한산성을 고수하는 일을 와해시켜 버렸다.

산성이 포위된지 삼십구일(계해)째, 대자가 청영에 간 영향으로 조선의 신하들은 자신을 척화파의 사람으로 스스로 분류하여 청영에 간 것을 요구하며 나섰다. 산성에 있던 전 교리 윤집, 전 수찬 오달계는 국왕에게 상소하여 “저희들은 조정에서 척화인들은 스스로 차수하여 청영에 가라는 명을 내렸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군부의 위급을 구할 수 있다면 조정에 있는 계신은 그 누가 나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작년(병자)에 상소하여 죄명길의 주화를 비평했는데 척화자들의 선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영에 가서 칼을 받고 죽어 교활한 적의 입을 막을 것을 요청합니다. 집에서 듣자하니 조정의 뜻은 저희들로 하여금 짐승같은 놈들에게 사죄를 시키려 하는데 조정의 뜻은 왜 이러 무정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죄할 죄도 없거니와 봉명할 신들도 아닌데 어찌 놈들의 요구에 용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상 삼학사 중 두 분의 말은 실로 義正辭嚴하며 회생을 무릅쓰는 정신이 슬프고 통절하였다. 우윤 김대억은 상소를 하여 諫臣을 둘어 보낸다는 논의를 정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왕도 조정에서 하는 일이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들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상이 청영에 보낸 국서 중 “척화제신들의 일은 앞글에서 이미 간단히 이야기한바대로, 이자들은 감이 활당한 말을 많이하여 양국의 대체를 잡 못되게 하였음으로 폐하가 저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소방의 군신들도 모두 분개하니 큰 도끼로 죽이는 것이 아쉬울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사관들은 이 국서의 작자는 죄명길이라고 지적하며 자신들도 많은 견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侍講院 說書 유계의 상소에는 조경의 계신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알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양전지회하여 각 시안에 척화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테서 즐실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몇점을 지적하였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1. 주화파는 오래전부터 혐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으며, 일시에 명인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2. 표면으로는 우는 형태를 보이나 안으로는 입금을 버리고 자신을

보존하려는 마음을 품었고, 태자를 험박하여 여러 호랑이 입을  
막으려 하였다.

3. 출성사죄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잡아보내는 공책을 노렸다.
4. 한편으로는 전일의 사감을 잡으면 한편으로 후일의 언로를 막았다.
5. 네문으로 나누어 국왕으로 하여금 사복을 입고 백성을 함께  
섞여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의견.

당연히 말을 해야할 것은 이상의 관점 중에 몇 개의 관점은 실제와  
가까웠다. 그게 정도의 파장이 있었으며 마지막의 국왕이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 이외에는 주화파의 “과인자전”을 자책  
하였다. 즉 조선과 청간의 역량대비는 실제로 차이가 현저하여 실제  
의 태도를 취했고, 그 중 척화파, 청년학자들의 과격한 언사에 대한  
적대시와 학식하정의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왕과 청년들, 예컨  
대 삼학사 등은 모두 군신 상하관계에 친밀한 관계가 있으며 사실상  
서로 통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국왕과 주화파는 더욱 친밀했는데,  
그 원로 중선들은 국왕의 반정공신으로 그들의 관점은 더 쉽게 국  
왕이 사작을 보존하고자 하려는 사리에 받아 들여졌다. 이 후 이를간  
청병들은 무단히 산성을 포격하였고, 또한 군사들이 성가까이 진격해  
와 강한 압력을 가하였다. 조선에서는 태자가 성을 나가 화의를 하자  
고 해도 청은 거절을 하고, 국왕이 친히 나오기를 요구하였다. 이 때  
가 산성이 포위된지 벌써 사십이일이 되었다. 이 날 강도에서 실수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윤방, 한홍일은 서신을 들어보고 진위를 판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군의 手書, 빙궁, 채상들의 가족들이 청영에 떨어  
진 것은 의심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주화파가 책동한 어영군병이 성  
에서 내려와 규문밖에 모여 척화파를 청영에 보내라고 요구한다는 보  
고가 들어오자 국왕은 “자부가 모두 잡히고 백관의 가출들이 연루를  
받아 복으로 가야” 하는 국민에 다달아 마침내 출성하여 항복하고 말  
았다. 산성이 포위된지 사십사일(무진)만에 청은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였다. 청과 조선은 군신관계를 맺고, 명의 연호를 폐지  
하고 청의 정식을 따르며 왕의 장자와 또 하나의 아들과 제 대신들은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아들이 없는 자는 동생을 인질로 하고, 명  
을 징벌할 때는 군사를 동원하고 절, 경, 조의 예는 옛 명의 방법대로

하고, 내외 계신은 혼인을 통하여 화모글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은 쌓지말고 구성은 수리를 하지말며, 세례를 반드시 현상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삼전포에 단을 빙아 참복의 예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큰변을 당하여 조선 참관 정암, 예조판서 김상현 등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는데, 사관들은 강상절의는 이투삼들에 의해 부식돼었다고 평하였다.

산성이 포위된지 사십오일째(경월기사)에 조선은 혁명길, 이영달을 파견하여 국서를 청양에 보내며 칙화파의 윤집, 오달제를 보냈다. 국왕은 윤집 등을 접견하며 자네들의 전식은 알지만 이번 사태를 물어보면 때, 본래 국가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 하나 오늘날 이런 경지까지 이르렀으니 정말 고금 천하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윤집은 지금에 이르러 나라를 위한다면 한번 죽어도 아쉽지 않으므로 천하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그러실 것이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국왕은 자네들은 나를 임금으로 삼고 고성에 들어올 때부터 사정은 이런 경지에 다달았으니 나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했다. 달계는 말하기를 저는 벌써 자진을 하려고 하였는데 오늘 적합한 죽음을 얻었으니 어떠한 유감이 있겠습니까? 국왕은 고급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면서 목이 베여 말을 잊지 못하였다. 달계는 신하들의 생사는 관계없지만, 천하의 출성은 매우 부당하다고 여기며 신하로서 이럴 때 죽지 않고 또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국왕은 감동하여 말하기를 자네들의 뜻은 임금으로 하여금 정의를 주지해 주고자 하는데 지금 사정이 이 경지에 이르렀다. 자네들은 부모와 처자가 있는가. 윤집은 저는 아들이 셋 있는데 모두 남양으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오달계는 칠심노모 한 분이 계시고 처가 임신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참혹하기가 끝이 없구나! 참혹하기가 끝이 없구나!라고 국왕은 연신 말하였다. 윤집은 신들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하에서 세자와 함께 성을 나가시면 성의 환란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천하에서 세자를 산성에 남겨두시고 함께 나가지 마십시오. 국왕은 감개하여 말하였다. 달장 죽을 곳으로 가면서 나라를 근심하는 말을 하는구나. 자네들이 죄없이 가서 죽을 것을 생각니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으니 또 뭐라고 말 하겠느냐. 내가 성을 나간 후 나라의 존망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나라를 보전하면 자네들의 노인들과 처자들을 꼭 보살피겠다. 노인들

의 연세는 얼마나 되었는가. 달제는 저의 어머님은 무진생이시고 저는 무신생입니다라고 답했고, 윤집은 저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였고 그저 칠십칠세의 조모가 계십니다. 저는 정미생입니다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함께 글이 엎드리어 작별하였다. 국왕은 자리에 앉게하고 내관에 술을 따라 주도록 하였다. 이 때 승지가 사신이 출문하기를 재촉한다고 하였다. 왜 이렇게 재촉하는가라고 했다. 두 신은 다 마신 후 날이 저물었으니 저희들을 나가도록 허락하십시오라고 청하였다. 국왕은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신중하라,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그 기쁨은 어떻하겠는가. 달제는 나라를 위해서 죽으니 조금도 한이 없을니다하고 의연하게 대답하였다.

## IV.

우리가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삼학사 흥익한, 윤집, 오달제와 국왕의 군신관계가 비교적 좋다는 것이다. 즉 국왕은 신하를 도울 수 있고 신하는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의연히 죽음의 길로 갔다. 만약 그들사이에 사상의 일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감동과 애석한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당시의 사직들이 알리는 것에 의한다면 오달제는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오달제 후손들은 그가 장렬하게 희생을 한 후 출생한 유복자의 자손들이 번성한 것으로 더욱 용의치 않았을 것이다.

이 글은 360년전 병자호란 중 조선 삼학사와 조선 국왕간에 국난 중의 관계와 행동에 보인사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평술하였는데, 국왕이 보위를 유지할파 조선 삼학사 윤집, 오달제, 흥익한 등과 그이 치지자 김상현, 정관 등의 “삼한산두”의 승고한 정신과 높고 큰 영웅정신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친지하게 막을 기렸다. 사람들은 교육을 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동시에, 강권침략을 반대하는 고상한 정조는 본 받아야 할 것이다.

## 「三學士 思想과 仁祖와의 갈등」에 대한 논평

신호옹(관동대학교)

본 논문을 읽고 토론자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삼학사의 사상과 인조와의 갈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인조대 사상계의 특징과 삼학사의 학문적 성향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화파와 주화파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6세기 말 7년에 친친 임진왜란은 당시의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의 맹주었던 명나라는 전란으로 인한 국력소모와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내부적 불과의 제요인에 의해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기존의 구도를 혼들어 놓고 결국 만주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여진족의 발흥을 초래하였다. 즉장 누르하치를 구심점으로 1616년 나라 이름을 滅金이라 하여 中原을 넘보게 되었다. 후금은 명의 변경을 점차로 함락시키 撫順→瀋陽→錦州→山海關에까지 진출하였다. 광해군의 북인정권은 時勢에 따라 向背를 달리하고 관망하는 실리외교를 펼지만, 1623년 仁祖反正에 의해 새로 수립된 신정부는 북인정권과는 본질적인 차이성을 보였다.

인조대의 사상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리명분론의 강화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예학·예론과 대명의리론으로 나타났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광해군의 废母殺弟와 후금파의 화친정책이라는 두 가지였다. 동아시아 중세제제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天子를 그 정점에 두고 중국 주변의 국가는 중국에 朝貢을 바치는 상하관계적 질서이며, 국내적으로는 다시 각 국왕을 정점에 두는 가부장적 상하 질서를 갖는 것이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 특히 폐모는 그 명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대내적으로 명분을 강조하는 한 대외관계에서도 명분파 의리를 중시하여야 한다.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인조 초 순정 주자학도로 자리하던 葉谷 李珥의 학통을 계승한 西人파 退渓 李滉系의 南인이 연합한 연립정권은 中華인 明에 대한 韓國의 의리와 임진왜란 때의 '再造之功'을 들어 親明을 분명히 하고 북방 오랑캐로 격하 하던 여진에 대한 拜金政策의 가치를 선명히 하였다.

1627년 (인조5) 정묘호란으로 '형제의 義'를 요구하였으나, 1636년 (인조14)에는 君臣의 관계를 맷을 것을 강요하고·나라이름을 清이라 하고 스스로 황제임을 천명하자 서인 주도의 순정성리학자들로 구성된 정부로서는 夷狄인 여진족에게 형제의 의리도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겨졌는데, 이에 대하여 군신의 의리란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에 조선 정부는 하늘에는 “해가 둘이 없다(天無二日)”는 명분으로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 방약무인한 작태를 매도하여 主戰論이 팽배하게 되었다. 청나라의 국서를 들려보내고 사신을 잡아 가두고 전국 8도에 宣戰의 教書를 내리니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와 표명이었다.

홍익한, 윤집, 오달재의 세 사람을 삼학사라 일컫게 된 것은 1647년 송시열이 '三學士傳'을 지은 후부터이다. 병자호란 당시에 홍익한은 52세 장년이었고, 윤집은 32세, 오달재는 29였다. 홍익한은 윤집·오달재와 행동을 함께한 것은 아니었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인식하에 한데 묶은 것이다. 이들은 병자호란 당시 모두 言官職에 있었다. 이들은 言官의 직책에 있으면서 당시 지식인 士林 사회의 이론이라 할 公論을 대변하였다.

홍익한은 이경구의 제자로 기호학파이며 당색은 서인이었고, 윤집은 김상현의 조카사위로 역시 기호학파인 서인이며, 오달재는 粟谷·牛溪 문하에서 배운 오윤겸에게서 배웠으니 역시 기호학파로 서인이다. 다시 말하면 서인은 두 거봉인 李珥와 成渾의 계전제자인 셈이다.

세사람 모두 小科에서 生員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설리학적인 교양을 체질화시킨 학자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조반정 후에 벼슬길을 시작하여 유효성을 두루거쳐 병자호란 당시에는 사헌부 장령 혹은 홍문관 교리·修撰 등 言官職의 핵심에 있었기에 당시의 公論인 斥和論에 입장서서 土論을 대변하기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다.

가령 1636년 2월 후금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그 國書에서 나라이름을 清이라 하고 스스로 皇帝를 칭하고 조선에게 형제의 의리가 아닌 군신의 의리를 강요하는 뜻을 전해 왔을 때 당시 사헌부 장령의 직책에 있던 홍익한은 公論을 대신하여 상소를 올려 후금의 사신을 목 뱉 것을 주장하고 稟帝의 참람함을 지적하고 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지 못하고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하였다. 남한산성이 포위된 12월 14일부터 다음해 1월까지 50여일 동안 언관직을 주로 한 사람은 윤집과 오달제였다. 남한산성에 들어와서 主和人을 성토하는 언론은 數理의 직책에 있던 윤집이 주도하였고, 오달제는 삼학사 중 가장 젊은 청년으로서 강경한 책사론을 썼다.

남한산성이 포위된 지 50여 일 뒤 강화도가 함락되어 元孫과 世子 隆, 두 왕자 및 列聖朝의 御寶가 적의 손에 넘어 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성내에 전해지고, 포위 당한 산성에는 적은 병력에다 식량도 얼마 없고 추위 또한 심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主和論이 主戰論을 압도하고 인조의 치지를 얻은 주화론자들이 和號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최명길이 全權大臣으로 청진에 파견되어 강화의 조건을 논의하고 정월 30일 三田渡에 나아가 清太宗에게 무릎꿇고 '誠下의 諂'를 맷음으로써 일방적 굴복을 간수하였다.

지금도 학계에서는 주화론과 척화론을 끌어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국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親明拜金政策이라는 경직된 외교 정책을 취해 스스로 전쟁을 자초했다는 주장과 광해군대와 인조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화정책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청이 쳐들어 왔을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또한 척화론을 조선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를 거부하는 논리로서 문화적 자부심에 기초한 조선의 주체적 내용으로 보는 입장과 중원의 배자인 청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주화론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으며, 물적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척화는 일반민의 삶과는 꾀리되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주화론이나 척화론이나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반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여겨진다. 名分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무고한 백성들은 전쟁을 원했을까 하는 문제이다.



# 常道와 權變의 生存哲學

발표 : 지교현(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논평 : 오석원(성균관대학교)



## 常道와 權變의 生存哲學 —丙子胡亂을 中心으로—

지교현(한국정신문화연구원)

- I. 國家의 保全과 丙子胡亂
- II. 常道와 守誠
- III. 權變과 講和
- IV. 常道와 權變의 生存哲學

### I. 國家의 保全과 丙子胡亂

國家는 일정한 領土에 定住하는 國民으로 구성된 人類의 集團으로서 統治權(또는 主權)을 行사함으로써 外國으로부터 獨립한다.

領土는 國家의 統治權이 미치는 모든 區域을 가리키기 때문에 僰海나 領空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土地이며, 國民은 國家의 統治權이 미치는 人的範圍이다. 그리고 領土와 國民에 미치는 統治權은 國土와 國民을 支配하는 權利를 달하는 것으로서 國家의 固有하고 不可分의 權利이며, 구체적으로는 領土高權 對人高權 自主組織權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領土와 國民과 함께 國家概念의 要素라고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國家는 일정한 領土가 없거나 國民이 없거나 統治權이 없으면 成立될 수도 없고 存立될 수도 없으며, 3가지 要素 가운데서 1가지만이라도 위협을 받으면 國家의 存立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人類歷史를 통하여 與亡盛衰하였던 모든 國家는 領土를 保全하고 國民을 保護하고 統治權을 確保하는 데 많은 國力を 기울여 왔다.

國家의 領土와 國民과 統治權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事態는 內亂과 外侵이다. 內亂이란 國土를 借寇하거나 國塞을 洪亂할 목적으로

暴動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多數의 國民이 政府에 反抗하여 武力으로 투쟁하는 것과 2개 이상의 民間 사이에 武力으로 투쟁하는 것이 모두 이에 속한다. 그리고 外侵이란 外國의 侵略을 받는 일로서 領土와 國民에 대한 統治權이 침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國家가 다른 나라로부터 侵略을 당하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武力에 의하여 領土를 攻擊 또는 占領 당하거나, 심지어는 統治權者의 降伏을 강요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外侵은 戰爭이라는 手段으로 이루어지며 國民의 生命과 財產에 막대한 被害를 입게 되고 被侵略國의 正當한 주장을 무시되며 다만 侵略國의 武力만이 威力を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戰爭은 國家間의 紛爭에 있어서 正義는 무시되고, 武力이 곧 正義로 둔갑하기 쉽고 脊肉強食이 正當化하기 쉽다. 이러한 戰爭의 殘酷性과 不當性에 따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戰爭을 포기하는 條約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다만 自衛 또는 制裁를 위한 戰爭만을 예외로 인정한다.

朝鮮王朝는 크고 작은 많은 外侵을 경험하였고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壬辰倭亂과 丙子胡亂과 日帝의 侵略이다. 壬辰倭亂은 1592년부터 1598년에 이르렀으나 倭軍이 스스로 退却함으로써 종결되었고, 丙子胡亂은 1636년에 시작하여 1637년에 종결되었으나 仁祖가 清太宗에게 降伏하기에 이르렀고, 日帝의 侵略은 1905년의 乙巳保護條約을 거쳐 1910년의 韓日合邦으로 이어졌다. 3차례의 外侵을 살펴 보면 壬辰倭亂은 國民의 生命과 財產에 막대한 被害를 입게하였고, 丙子胡亂은 國民의 生命과 財產의 막대한 被害뿐만 아니라 統治權의一部까지도 침해당하게하였으며, 日帝의 侵略에는 國民의 生命과 財產뿐만 아니라 領土를 송두리째 강점당하고 統治權마저도 완전히 강탈당하여 國家가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外侵의 결과는 侵略者が 信奉하는 脊肉強食의 論理가 威力を 發揮하였다라는事實을 입증한다. 強小國은 아무리 正當하더라도 強大國의 武力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빼앗겨야 하고, 領土와 統治權마저도 빼앗겨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체험하게 하였다.

여기서는 丙子胡亂을 中心으로 國家와 國民의 生存哲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 II. 常道와 守城

丙子胡亂은 1636년(仁祖14년)12月부터 이듬해 1月에 걸쳐 清太宗이 12萬大軍을 이끌고 朝鮮에 침입한 戰爭이다.

清軍은 林慶業이 지키는 白馬山城을 파하여 漢城에 육박하였고 朝廷에서는 江華島를 엄중히 수비하는 한편 尹昉과 金尚容에게 명하여 宗廟 社稷의 祇主를 만들고 世子 嫣姜氏 元孫 風林大君 麟坪大君을 인도하여 江華島로 피신케 하였다.

仁祖도 같은 날 밤에 崇禮門으로 나와 江華로 향하려 하였으나 清軍이 벌써 弘濟院에 도착하여 隅川江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不可하다는 보고를 받고 仁祖는 崇禮門 樓閣에서 非常對策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 때 前鐵山都護府使 池汝海(1591~1636)가 精兵 500명으로 艦에 나가서 清軍의 先鋒을 무찌르겠다고 하였으나 反對論에 부딪쳐 좌절되고, 吏曹判書 崔鳴吉이 弘濟院에 주둔한 清軍의 質管에 나아가 酒肉을 대접하며 時間을 버는 사이에 仁祖는 世子와 百官을 대동하고 南漢山城으로 피신하게 되었다.<sup>1)</sup> 仁祖는 다시 江華로 올아 가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訓練大將과 御營大將등을 비롯한 將兵으로 하여금 城砦를 굳게 지키게 하였으나 食糧은 겨우 50여일을 견딜만하였고, 清太宗은 1637년 1月1일에 南漢山城下의 嵩川에 20萬의 清軍을 結陣하고 敝東의 望月峰에 올라 城中을 들여다 보았다.

그 동안 城中の 朝鮮兵은 12月 18일에 元斗均軍이 出戰하여 清兵 6명을 죽이고 20일에는 申景續軍이 出戰하여 清兵 30명을 죽였다.<sup>2)</sup> 그리고 29일에는 池汝海가 御營跑手등을 거느리고 맷줄에 의지하여 城을 내려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다.<sup>3)</sup>

이 때 朝廷에서는 明나라에게 援軍을 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였고, 각地方의 군사가 南漢山城까지 길을 만들어 안내하였다. 宋時烈撰「池汝海墓碑文」 참조.

1) 金端權「國難史概說」凡潮社 4290 pp.447~448; 池汝海는 漢江의 結冰狀態를 觀察하고 南漢山城까지 길을 만들어 안내하였다. 宋時烈撰「池汝海墓碑文」 참조.

2) 殿樞學會「韓國史」近世後期篇 乙酉文化社 1977 14版 pp.101~102 참조.

3) 宋時烈撰「池汝海 墓碑文」참조 함께 죽은자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4) 地方에서 올라오던 군사로서는 忠淸監司鄭世錫, 尹坡淸監 金弘翼, 鄭浦淸監

한편 江華에는 嫦宮과 世子 외에도 群臣의 妻子로서 難難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清太宗의 小船 80척의 공격을 받고 1637년 1月 22일에는 府城이 함락되어 嫦宮과 世子를 비롯한 200여명이 清軍에게 침해 南漢山城 밑으로 謾送되었다. 이 때 前右議政 金尚容과 前工曹判書 李尚吉등은 放火自殺하고 婦女子의 殉節者도 적지 않았으며 清兵은 殺戮과 淹虜를 慈行하였다.<sup>51)</sup>

江都가 함락되고, 嫦宮과 世子가 사로잡히고, 南漢山城이 포위되고, 地方에서 올라오는 勤王軍도 모두 敗北하고, 山城의 守備軍도 戰力이 당진되었는가 하면 食糧도 다 떨어지고, 敵軍은 밤낮으로 殺戮과 淹虜를 일삼는 형편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極限狀況은 國家의 主權이 완전히 유린 당한것이며 領土도 國民도 거의 遺失된 것이었다. 이러한 極限狀況에서는 커다란 政治的 實存的 決斷이 요구된다. 城 밖에서는 죄없는 백성이 殺戮을 당하고 있는데 城 안에서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이 때 城 안에서는 主和論이 대두하고야 말았다. 도무지 속을 능력이 없으니 降伏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降伏하기만 하면 모든 國難이 타개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만일 항복하면 임금이 清太宗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臣下의 禮를 행해야만 하고 清太宗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世子와 王子를 비롯하여 大臣들의子弟를 불모로 보내야 하고, 明나라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군대를 보내고, 일정한 수량의 銀幣를 바쳐야 하는 등 많은 조건이 따른다. 다시 말하면 獨立國家로서의 主權에 심각한 損傷을 겪게하게 된다. 그러므로 謙伏은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選擇이다. 여기서 轄廷을 치행하고 있는 臣下들의 快斷에 커다란 混亂과 蔴廢이 초래되었다.

臣下란 본디 어떠한 存在인가. 國王을 섭기어 國家의 梓治權力を行使하는 사람이고 學問을 쌓아서 人格을 陶冶한 사람이다. 사람이란 아무리 영특한 사람일지라도 學問하지 않고는 事理를 인식하고 制斷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學問은 臣下가 되는 必要條件이다. 子

李慶, 慶尚左兵使 許完, 慶尚右兵使 閔林, 全羅兵使 金俊龍, 平安監司 沈命肅, 開元帥 中景運, 鄭元帥 金自點, 江原監司 趙廷虎, 成均監司 閔聖徵, 慶尚監司 德旗의 군사와 鄭弘濟(全羅道), 金堤會(慶尚道)의 殲兵을 볼 수 있다. 賽樓學會『韓國史』近世後期篇 乙酉文化社 1977 14版 pp.102~103 참조.

51) 賽樓學會『韓國史』近世後期篇 乙酉文化社 1977 14版 pp.103~104 참조.

夏가 “배워서 넉넉하면 벼슬한다”고 말한 것은 배움이 벼슬의 필요조건임을 말한 것으로 理解된다.<sup>6)</sup> 배워서 넉넉하면 왜 벼슬해야 하는가. 벼슬하는 것은 자기만의 利益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며 治國平天下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臣下는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암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으며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다. 따라서 丙子胡亂의 경우처럼 나라가 困境에 빠졌을 때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心身을 바쳐야만 한다. 수 많은 臣下들이 勤心焦慮하고 清軍을 무찌르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丙子胡亂을 당하여 주목을 끄는 사실 중의 하나는 이른 바 斥和臣들의 주장이었다. 鄭蘊 金尚憲 尹桺 李敬興 洪翼漢 吳達濟 尹集 등으로 代表되는 斥和臣들은 有史이래 일찍이 없었던 講和(降伏)만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 때 禮曹判書 金尚憲은 목을 떼어 自決하였다가 羅萬甲의 구원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衛曹參判 鄭蘊은 鐵刀로 배를 찔러 自決하였으나 王이 보낸 御醫의 구원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그들은 清軍의 요구에 따라 捕送하게 되자 鄭蘊 金尚憲 尹桺이 自進하여 나섰고, 11명의 斥和臣이 捕送對象이었으나 尹集과 吳達濟만 현장에서 捕送되고 洪翼漢은 平壤에서 잡혀가게 되었다. 洪翼漢은 廣陽에 이르러 清太宗에 대한稱譽가 不當함을 꾸짖고 一片丹心을 금하지 않으므로써 죽임을 당하고 吳達濟와 尹愬도 龍骨大的 회유에 금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sup>7)</sup> 또한 金尚憲은 體職되어 安東에 거주하다가 1639년 清의 出兵要求에 대하여 강력히 反對하고, 林慶榮은 明을 공격하는 清의 作戰을 방해하고, 崔鳴吉은 明과 內通한 혐의로 廣陽에 押送되었다가 후에 放免되어 돌아오게 되었다.<sup>8)</sup>

6) 「論語」子張篇「子夏曰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

7) 金鍾權「國難史概觀」凡潮社 4290 pp.445~446, 454~455, 459~460 참조.

8) 靜樞學會「韓國史」近世後期編 乙酉文化社 1977 14版 pp.108~110 참조.

당시의 斥和論 중에는 衛曹參判 鄭蘊의 上疏가 포함될 수 있는 바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사신이 적진에 갈 때 청산하기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진실로 그러합니까. 선이 들자오매 미유파 끌개가 다 터지고 폭이 데여 팔소리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만일 청산하면 翁臣의 名分이 명백히 정하여지므로 잘 차 멀하는데로 委마이립니다. 예부터 천하에 말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

丙子胡亂을 당하여 斥和臣들이 斥和(主戰)를 주장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清과 같은 오탕케나라에 대하여 文明國으로 自處하는 朝鮮이 降伏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둘째는 國難을 당하여 臣下들이 모두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요, 셋째는 明나라에 대한 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野蠻族(후진국)에 대한 우월의식과, 선비로서의 殤節精神과, 明에 대한 韋明韋華思想과 國際的 義理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不當한 武力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고 明에 대한 義理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斥和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弱小한 國家라고 하더라도 國家의 自尊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과 國際的 義理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완강히 주장하고 목숨까지 바친 것이다.

孟子는 일찌기 生도 원하고 義도 원하지만 兩者를 함께 얻지 못한다면 生을 버리고 義를 취하겠다고 간파하였다. 그것은 生을 원하기는 하지만 원하는 바가 生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으므로 구차하게 生을 얻지는 않겠다는 것이며, 죽음(死)도 싫지만 싫어하는 바가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있으므로 그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sup>9)</sup> 사람은 누구나 욕구하는 바가 있지만 더 욕구하는 바와 덜 욕구하는 바가 있고, 싫어하는 바가 있지만 더 싫어하는 바와 덜 싫어하는 바가 있다. 욕구하는 바가 모두 얻어진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형편이면 더 욕구하는 바를 취하게 되고, 싫어하는 바를 모두 피할 수 있으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밖에 피할 수 없는 형편이면 더 싫은 것을 피하게 된다. 生보다는 義가 더 중요하고, 죽음보다는 不義가 더 싫다는 가치판단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판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生과 義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生과 義는 누가 분별하는가, 학문에 힘쓰고 마음을 바르게 한 선비가 하는 것이다. 三學士를 비롯한 斥和臣

습니까. 무릎을 굽히고 사느니 바른 것을 지키고 죽느니만 못합니다. 아국과 중국은父子의 은혜와 爰母의 관계가 있으니 어찌 배반하리까. 원천대 전하는 鴻臚을 내치어 나라를 파는 죄를 밝히시고, 그렇지 않으면 신을 죄주소서.”

『산성일기』, 병자: 장서각도서 한국판 2-218 著者未詳 46~48張 참조.

9) 「孟子」告子上篇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有甚於生者 故不為苟博也 死亦我所惡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

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義를 취하고 죽음을 피하지 않는 것이  
곧 常道이다. 外敵의 침범으로 나라의 主權이 유린당함으로써 宗廟와  
社稷이 위태로울 때 숨生取義하는 것이 常道라는 것이다.

『三學士傳』을 지은 宋時烈은 진술하기를 “丁丑年에는 사대가 절박  
하여 부득이 하였으나 萬折必東之心은 일찍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  
… 孝宗大王은 聖志가 더욱 담연하여 日月과 같았고 三學士는 죽음으  
로써 늘 그 마음을 밝혔으니 天經과 地義와 民彝가 그에 힘입어 멀  
어지지 않았다. …… 어떤 이는 오늘날 가히 春秋를 읽을 여지가 없  
다고 말하나 그것은 三學士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고 하였다.<sup>10)</sup>

守城과 斥和와 殉節은 선비가 지켜야 할 常道요, 國家社會의 理想  
的 規範倫理이다.

### III. 権變과 講和

많은 臣下와 백성들이 죽고 강력한 斥和論이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洪瑞鳳, 崔鳴吉, 金應國 등이 戰陣을 왕복하면서 講和條件을 교섭  
하고 龍骨大, 馬夫太 등이 城中에 들어와서 조건을 제시한 끝에 講和  
는 成立되고야 말았다. 여기서 말하는 講和는 和親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만 丙子胡亂의 경우는 和親이나 隨和하기 보다는 차라리 降伏  
이라고 불러 마땅한 것이었다. 兩國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①朝鮮  
은 清에 대하여 習臣의 禮를 행할 것 ②朝鮮은 明의 年號를 폐하고  
明과의 通交를 끊고 明에서 받은 諱命冊印을 내 禮을 것 ③朝鮮王의  
長子와 第二子, 諸大臣의子弟를 瑞陽으로 보내어 人質로 할 것 ④聖  
節 正朝 冬至 千秋 慶弔 등 使節은 明의 舊例에 따라 행할 것 ⑤清이  
증명의 出兵을 要求할 때에는 時期를 어기지 않을 것 ⑥朝鮮은 清에  
대하여 己卯年(1939年)부터 定額의 歲幣를 보낼 것 등이 포함되어 있  
었다. 이러한 條件들은 主權의 커다란 損傷이었고 歲幣로 인한 物質  
的被害은 매우 막중한 것이었고, 主權國家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屈辱이었다. 主和論者들은 이러한 事實을甘受하자고 주장한

10) 宋時烈『三學士傳』.“丁丑事迫於不得已 然萬折必東之心 則未嘗已也…… 孝  
宗大王 明聖志尤卓然如日月之皎然矣 使三臣者 能以死明其心 天經地義民彝相  
以不墜…… 或者謂 今日無地可讀春秋 謂不知有三學士也” 清州大學校圖書館  
所藏 23책

사람들이었다.

主和論者들은 어찌하여 和親을 주장하였던가. 一身의 荣譽와 利益과 享樂을 위한 것일까. 常道를 지키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며 선비로서의 氣概를 나타내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일까. 그들은 斥和가 常道임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

孟子는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바요, 熊掌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兩者를 함께 얻지 못할진땐 물고기를 버리고 熊掌을 취하리라”고 하였다.<sup>11)</sup> 물고기는 좋은 음식물이지만 熊掌은 더욱 좋고 珍奇한 음식물이다. 따라서 두 가지가 모두 먹고 싶은 음식물이지만 불행하게도 한 가지밖에 취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물고기 보다 더욱 좋고 진기한 熊掌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孟子는 물고기 보다 熊掌을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것을 취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熊掌의 값어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이다. 生과 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生보다는 義에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孟子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眞理와 價値觀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가내하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요, 현실임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孟子는 '禮'와 '權'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淳于髡과의 對話에서 나타났다. '男女授受不親'이라는 禮가 당연한 規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兄嫂가 물에 빠져 生命이 危殆로운 형편에서는 男女授受不親의 禮를 깨트리고라도 兄嫂를 물에서 건져 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孟子는 여기서 '저울질'(權)을 말하였다. 男女授受不親이라는 禮法에 얹매여 죽어가는 兄嫂를 계빨리 구원하지 못한다면 兄嫂는 죽고 말게 된다. 그렇다면 男女授受不親이라는 禮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지켜져야 하는가. 마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기 위한 禮法은 어떻게 그 正當性이 확보될 수 있는가. 만일 사람을 죽이는 禮法이 正當性을維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법의 根本精神을 破壘하는 것이요, 일종의 自家撞着이다. 이러한 중대한 矛盾과 疑難을 解消하고 克服하는 妙方이 곧 孟子가 말하는 저울

11) 「孟子」告子上篇 “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12) 「孟子」離婁上篇 “淳于髡曰 男女授受不親 禮與 孟子曰 禮也 曰嫂溺則援之以手乎 曰嫂弱不振 是對頃也 男女授受不親禮也 嫂溺則拯之以手者 權也” 참조.

질(權)이다.

우리의 日常生活은 항상 저울질을 요구한다. 저울질은 事物의 輕重을 측정하는 긴요한 手段이기 때문이다. 事物에는 항상 本末과 先後와 緩急과 輕重이 수반하게 되고 이를 정확히 판가름하지 않으면 主客이顛倒되어 낭패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저울질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生活은 매우 雜妙한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저울질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여도 완전한 境地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個人的 社會的인 物件과 보이지 않는 많은 變數가 저울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울질은 形而下學의 物件의 저울질을 멀리 넘어선 形而上學의 價値觀의 저울질이다.

丙子胡亂을 당하여 王과 臣下와 百姓들은 누구나 저울질하기를 면할 수 없었다. 그 중에도 직접적으로 朝廷에 나아가 벼슬하던 臣下들은 맘낮으로 저울질하기에 心血을 기울였다. 저울질의 뚜렷한 결과는 常道로서의 斥和에 對한 權變으로서의 主和의 대두였다.

그러면 常道로서의 斥和와 權變으로서의 主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表面的으로 보아서는 너무나 相反되는 現象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는 항복하지 말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서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모두 죽자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항복하여 무릎을 꿇고 갖은 困辱을 당할지라도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더는 被害를 입지 말자는 것이다. 事物의 輕重을 판가름한 결과가 이처럼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常道로서의 斥和도 어려운 일이지만 權變으로서의 主和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常道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용납될 수 있지만 權變은 특수한 狀況에서만 승인되고 용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싸움터에 나간 군사가 목숨을 바쳐 싸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예찬될 수 있지만, 싸우지 말고 달아나자고 주장하는 것은 不當한 일이고 그 자리에서 銃殺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常道와 權變은 다른 점이 있다. 저울질의 결과는 이처럼 커다란 差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케 한다. 공자가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道에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道에 나아갈 수는 있어도 함께 살 수는 없으며, 함께 살 수는 있어도 함께 權道를 행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權變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말해 준다.<sup>11)</sup> 사람이 함께 공부할 수도 있고, 활된 일을 실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킬 수도 있을지라도 능히 輕重을 저울질

하여 義理에 부합하게 할 수(權輕重使合義)는 없다는 것이다.<sup>14)</sup> 여기서 輕重을 저울질하여 義理에 부합하게 한다는 것을 보면 저울질(權)이라는 것이 輕重을 측정하는 동시에 義理에 부합하게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常道라는 것은 義理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常道를 지킨다는 것은 義理를 지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常道나 權變이나 義理를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나 形式的 手段이나 現象에는 커다란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常道와 權變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常道로서의 斥和도 義理를 지키는 것이요, 權變으로서의 主和도 義理를 지키는 것이므로 形式的 手段이나 現象은 다르지만 그 義理의 핵심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 常道나 權變이나 모두 義理를 지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崔鳴吉은 濟陽에서 다음과 같은 詩를 써서 金尚憲과 주고 받았다고 한다.

.....  
.....  
끓는 물이나 얼음은 같은 물이요,  
갖웃과 갈포는 같은 웃일세.  
일은 혹시 때에 따라 다르더라도  
마음은 어찌 도에 어긋나리요.  
.....<sup>15)</sup>

끓는 물과 얼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다를지라도 실지로는 물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것이고, 갖웃과 갈포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다를지라도 몸을 보호하는 웃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것이며, 일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일 가운데 숨어 있는 마음(정신, 원리)만은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斥和나 主和나, 常道나 權變이나 모두 義理를 지킨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13) 「論語」子罕篇 “子曰 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未可與立 可與立未可與處”

14) 「論語」子罕篇 “可與立未可與處”에 대한 註 참조

15) “……湯未俱是水 淚莫非衣 事或隔時別 心寧固道遠——” 유승국『한국의 유교』 1976. p230참조 민족문화주진회 『중인표침 한국문집 총간 89』 1992년 『源川集』 권3 p. 296 用前解講經權 참조.

없음을 말한 것이다. 斥和가 義理를 지키는 길이라면 主和도 의리를 지키는 길이요, 常道가 義理를 지키는 길이라면 權變도 義理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崔鳴吉은 자신이 主和論을 주장하여 謂和를 成就한 일이 결코 義理에 어긋나지 않음을 밝혔다.

#### IV. 常道와 權變의 生存哲學

國家가 成立하고 保全되려면 主權과 領土와 國民이 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國家의 모든統治權力은 主權과 領土와 國民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外敵의 侵略을 방어하는 目的이나 理由도 여기에 있다.

丙子胡亂을 당하여 南漢山城이 포위된 급박한 상황에서 일금은 臣下들을 모아 對策을 논의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臣下들은 한번 싸우고 死國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람으로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나라로서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니 한 번 싸워 죽을지언정 어찌 犬羊의 뜰에 무릎을 꿇어 萬古의 耻辱을 스스로 취하겠느냐는 것이었다.<sup>16)</sup>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싸움의 결과에 대한 證見이다. 1 萬餘名에 지나지 않는 朝鮮軍이 城門을 열고 나아가 10 萬의 清軍을 공격한다는 주장은 論不成說이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편한 일이었다. 따라서 한 번 싸우자는 것은 결코 贏利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敗北를 證見하는 것이다며 殤國과 亡國을 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비와 節介와 國家의 體統을 손상하지 않는 常道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殤國과 亡國이 至高한 目標나 理想이 될 수 없고, 임금이나 臣下나 백성이 살고 領土가 保全되고 統治權이 掛持될 수 있는 것이 現實的으로 바람직한 目標와 理想이라면 어쩔 수 없이 常道의 義理에 벗어나지 않는 應變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權變의 論理이다.

여기서 常道가 根本으로 하는 義理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義理인지 를 묻게 되고 그 義理가 만일 國家와 國民을 떠나 名分으로만 存在하는 義理가 아니라면 차라리 權變으로 追求하는 義理가 더욱 값지다고 말할 수 있다. 崔鳴吉이 많은 斥和論者들의 주장에 맞서 "敵을 맞아

16) 「大東奇聞」 卷三 崔鳴吉世稱 治之者不可無眞 “惟臣猶以斥和為主 稽列金尚 聲奏曰 人無不死之人 國無不亡之國一” 한성서원 1981년 4판 30장

싸우지 못하면서 和親도 하지 못한다면 그 殘亡을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金尚憲이 講和의 圖書를 들어 버리자 崔鳴吉이 "不得已한 일"이라 하고 들어진 圖書를 다시 주워 페낸 것은 權變의 義理를 實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權變은 崔鳴吉의 말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택하는 應變이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常道를 지킬 수 없는 極限狀況에서 택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유일한 非常手段이며, 또한 非常手段에 의하여 常道의 義理를 實現하는 妙策이다.

儒家哲學에서는 時中을 중시한다. 中은 大中至正이며 不偏不倚이며 無過無不及인 까닭에 天下의 大本이며 永遠한 真理이며 不變의 常道이다. 時는 應變의 原則이며 隨宜調整이다.<sup>18)</sup> 그러므로 時中은 時宜에 부합하는 真理이다. 時宜에 부합하지 않는 真理는 架空的인 假理에 지나지 않으며 現實的 真理가 될 수 없고 當面課題를 해결하지 못한다. 時中은 義理를 根本으로 하면서 權變을 屬性으로 한다. 義理를 떠난 時中이 成立할 수 없듯이 權變을 떠난 時中도 存立할 수 없다. 孟子가 楊子와 墨子를 비판하고 나서 "子莫은 執中하였으니 執中이 道에 가깝기는 하나 執中만 하고 權變이 없으면 한 쪽만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 것은 時中의 根本眞理를 잘 전술한 것이다.<sup>19)</sup>

常道와 權變은 內子胡亂을 통하여 부과된 朝鮮王朝의 生存哲學이다. 日新又日新을 志向하는 儒家의 生存哲學이요, 永遠한 發展을 追求하는 人類의 生存哲學이다.

17) 「大東奇聞。卷三 崔鳴吉世稱拾之者不可無焉 “鳴古時以吏判 廣廷爭曰 既不能敵 又不能和 自促其亡—”」漢城書院 1931년 4版 30張

18) 蔡仁厚「儒學의 執與變」東大圖書公司 1990 pp. 7-8 참조. 蔡仁厚는 執時制宜 損益而得時中 經須通權 權不離經 守經通權 등으로 常道와 權變의 哲學을 진술하고 있다.

19) 「孟子」盡心上篇 “子據執中 執中當近之 執中無權 勿執一也”

## 「常道와 權變의 生存哲學」에 대한 논평

오석원(성균관대학교)

### I. 논문의 요지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외침의 하나인 병자호란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이념으로 제시된 척화론과 주화론을 유가의 상도와 권변의 이론과 연결시켜 고찰하여 본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제1장의 <국가의 보존과 병자호란>에서는 국가 구성의 3 가지 요건인 영토, 국민, 주권(통치권)등의 개념과 국가의 보존을 위협하는 내란과 외침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제2장의 <常道와 守城>에서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1936년 12월 이후부터 이듬해 강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 김상현을 비롯한 三學士들이 주장하였던 척화론의 내용, 이러한 척화론의 근거로 맹자의 '술生取義' 정신을 제시하여 척화의 순절은 선비가 지켜야 할 상도로 국가사회의 이상적인 규범윤리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필자는 제3장의 <權變과 講和>에서 당시 최명길을 비롯한 주화론자들이 주선하여 이루어진 굽욕적인 강화내용을 소개하고, 당시 주화론자들의 주장은 개인의 権利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서술하였으며, 맹자가 말한 '權'을 근거로 들어 주화론이 결코 의리에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하고, 상도와 권변은 모두 의리에 근거하면서 다만 형식적 수단이나 현상에서만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제4장의 <상도와 권변의 생존철학>에서 당시 조선의 군사력이 청에 비하여 대단히 열세에 있던 상황에 주목하여, 척화론의 주장은 싸워 승리함에 있음이 아니라 선비의 절개와 국가의 체통을 중시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상도만을 강조하여 순절과 망국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도는 무엇을 위한 의리인지 의문을 제시하고 차라리 권변으로 추구하는 의리가 더욱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 유가의 時中의 道를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 II. 문제점

병자호란에 대응한 척화파와 주화파의 두 주장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당시의 역사상황의 문제는 유가의 살도와 권변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살도와 권변의 개념과 구조 및 상호관계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로 당시의 역사상황에 대한 사실적 지식, 척화와 주화를 주장한 그들의 현실판단과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 등이 최소한 갖추어져야 그나마 올바른 평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애쓴 필자의 노고를 많이 느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그 요지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평가에 관한 문제점.

① 비록 논문의 구성에서는 척화와 주화의 입장을 대등하게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장의 주화와 척화와의 비교를 볼 때, 최명길의 詩만을 인용하는 등 대체적으로 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하게 권변을 주장한 지천의 입장에 대한 설명은 매우 자세하지만, 권변의 의미를 알면서도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현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② 제3장에서 '그 중에도 직접적으로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던 신하들은 밤낮으로 저울질하기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저울질의 결과는 상도로서의 척화에 대하여 권변으로서의 주화의 대우였다.'라는 필자의 기술은 마치 당시의 조정 대신들이 대부분 척화보다 주화에 의미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거나, 상도인 척화의 주장보다는 권변인 주화의 주장이 더 우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2) 논리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점.

필자는 척화론과 주화론을 살도와 권변에 대입하여 설명하면서, 제3장 끝에서는 '수성과 척화의 순절은 선비가 지켜야 할 살도의 국가 사회의 이상적인 규범원리'라고 기술하고, 제4장에서 '살도와 권변은

병자호란을 통하여 부각된 조선왕조의 생존철학'이라고 논하여 상도와 권변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4장에서 당시 상황에서의 척화론의 주장에 대하여 '여기서 상도가 근본으로 하는 의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의리인지 물게되고 그 의리가 만일 국가와 국민을 떠나 명분으로만 존재하는 의리가 아니라면 차라리 권변으로 추구하는 의리가 더욱 값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여 척화의 상도를 의미를 부정하고 주화의 권변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필자의 입장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 3) 생존과 권변의 개념에 관한 문제점.

유가의 仁道와 義理정신은 인간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생명의 연장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의한 생존에 대하여는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점을 맹자의 '殺生取義'로 설명하고 있지만, 논문의 전체적인 요지는 권변인 주화론에 비중을 두고 있어 생존의 개념을 단순하게 현실적인 생명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만 오해될 소지가 있다. 또한 유가에서 상도와 권변은 모두 현실적 기반위에 놓여 있으며, 다만 현실의 일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인 당위규범이 상도이고, 현실의 특수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일반 규범과 상이한 특수적인 방법으로 대용하는 것이 권도인 것이다. 필자의 주장에는 상도로서의 척화론을 자칫 관념적인 주장으로 잘못 이해되기 쉬운 점이 있다.

### 4) 맹자 원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

제3장에서 필자는 맹자가 만한 남녀간에 손을 직접 잡아서는 안되는 것(男女授受不親)에 대하여 '마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하여 '만일 사람을 죽이는 예법이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법의 근본정신을 과격하는 것이요, 일종의 자가당착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문의 본래 내용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남녀간에 손을 직접 잡지 않는 常禮를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상도요, 사람의 생명이 위태한 비상사태에서 비록 행수일지라도 손을 잡는 變禮로서 대용하는 것이 권변으로서, 비록 현실적인 대용방법에 있어서는 상례와 차례가 상이하

지만 모두 사람을 살리는 예의 기본정신(道)에서는 상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필자는 권변을 통한 사람을 살리는 번례에 의미를 두고, 이 내용과 대비하여 손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상례를 마치 '사람을 죽이는 예법'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이를 근거로 한 '예법의 근본정신을 파괴' 또는 '자가당학' 등으로 확대하여 해석한 것은 모두 본문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헤언이다.

#### 5) 비유의 문제점.

제3장에서 필자는 상도와 권변의 실례로 '싸움터에 나간 군사가 목숨을 바쳐 싸우자고 주장하는 것'을 상도로, '싸우지 말고 달아나자고 주장하는 것'을 권변으로 비유하였는데, 달아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항복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권변으로 비유함이 좋을 듯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평자의 잘못 이해된 내용이나 출견에 대하여는 필자의 가르침을 기대한다.

### **편집위원**

대회장 : 오세순  
위원장 : 전보삼  
위원 : 허창무, 한준섭, 조병로, 소진광,  
장철수, 백남옥, 천화숙  
간사 : 서승갑, 김후정, 채수록, 김영기

### **남한산성과 삼학사**

---

인쇄 : 1997년 10월 9일  
발행 : 1997년 10월 9일  
발행인 : 오 세 순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성남농촌지도소 내 2층)  
전화 : 0342)781-1020, 2802  
FAX : 0342)709-5246

---

\* 이 자료집 발간은 성남시 향토문화연구소 사업  
지원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